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徐福 이야기의 文獻 記錄 考察

－ 中·韓·日 古文獻을 中心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 遺産 教育 學科

梁 基 炯

2022年 8月

徐福 이야기의 文獻 記錄 考察

- 中·韓·日 古文獻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鄭 光 中

梁 基 炯

이 論文을 社會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8月

梁基炯의 社會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 은 석



委 員

장 승 희



委 員

정 광 중



濟州大學校 社會教育大學院

2022年 8月



A Study on the Written Records of the Story of XuFu

- Focusing on the old records of China, Korea and Japan -

Gi-Hyung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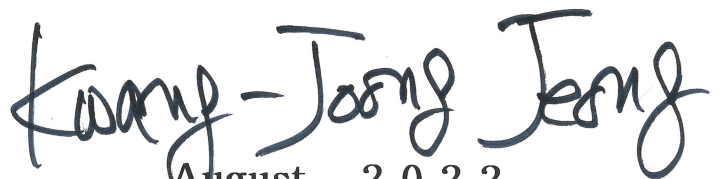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August 202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wang-Joong Jeong,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Name and signature)



August 2022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4
제2장 중국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7
제1절 양한시대(兩漢時代)	7
제2절 삼국양진남북조시대(三國兩晉南北朝時代)	19
제3절 수당오대시대(隨唐五代時代)	25
제4절 송원시대(宋元時代)	32
제5절 명청시대(明清時代)	37
제3장 한국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41
제1절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전	41
제2절 고려시대(高麗時代)	43
제3절 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	46
제4절 조선시대(朝鮮時代) 후기	50
제4장 일본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63
제1절 아즈치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 이전	64
제2절 에도시대(江戶時代) 이후	73

제5장 중·한·일 문헌 기록의 연관성	79
1. 중국의 서복	79
2. 한국의 서복	82
3. 일본의 서복	84
4. 역사(歷史)와 전설(傳說)	86
제6장 결 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9

【국문초록】

徐福 이야기의 文獻 記錄 考察

- 中·韓·日 古文獻을 中心으로 -

梁 基 炯

濟州大學校 社會教育大學院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指導教授 鄭 光 中

21세기에 이르러 중·한·일 세 나라는 서복을 연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는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서복 기록이 처음 나타난 이후, 서복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한·일 각 나라에 존재하는 옛 문헌 속 서복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서복은 시대별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서복 이야기는 어떻게 각색되어 이들 나라에 전해졌는지, 또 이들 세 나라에 어떠한 형태로 서복의 실체가 구체화되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의 기록은 양한(兩漢)시대, 삼국양진남북조(三國兩晉南北朝)시대, 수당오대십국(隋唐五代十國)시대, 송원(宋元)시대 및 명청(明清)시대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의 기록은 통일신라 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및 후기로 나누고 일본의 기록은 아즈치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 이전과 에도시대(1603~1867년) 이후의 기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대한 문헌 기록 중에 사마천의 『사기』, 눌지왕(訥祗王)이 불렀다는 『우식곡(憂息曲)』, 『우츠호이야기(宇津保物語)』는 각 나라의 서복 관련 최초 기록이다. 서복의 일본정착을 처음으로 중국에 알린 문헌은 의초(義楚)의 『의초육첩(義楚六帖)』이고 서복 이야기와 한반도를 연결하려 시도한 문헌은 고향(顧況)의 「송종형사신라(送從兄使新羅)」, 후지와라시게노리(藤原

茂範)의 『당경(唐鏡)』 및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등이 있는데 서복과 관련하여 중·한·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문헌들이다.

사마천이 『사기』의 집필을 시작한 시기는 B.C. 105년으로 『사기』 《회남형산열전》의 주인공인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반란에 실패하여 죽은 B.C. 122년과는 불과 17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사기』의 서복 기록은 사실이며 검증된 역사기록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지금까지 서복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서복은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서복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전해졌을 것이다. 『우식곡(憂息曲)』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의초육첩(義楚六帖)』을 통하여 서복의 일본정착전설이 중국에 알려지기 수 세기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서복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서복 이야기는 일본의 전통 신도(神道)와 결합하여 서복의 신격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7세기 이후 조선 통신사의 일본 파견으로 소중화주의에 사로잡힌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유학자들의 상고주의적 역사관이 서로 맞물려, 이 시기에는 서복 이야기에 대한 엄밀한 논증보다는 단순하게 이를 인용하는데 가치를 두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일부 유학자들도 각각의 문집에서 한반도를 서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최부(崔溥)의 「탐라시35절(耽羅詩三十五絶)」, 황준량(黃俊良)의 『금계집(錦溪集)』, 정온(鄭蘊)의 『동계집(桐溪集)』,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박태무(朴泰茂)의 『서계집(西溪集)』 및 조엄(趙曦)의 『해사일기(海槎日記)』 등이 있다.

한반도는 서복 이야기의 분명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서복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복에 대한 심도 있는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주제어: 서복, 徐福, じょふく, XUFU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200여 년 전 전국칠웅(戰國七雄)을 정벌하여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은 새로 얻은 천하를 자손 대대로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황권의 위엄을 세우고 제국의 기초를 잘 닦아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로불사(不老不死)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유(東遊) 중에 마침 제(濟)나라에 살고 있던 방사(方士) 서불(徐市)이라는 자가 나타나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 중 하나인 봉래산에 가서 신선을 모셔오고, 불사약 또한 구해 올 수 있다고 진시황에게 고한다. 신선사상과 미신에 집착하여 장생불사를 꿈꾸던 진시황은 서불에게 수많은 보물과 3,000명의 동남동녀를 팔려 바다로 보냈으나, 서불은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찾아 머무르다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서불 관련 최초의 기록이다.

서불은 진시황을 속인 협잡꾼으로, 때로는 승천(昇天)한 신선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의 전사사(前四史)¹⁾를 비롯한 사서 및 지리지, 열전 및 문학작품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이야기는 한반도에도 전래되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말 및 조선시대에 걸쳐 많은 문집에서 다루어졌으며,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를 통한 교류 등을 통하여 일본에도 전해져 에도시대(江戶時代)의 일본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칸호(寬輔, かんほ)라는 일본의 승려가 구마노(熊野)에는 서불의 무덤과 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후주(後周)의 승려 의초(義楚)에게 알려주고, 의초는 자신의 저서 『의초육첩(義楚六帖)』을 통하여 서불의 일본 정착을 중국에 알린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서불의 동도일본(東渡日本)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불 이야기는 불멸의 생명성이 있다. 또한 서불 이야기의 내재적 의미에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동아시아적 호혜성(互惠性)도 있다. 갈등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일찍부터 풍류적이고 도교적인 생명성을 통해 교류의 공존성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었던 동아시아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서불 이야기

1) 중국 고대의 중요 사서로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를 전사사(前四史)라 부른다.

는 2,000여 년의 시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며 21세기형 호혜망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복 이야기의 수용과 창출은 동아시아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공유감을 실천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²⁾

B.C. 3세기 진(秦)나라의 방사 서복의 출해동도(出海東渡)는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의 여명기에 있었던 일대 장거(壯舉)로서 그간 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중·일 양국 학계에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구를 발족하고 연구지를 발간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³⁾ 그러나 한국은 서복 이야기의 주요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복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서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이동경로, 유적탐방 및 고증, 일본과 중국의 유적답사 및 불사약 등에 치우쳐 왔다. 다시 말해서 서복 관련 옛 문헌의 조사와 그 속에 담긴 서복에 대한 인식 및 시대적 변천사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문헌 탐구에 대한 연구 성과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중·한·일 세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복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는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서복 기록이 처음 나타난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이야기가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한·일 각 나라에 존재하는 옛 문헌 속 서복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서복 이야기가 어떻게 각색되고 이들 나라에 전해졌는지, 또 이들 세 나라에 어떠한 형태로 서복의 실체가 구체화되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의 바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쇄된 단행본이나 논문집 등을 구입하거나 대출하여 저술 활동에 참고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

2) 이창식(2005),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古代學』, 12, p.78.

3) 鄭守一(2002), 「徐福渡韓考」, 『제주도 연구』 21, p.93.

4)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48, p.75.

이 해소할 수 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현역 금융기관 주재원 시절 일본과 중국에서 사권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학원 3학기가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서복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단행본의 목록을 작성한 후 중국과 일본의 지인들에게 자료를 구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더불어 소속대학의 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복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더 필요한 논문은 중국의 바이두(baidu.com)와 일본의 야후저팬(yahoo.co.jp) 등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문제는 자료의 번역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자료 자체가 대부분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대문으로 번역된 자료를 찾아야 하거나 직접 번역을 해야 했는데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자료는 대부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작업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여러 자료들의 번역과 정리 작업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록은 쭈야페이(朱亞非) 교수의 분류를 참고하여 양한(兩漢)시대, 삼국양진남북조(三國兩晉南北朝)시대, 수당오대십국(隨唐五代十國)시대, 송원(宋元)시대 및 명청(明清)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양한시대 『사기』의 기록은 서복동도(東渡)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동도의 목적은 삼신산을 찾아 장생불로의 명약을 찾아가 함이며, 서복 일행은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찾아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삼국양진남북조시대 기록의 특징은 서복 일행이 정착한 곳으로 단주(澶洲)를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삼국지(三國志)』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수당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복 이야기가 문학작품의 소재로 인용되었으며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 파견 등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하여 서복 이야기와 일본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송원시대에 들어서는 세 나라 사이의 민간교류는 활발하였으나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自治通鑑)』이나 이방(李昉)의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서복 기록 이외에는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 등의 사서에서 서복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명청시대의 사서에서도 서복동도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야사, 지방지, 인물지 및 시인묵객의 문집 등에는 서복이 동도하여 일본으로 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한국의 기록은 홍기표(洪琦杓) 교수의 분류를 참고하여 통일신라 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및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최초의 기록인 통일신라의 『우식곡(憂息曲)』을 시작으로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의 시와 조선시대 전기의 기록들

은 대부분 중국의 사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시(詩)나 문(文)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서복은 불사약을 찾아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동도했는데, 이는 진시황의 갱유(坑儒)와 폭정을 피해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량의 서복 관련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또한 18세기부터는 실학과 국학의 발달로 백과전서의 편찬이 활발해져 여기서 서복 관련 기사를 상당량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일본의 기록은 우웨이밍(吳偉明) 교수의 분류를 참고하여 아즈치모모야마시대 이전과 에도시대(1603~1867년) 이후의 기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6년) 후반부터 서복의 동도일본(東渡日本)의 전설에 따른 관련 문헌이나 유적이 증가하였고, 에도시대에 이르러 전성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⁶⁾

나라별로 서복의 표기를 보면, 중국에서는 ‘徐福(취푸, XUFU)’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서복’, 일본에서는 ‘徐福(쥬후쿠, じょふく)’라고 각각 표기하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발음인 ‘서복’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다만 서복 이외의 인명과 지명의 표기는 ‘어문규정’에 따라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이전은 한자음대로 이후는 중국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어 표기법에 따랐다. 또한 본문 내용의 전개 순서는 서복이 중국인임과 서복 일행이 동도했을 때 중국을 출발한 후에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정착했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중·한·일의 순서로 했음을 밝힌다.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역사적으로 중·한·일 세 나라는 이웃하여 오랫동안 교류를 이어왔다. 서복동도는 동아시아 고대사의 큰 사건으로 오랫동안 문헌 기록과 전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중국에서는 2,000여 년 동안 서복 관련 문헌사료, 시가, 유적

5)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48, pp.81~82.

6) 吳衛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61.

(日本自平安時期 (794~1186) 後半開始出現徐福東渡日本的傳說、相關文獻及遺跡不斷增加、至德川時代(1603~1868)達到全盛。)

및 민간전승 등이 발굴되어 서복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사서의 기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역대 학자들의 견강부회(牽強附會) 등의 원인으로 많은 자료들이 서복 연구를 위한 믿음을 주지 못하여 서복동도의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였다.⁷⁾ 중국대륙에서 서복 연구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시기는 중화민국에서부터 20세기의 80년대까지인데 연구의 영역이나 깊이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다. 이 시기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 옛 선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서복에 대한 인식이 훨씬 깊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적 시각으로 서복을 조명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복은 더 이상 전설상의 인물로, 불사초와 관련해서만 시에서나 간혹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사적 고찰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사서를 뒤지며 서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⁸⁾

일본의 경우 서복은 전설의 인물로 신격화되어 문자 기록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유적이나 유물들이 만들어지고 전래되어 왔다. 서복 일행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문헌 기록은 중국대륙보다는 훨씬 늦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에 서복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아주 오래되었고, 많은 전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서복 이야기는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언제부터 이러한 서복 관련 전설이 일본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중국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본의 신도(神道)와 결합되면서 서복(徐福)은 민간에서 신앙승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⁹⁾

옛 문헌 속 서복 기록을 발굴하는 작업은 나라별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츠지시호(達志保)교수의 ‘서복 관련 문헌의 시대별 성립 과정과 전파 경위(徐福記述文獻時代別成立分布と經緯)’¹⁰⁾를 보면 에도시대 말(1888년)까지 발굴된 문헌은 중국

7)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27.

(2000多年以來、有關徐福的文獻史料、詩詞歌賦、遺址遺迹、民間傳說不絕于書、爲研究徐福提供了許多資料。但是由於正史記載的語焉不詳、歷朝歷代學者的牽強附會等原因、有些資料不能作爲研究徐福的可靠材料、在有關徐福東渡的問題上仍有很多疑點需要解決。)

8)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48, p.107.

9)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52.

(而在日本、徐福更多的是作爲一個傳說中的人物被神化、其流傳不僅伴有文字記載還佐以大量遺蹟、遺存。日本國內、有文字記載的徐福東渡內容要比中國晚得多、但是有關徐福東渡的傳說卻由來已久、許多傳聞和某些記載在日本流傳頗廣、雖不能確定這些傳說從何時興起、但在內容上卻相當具體、甚至出現許多中國史籍中所未曾出現過的記載。而且、這些傳說又與日本的神道相結合、使徐福成了民間信仰崇拜的對象。)

10) 達志保(2004), 『徐福論-いまを生きる伝説-』, 新典社, 表-1.

(<http://jsmaeda072.webcrow.jp/webcontets/katudou/pdfjohukubunken.pdf>)

36건, 한국 2건, 일본 114건으로 일본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현대(1889~2003년)의 문헌을 보더라도 중국 60건, 한국 7건, 일본 290건으로 역시 일본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홍기표 교수가 발굴하여 발표한 57개의 문헌¹¹⁾을 참고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복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서복 이야기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중·한·일의 옛 문헌 속 서복 기록을 찾아 서복 이야기가 어떻게 전래되고 각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 나라의 옛 문헌 속 서복 기록을 단순하게 나열한 연구는 쭈야페이 교수의 『서복지(徐福志)』¹²⁾에서 처음 시도가 되었다. 중·일의 옛 문헌 기록을 나열한 연구는 왕묘오파(王妙發)교수의 연구보고서¹³⁾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의 옛 문헌 기록은 홍기표 교수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중·한·일 옛 문헌 속 서복 기록을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고찰해본 연구는 아직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시도하는 이 연구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1)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48, p.74.

12)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p.211~305.

13) 王妙發(2003), 「新宮市にある徐福に關する伝承地・伝説の研究報告」, 地域研究シリーズ, 26, pp.9~14.

제2장 중국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서복에 관련된 고대 중국의 사료는 많지 않다. 서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년)이 집필한 『사기(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사료는 모두 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서복의 자(字)는 군방(君房)이고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제(齊)나라 낭야군(琅琊郡) 사람으로 진나라의 저명한 방사(方士)였다. 전설에 의하면 서복은 귀곡자선생(鬼谷子先生)¹⁴⁾의 수제자인데, 매우 박학다재(博學多才)한 인물로 의학, 천문 및 항해 등에 정통하여 진나라 시대 연해일대(沿海一帶)의 민중들로부터 명망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제1절 양한시대(兩漢時代)

양한시대의 기록으로는 『사기(史記)』와 『한서(漢書)』가 있는데, 『사기(史記)』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봉선서(封禪書)》 및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에서, 『한서(漢書)』의 《교사지(郊祀志)》와 《괴오강식부전(崩伍江息夫傳)》에서 서복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 『사기(史記)』

전한(前漢, B.C. 108~B.C. 91년)의 역사가 사마천이 지은 『사기』 《진시황본기》에 서복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진시황본기》에서는 서복의 이름이 ‘복(福)’이 아니라 ‘불(市)’로 되어 있다. ‘徐福’이라는 표기는 같은 『사기』의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에 처음 나타난다. ‘불(市)’은 ‘시(市)’와 매우 흡사하지만 서로 다른 한자로 ‘건(市:수건 건)’이라는 글자에 가로 막대기를 하나를 더한 것이다. 글자의 의미는 고대에 입었던 슬갑(膝甲)¹⁵⁾이다. 『사기』의 기록을 살펴보자.

14) 전국시대의 인물로 유명한 모략가(謀略家)이자 종횡가(縱橫家)의 원조이며 병법 집대성자로 제자 백가의 종횡가의 창시자이다. 백가학문에 능통하며 운몽산 귀신골(雲夢山鬼谷)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귀곡자선생(鬼谷子先生)이라 불려졌다.

15) 추위를 막기 위하여 바지 위에다 무릎까지 내려오게 끼입는 옷. 앞쪽에 달아 허리띠에 걸쳐 맨다.

i.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시황 28년(B.C. 219년), 진시황이 동쪽으로 군현을 순시하다가 추역산(鄒嶧山)에 올랐다. 옛 노(魯)나라 지역 유생들과 의논해 비석을 세워 진나라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비석에 새기고, 봉선(封禪)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망제(望祭)의 일을 의논하였다. … 이어 발해(勃海)를 끼고 동쪽으로 가서 황현(黃縣)과 추현(腫縣)을 지나 성산(成山)의 정상까지 간 다음 지부산(之罘山)에 올라 비석을 세워 진나라의 공덕을 칭송한 다음 떠났다. 남으로 낭야산(琅邪山)에 오르니 너무 기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에 백성 3만 호를 낭야대 아래로 이주시키고 12년간 세금 또는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낭야대를 만들어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겨 진나라의 공덕을 칭송하며 그 뜻을 밝혔다. … 이것이 끝나자 제나라 사람 서불(徐市) 등이 상서를 올려, “바다 한가운데 세 개의 신산(神山)이 있는데, 이름은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라고 하며 선인(仙人)이 살고 있습니다. 제계(齋戒)하여 동남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동남동녀 수천 명을 주고 바다에 들어가 선인을 모셔오도록 하였다.

二十八年、始皇東行郡縣、上鄒嶧山。立石、與魯諸儒生議、刻石頌秦德、議封禪望祭山川之事、乃遂上泰山、立石、封、祠祀。…於是乃并勃海以東、過黃、腫、窮成山、登之罘、立石頌秦德焉而去。南登瑯邪、大樂之、留三月。乃徙黔首三萬戶瑯邪臺下、復十二歲。作瑯邪臺、立石刻、頌秦德、明得意。…既已、齊人徐市等上書、言海中有三神山、名曰蓬萊、方丈、瀛洲、僊人居之。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于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入海求僊人。16) (卷6)

진나라 시대 서불 등은 방사(方士)라 불렸는데, 방사란 주로 도가(道家)와 신선사상(神仙思想)에 기초하여 천문, 주역, 점술, 오행, 풍수, 의술 및 연단술(煉丹術) 등에 통달한 사람을 의미한다. 진시황은 서불 일행을 바다로 떠나보낸 후에 남하하여 옛 초나라 땅인 팽성(彭城)으로 가서 양자강을 따라 형산(衡山), 남군(南郡), 상산사(湘山祠), 무관(武關) 등을 거쳐 수도인 함양으로 돌아갔다. 시황 29년(B.C. 218년), 시황제는 다시 동쪽 순무(巡撫)의 길을 나선다. 양무(陽武)의 박랑사(博浪沙)에서 한(韓)나라의 잔당 장량(張良)이 계획한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지부(之罘), 낭야(瑯邪), 상당(上党)을 돌아 함양으로 귀환했다. 이 때 서불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시황 32년(B.C. 215년), 진시황은 갈석산(碣石山)¹⁷⁾에 올라 연나라 사람 노생(盧生)에게 선문(羨門)과 고서(高誓)¹⁸⁾를 모셔 오도록 명하고 비석도 세웠다. … 또한 한중(韓終), 후공(侯公), 석생(石生) 등에게 선인의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명하였다. … (燕)나라 사람 노생은 바다에서 돌아와 귀신의 계시라 칭하며 예언서를 올렸는데, 거기에는 ‘진나라를 망치는 자는 호(胡)’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시황제는 장군

16)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p.242~247.

17) 연나라에 있었던 산으로 현재의 하북성(河北省) 진황도시(秦皇島市) 창려현(昌黎縣)에 있다.

18) 羨門과 高誓은 고대 전설 속의 신선이다.

몽염(蒙恬)에게 명하여 30만의 군사를 일으켜 북쪽의 호(胡)를 토벌하게 하고 하남(河南) 땅을 빼앗았다.

三十二年、始皇之碣石、使燕人盧生求羨門、高誓。…因使韓終、侯公、石生求僊人不死之藥。…燕人盧生使入海還、以鬼神事、因奏錄圖書、曰「亡秦者胡也」。始皇乃使將軍蒙恬發兵三十萬人北擊胡、略取河南地。19) (卷6)

시황 34년(B.C. 213년), 시황제는 선비들이 군현제를 집요하게 반대하자 이사(李斯, B.C. 284~B.C. 208년)의 간언을 받아들여 민간에 유통되던 유가경전(儒家經典)과 진나라 역사가들이 편찬한 사서 등 모든 책을 불태우는 이른바 분서(焚書)를 단행한다. 또한 의약(醫藥), 복서(卜筮), 농사(農事)와 무관한 서적의 소유를 금지한 협서율(挾書律)²⁰⁾을 제정한다.

시황 35년(B.C. 212년), 이때 노생(盧生)은 진시황에게 아뢰기를, “우리는 영지(靈芝), 기약(奇藥)과 선인(仙人)을 찾았지만 만나 본 적은 없는데, 분명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술(方術) 중에 ‘군주가 은밀히 행동하면 악귀를 피해 진인(真人, 즉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 거처를 알리시면 신기(神氣)가 상하는 법입니다. 진인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다니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천하를 얻어 다스리시지만 욕심 없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 머무시는 궁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시황은 “짐이 진인(真人)을 흠모해왔다. 이제부터 짐이라 하지 않고 ‘진인’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바로 명을 내려 함양 부근 200리 안에 있는 궁관 270 곳을 구름다리(雲梯)와 회랑으로 연결하고, 휘장, 종, 북 및 미인들로 채우되 모두 등록된 각자의 부서에서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 황제가 행차하여 거처하는 곳을 발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三十五年、盧生說始皇曰：“臣等求芝奇藥仙者常弗遇、類物有害之者。方中、人主時爲微行以辟惡鬼、惡鬼關、真人至。人主所居而人臣知之、則害於神。真人者、入水不濡、入火不燻、陵雲氣、與天地久長。今上治天下、未能恬佚。願上所居宮毋令人知、然後不死之藥殆可得也。”於是始皇曰：“吾慕真人、自謂‘真人’、不稱‘朕’。”乃令咸陽之旁二百里內宮觀二百七十複道甬道相連、帷帳鐘鼓美人充之、各案署不移徙。行所幸、有言其處者、罪死。21) (卷6)

그러나 후공과 노생은 “주상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날로 교만해지고, 아래 사람들은 두려움에 바짝 엎드려 기만하고 비위만 맞추고 있다. 진나라의 법에 두가지 이상의 방술을 겸할 수 없고, 그 방술에 효험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도망을 쳤다.

19)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p.251~252.

20) 진시황이 분서를 할 때 시행한 법령인 협서자족(卽書者族), 즉 금서(禁書)를 소지한 사람을 멸족(滅族)에 처하는 가혹한 형벌이다.

21)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253.

시황제는 (노생 등이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전에 천하의 책 중에 쓰기에 부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모조리 없애 버렸지만, 문학과 방술을 하는 선비들을 불러 모은 것은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함이었고, 방사들을 훈련하여 신기한 약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 듣기로 한중이 보고도 없이 떠나 버렸고, 서불 등은 이런 저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 돈을 낭비했지만, 끝내 약은 얻지 못했고 단지 간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비방만 한다는 말이 날마다 들려온다. 노생 등은 내가 존중하여 그들을 후하게 대했거늘, 이제 나를 비방하며 나의 부덕함을 닷하고 있다.”라며 크게 노하였다.

始皇聞亡乃大怒曰：吾前收天下書不中用者盡去之、悉召文學方術士甚衆、欲以興太平、方士欲練以求奇藥。今聞韓衆去不報、徐市等費以巨萬計、終不得藥、徒姦利相告日聞。盧生等吾尊賜之甚厚、今乃誹謗我、以重吾不德也。22) (卷6)

화가 난 시황제는 어사(御史)에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심문하게 하니, 이자들은 서로를 끌어들이며 고발하였다. 이렇게 법을 어긴 자들 460여 명을 골라내서 함양에다 과문은 다음, 천하에 알려져서 후세에 경계로 삼게 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갱유(坑儒)이다. 여기에서 다시 서불의 이름이 등장한다. 노생, 한중, 후공, 석생 등도 잡히면 사기꾼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데 어디론가 살길을 찾아 달아났을 것이다. 시황 37년(B.C. 210년) 10월 시황제는 다시 남쪽으로 출발하여 운몽(雲夢), 해저(海渚), 단양(丹陽), 전당(錢唐) 등을 거쳐 낭야로 올라온다.

방사 서불 등은 바다로 들어가 신약을 구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얻지 못하고 비용만 많이 들었으니 벌을 받을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봉래에서는 약을 얻을 수 있으나, 늘 큰 교룡(蛟龍)23)이 막아 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능숙한 사수를 보내 주시면 연노(連弩)로 이 교룡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하였다.

方士徐市等、入海求神藥、數歲不得費多、恐譴乃詐曰「蓬萊藥可得、然常爲大蛟魚所苦、故不得至。愿請善射与俱、見則以連弩射之。24) (卷6)

서불은 공공연하게 진시황을 속이고 있었지만, 도망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진시황은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장생불사의 약을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이 앞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시황은 잠자리에 들면 해신(海神)과 싸우는 꿈을 꾸는데, (그 해신의 모습은) 사람 같았다. 이 꿈을 해몽가에 물었더니, “해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큰 교룡(蛟龍)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근신하여 기도 중이신데 이 괴물이 나타

22)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255.

23) 뱀과 비슷한 몸에 비늘과 사지가 있고 물속에 살며 머리에 흰 혹이 있는 전설상의 용으로 전국시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양이 청동기에 새겨졌다.

24)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263.

났습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선인을 모셔 올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진시황은 큰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마련하여 스스로 연노(連弩)를 쏘려고 하였다. 낭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영성산(榮成山)까지 왔는데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부(之罘)에 이르자 큰 물고기를 보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사살하였다.

始皇夢與海神戰、如人狀。問佔夢博士曰「水神不可見、以大魚蛟龍爲候。今上禱祠略謹、而有此惡神。當除去而善神可致。乃令入海者齋捕巨魚具、而自以連弩候大魚出射之。自琅邪北至榮成山、弗見。至之罘見巨魚、射殺一魚。」²⁵⁾ (卷6)

서복 이야기는 전반에 걸쳐 서복의 항해 동기와 진시황의 욕망은 맞물려 있다. 꿈속의 망상이나 교룡 등은 정착 과정의 혼돈을 암시하는 신화소(神話素)인데, 고대 제의(古代祭儀)의 당위성을 말하는 단위라고 보아야 한다.²⁶⁾ 진시황이 사살한 큰 물고기는 교룡이었는지 상어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서쪽으로 나아간 시황제는 평원진(平原津)에서 병에 걸리고 사구(沙丘)의 평대(平臺)에서 서거하였다. 진시황 사후 2세 황제가 된 호해(胡亥, B.C. 230~B.C. 207년)도 동쪽 군현을 순행하여 갈석산으로부터 바다를 따라 회계(會稽)에 이르기까지 선황이 세운 비석 전부를 찾아 글자를 추가하여 새겼다고 하니, 당연히 낭야에도 왔을 것이지만 이때 호해가 서불을 만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시황제 사후 전란 시대에도 서불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사기』 《진시황본기》에서 서불에 대한 기술은 여기까지이다.

ii. 《봉선서(封禪書)》

『사기』 《봉선서》는 봉선(封禪)²⁷⁾ 등 각지의 제사의례를 기록한 것으로 제나라의 제사 관습뿐만 아니라 시황제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태산(泰山)과 양부산(梁父山)에서 봉선을 마친 시황제는 마침내 해상으로 동유(東遊)하면서 가는 길에 명산대천과 팔신(八神)²⁸⁾에 예를 갖추고 신선인 선문(羨門)의 환속(還俗)을 구하였다. 팔신(八神)은 고대부터 섬겼으나 태공(太公)²⁹⁾이

25)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263.

26) 이창식(2005),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東아시아古代學』 12, p. 63.

27) 제왕이 하늘과 땅에 왕의 즉위를 알리고 천하가 태평함을 감사하는 의식이다. 진시황 이전에는 72명의 제왕이 이 의식을 행했다고 『사기』에는 전한다. 그 역사는 삼황오제에 의해 행해진 것을 시초로 하고 있으나, 전설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시황제 이후에는 전한 무제와 북송의 진종 등 십여 명이 이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28) 직부(直符)、등사(騰蛇)、태음(太陰)、육합(六合)、구진(勾陳, 혹은 白虎)、주작(朱雀, 혹은 玄武)、구지(九地)、구천(九天)을 가리킨다.

29) 제나라 건국자 姜太公을 말한다.

이들을 제사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사기』 《봉선서》에는 서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삼신산에 대한 시황제 이전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제나라의 위(威)·선(宣)왕과 연나라 소왕(昭王)은 사람을 시켜 바다로 들어가 봉래(蓬萊), 방장(方丈)과 영주(瀛洲)를 찾게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삼신산은 발해(勃海) 가운데 있어 사람 사는 곳에서 멀지 않지만, 이르게 되면 재앙이 따르고 배가 바람에 밀려 돌아온다고 한다. 일찍이 거기에 가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고 한다. 그 곳에 사는 금수(禽獸)는 온통 하얗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궁전이 있다고 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과 같고, 가까이 다다르면 삼신산은 오히려 물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배가 닿으려 하면, 바람이 배를 밀어내어 마침내 다다를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세상의 군주는 모두 그곳을 흠모하였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 해상에 이르면 방사들이 (해상의 신선전설에 관해) 말하는 횡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진시황은 친히 해상으로 나아가서 이를 확인하려 하는데 찾지 못할까 두려워, 사람을 시켜 동남동녀(童男童女)들을 딸려 바다로 보내 찾도록 하였다. 그 자들은 모두 배가 바람에 떠밀려 비록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먼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듬해에 진시황은 다시 해상을 순유하며 낭야(琅邪)에 도달하고, 항산(恒山)을 거쳐 상당(上黨)으로부터 되돌아왔다. 그로부터 5년 후, 진시황은 남쪽으로는 상산(湘山)까지 순유하고, 회계산(會稽山)에 오르고 해상으로 가서 삼신산의 불사약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사구(沙丘)에서 서거하였다.

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此三神山者、其傳在勃海中、去人不遠。患且至則船風引而去。蓋嘗有至者、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其物禽獸盡白、而黃金銀爲宮闕。未至望之如雲、及到三神山反居水下。臨之風輒引去、終莫能至云。世主莫不甘心焉。及至秦始皇并天下、至海上、則方士言之不可勝數。始皇自以爲至海上而恐不及矣、使人乃齋童男女入海求之。船交海中、皆以風爲解、曰未能至、望見之焉。其明年、始皇復游海上、至琅邪、過恆山、從上黨歸。後五年、始皇南至湘山、遂登會稽、並海上、冀遇海中三神山之奇藥。不得、還至沙丘崩。³⁰⁾ (卷28)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발해는 현재의 발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에 ‘낭야는 발해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해(황해)도 발해라고 불렀다.³¹⁾ 원래 신성사상(神仙思想)은 고조선의 종교사상과 단군사화(檀君史話)의 핵심으로 전국시대에 그 접경지역인 연(燕)나라와 제나라 등의 신선사상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연해지대 사람들은 그들의 동쪽 바다 건너, 즉 한반도에 선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곳을 찾아내기 위해 술한 지략을 부렸다고 한다.³²⁾ 이 시대에는 방사라는 자들이 권력자에게 기생하여 신선사

30)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p.1369~1370.

31) 李永先(2007), 『徐福是和平的使者』, 『瀛洲徐福』, 1, p.113.

(《史記·封禪書》說:“三神山者,其在渤海中”。這個渤海不是現在的渤海。先秦古籍《山海經·海內東經》記載:“琅邪台(今青島膠南市南境)在渤海間”。中國古代稱東海也是渤海。)

32) 鄭守一(2002), 『徐福渡韓考』, 『제주도연구』, 21, p.97.

상을 빙자하여 ‘바다 저편에 선인들이 사는 낙원이 있다’고 권력자들을 현혹하곤 하였다. ‘바라보면 구름과 같으며, 찾아 이르면 물아래에 있는 듯하다’라는 표현은 신기루(蜃氣樓)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상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발해만과 해주만 일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이 일대 해상에는 신기루가 자주 나타났으며, 그것을 방사들이 이용하여 이른바 삼신산설(三神山說)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발해만(渤海灣)에는 요동반도와 사이에 묘도군도(廟島群島)가 늘어서 있지만, 이러한 섬들을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에는 삼신산은 어떤 구체적인 곳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기루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원나라의 위흠(于欽)은 저서인 『제승(齊乘)』에서 ‘삼신산은 바로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였다.³⁴⁾ 현대의 과학적 연구 성과가 증명하듯이 위흠의 견해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선경은 바로 볼 수는 있지만 오를 수 없는 것’으로 해상 신기루가 바로 삼신산이라며 바다 속에 봉래산이 있다는 황당한 설을 논박하였다.³⁵⁾ 옛 사람들은 이따금씩 해상에 떠오른 신기루를 보고, 이를 삼신산이라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

《진시황본기》에 서불의 이야기가 기록된 후 90년 가까이 지난 후, 전한시대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 179~B.C. 122년)의 업적을 전하는 『사기』 《회남형산열전》에는 ‘서불(徐市)’이 아닌 ‘서복(徐福)’의 이름으로 된 기록이 나타난다. 『사기』 《회남형산열전》은 전한(前漢)의 황족을 지방의 왕으로 봉한 황가(皇家)의 전기(傳記)이다. 진시황의 서거 4년 후인 B.C. 206년 초나라의 항우(項羽, B.C. 232~B.C. 202년)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패왕이 된다. 한 고조 유방(劉邦, B.C. 256 혹은 247~B.C. 195년)은 B.C. 202년 초패왕 항우를 패퇴시킨 뒤 안휘성(安徽省)에서 강서성(江西省) 일대에 걸쳐 회남국(淮南國)을 설치하고 개국공신인 경포(黥布)를 회남왕으로 봉하였다. 경포가 B.C. 196 반란을 일으키자 처형하고, 유방은 자신의

33) 홍순만(2002), 『徐福集團과 濟州道』, 제주문화원, p.43.

34) 元人于欽在《齊乘》卷一中說：“蓋海市常以春夏晴和之時、某日初升、東風微作、云脚齊數于海島之上、海市必現、現則山林城郭、樓觀族幢。在車駝鳥、衣冠人物、凡世間所有、象類万殊...嗚呼神哉!”

35) 唐祿庭(2007), 「秦始皇的東巡和徐福的東渡」, 『瀛洲徐福』, 1, p.314.

(在中國歷史上第一个做出正殘答案的是元代人于欽、他在《齊乘》中將兩者合二而一、三神山即是海市奇觀,現代化科研成果已證明、于欽的觀點無疑是非常正確的、正是仙境可望不可攀、海市蜃樓即神山。)

어린 첩 소생인 유장(劉長)을 회남왕으로 봉하여 4군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유장은 성장하자 교만해져 B.C. 174년 모반죄로 귀양을 갔으며,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굶어 죽었다. 10년 후인 B.C. 164년 유방의 아들 문제(文帝)는 옛 회남국 영토를 유장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유안(劉安)을 회남왕(淮南王), 유발(劉勃)을 형산왕(衡山王), 유사(劉賜)를 노강왕(廬江王)으로 각각 봉했다. 당시 유안은 16세의 소년이었다. 한무제(漢武帝)는 유안을 원로황족으로 잘 대우했지만 B.C. 124년 유안의 태자가 사고를 일으키자 그 벌로 회남국 영토 중에 두개의 현을 박탈하였다. 이에 불복한 유안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신하인 오피(伍被)가 주군을 설득하기 위해 예로 든 ‘진나라의 무도(無道)’ 중 하나로, 서복 이야기를 언급한 대목이 『사기』 《회남형산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진시황본기》보다는 서복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서불(徐市)은 서복(徐福)으로 기록된다. 왜 서불의 이름이 서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무릇 백 년 전의 진(秦)나라와 근래의 오, 초나라의 실례에서 족히 국가의 존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도 감히 오자서(伍子胥)와 같은 죽음을 피하지 않거니와 대왕께서도 오왕 부차(夫差)처럼 충성스런 간언을 물리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진(秦)나라는 성현의 도리를 끊고, 유생과 방사(方士)들을 죽이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불태우고, 예의를 버렸습니다. 또한 사술과 폭력을 숭상하고, 형벌에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했고, 동쪽 해변에서 나는 곡식을 운송해 서하(西河)로 보냈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힘써 농사지어도 술지게미와 겨조차 얻어먹기에 부족했으며, 여자들은 밤낮으로 베를 짰지만, 자기 몸을 가리기에다 부족하였습니다. 몽염(蒙恬)을 파견해 동서로 수천 리의 장성(長城)을 쌓느라 비바람과 눈서리에 몸을 맡긴 병사와 장수는 항상 수십만에 달했고, 그 와중에 죽은 자도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시체가 천리에 널리고 피는 흘러 논밭을 적셨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다해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 집 가운데 다섯 집이었습니다.

또 서복을 바다로 보내 기이한 물건을 찾아오게 하였는데, 그는 돌아오자 거짓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대신을 만나니 “너는 서황(西皇)의 심부름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기에 “장생불로(延年益壽)의 약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해신은 “진왕의 예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도 얻을 수는 없다.”고 대답하고 저를 동남쪽 봉래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영지(芝)가 궁궐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인의 사신은 구릿빛으로 용 모습을 하였으며, 그 광채가 하늘을 가득 비추었습니다. 제가 재배하며 “무엇을 드리면 좋겠소?” 하고 물으니 해신은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들을 백공과 함께 바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진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 삼천 명을 주고 오곡과 백공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복은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얻어 머무르다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탄식하고, 반란하려는 자가 열 집 중 여섯 집에 이르렀습니다.

夫百年之秦、近世之吳楚、亦足以喻國家之存亡矣。臣不敢避子胥之誅、願大王毋爲吳王之聽。昔秦絕聖人之道、殺術士、燔詩書、棄禮義。尙詐力、任刑罰、轉負海之粟致之西

河。當是之時、男子疾耕不足於糟糠、女子紡績不足於蓋形。遣蒙恬筑長城、東西數千里、暴兵露師常數十萬、死者不可勝數、僵尸千里、流血頃畝。百姓力竭、欲爲亂者十家而五。

又使徐福入海求神異物、還爲僞辭曰：臣見海中大神、言曰：汝西皇之使邪。臣答曰：然、汝何求曰：願請延年益壽藥。神曰：汝秦王之禮薄、得觀而不得取、即從臣東南至蓬萊山。見芝成宮闕、有使者銅色而龍形、光上照天。於是臣再拜問曰：宜何資以獻、海神曰：以令名男子若振女與百工之事、即得之矣。秦皇帝大說、遣振男女三千人、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廣澤、止王不來。於是百姓悲痛相思、欲爲亂者十家而六。36) (卷118)

B.C. 122년 한무제가 유안을 역모죄로 체포하려하자 유안은 자결하고 오피도 주살되었는데, 이 내용은 『한서(漢書)』 《회남왕열전(淮南王列傳), 오피(伍被)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서복은 동도(東渡)하였다는 사실이 며, 둘째, 동도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셋째, 동도의 목적은 삼신산을 찾아 장생불로의 약을 찾기 위함이고, 넷째, 서복 일행이 도착한 곳은 평원광택(平原廣澤)이라는 곳이다.³⁷⁾ 결과적으로 서복은 남양의 동쪽인 동해 저편의 어느 곳에 이주해 왕국을 건설했다고 한다. 그곳은 한반도 어디이거나 아니면 일본열도 혹은 대만이었을 것이다.

(2)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

서왕모(西王母)³⁸⁾가 한무제(漢武帝)에게 바다에는 조주(祖洲), 영주(瀛洲), 현주(玄洲) 등 10개의 주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전한(前漢) 동방삭(東方朔, B.C. 161 ~ B.C. 93년)이 지은 고대지괴소설집(古代志怪小說集)인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에는 서복이 진시황의 명에 따라 조주(祖洲)를 찾아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조주(祖洲)는 가까운 동해에 있고, 지방은 오백 리이고 서안으로 칠만 리가 된다. 섬

36)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第一冊), p.3086.

37)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28.

(史記의記載提供了這樣幾方面的信息：第一、肯定了確有徐福東渡其事、第二、東渡的次數至少是兩次、第三、東渡的目的是三神山、第四、東渡的原因是尋找長生不老藥、第五、徐福一行所到之處是“平原廣澤”。)

38) 중국에서 전래되는 선녀로 서쪽 전설상의 산인 곤륜산에 살면서 삼천년에 한 번 여무는 복숭아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열매를 먹으면 장수를 얻는다고 한다.

에는 장생불사의 풀이 있는데, 풀 모양이 줄 풀처럼 자라 서너 척이니 사람이 죽은 지 삼일된 자는 풀로 얼굴을 덮으면 모두 살아나 장생한다. 옛날 진시황 때 횡사자들이 도로에 가득했는데, 까마귀를 닮은 새가 어디선가 날아와 입에 물고 온 풀을 죽은 이의 얼굴 위에 놓으니 모두 소생했다. 황제가 그 풀을 가져가게 하여 귀곡선생에게 물으니, “그것은 바닷속 십주(十州) 중의 조주(祖州) 논에 나 있는 양신지(養神芝)라는 불사의 풀로서 한 그루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답하였다. 시황은 “이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자인 서복으로 하여금 소년과 소녀 오백 명을 팔려 누선을 타고 바다에 들어가 조주를 찾게 하였더니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서복은 도사인데 자는 군방이요, 후에 득도했다고 전해진다.

祖洲近在東海之中、地方五百里，去西岸七万里。上有不死之草、草形如菰苗、長三四尺、人已死三日者、以草覆之、皆當時活也、服之令人長生。昔秦始皇大苑中、多枉死者橫道、有鳥如鳥狀、銜此草覆死人面、當時起坐而自活也。有司聞奏、始皇遣使者齎草以問北郭鬼谷先生、鬼谷先生云：“此草是東海祖洲上、有不死之草、生瓊田中、或名爲養神芝、其葉似菰苗、叢生、一株可活一人。”始皇於是慨然言曰：“可采得否”乃使使者徐福發童男童女五百人、率攝樓船等入海尋祖洲、遂不返。福、道士也、字君房、后亦得道也。³⁹⁾

송나라 이방(李昉, 925~996년)이 저술한 『태평광기(太平廣記, 983년)』 《신선4(神仙四), 서복(徐福)》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⁴⁰⁾

(3) 『열선전(列仙傳)』

전한(前漢)의 유향(劉向, B.C. 77~B.C. 6년)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중국 최초의 신선전기(神仙傳記)인 『열선전(列仙傳)』에는 안기선생(安期先生)이라는 선인이 봉래로 들어갔는데, 진시황은 그를 모셔오기 위하여 서복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동일한 내용이 동진(東晉, 317~420년)의 갈홍(葛洪, 283~343년)이 지었다고 전하는 『신선전(神仙傳)』에도 기록되어 있다. 바야흐로 서복 이야기는 각색을 거듭하여 서복이 신선이 되어 가는 과정을 적고 있다.

안기(安期)선생은 낭야부향(琅琊阜鄉) 사람인데, 동해 바닷가에서 약장사를 하고 있어, 당시 사람들로 부터 ‘장수노인(千歲翁)’이라고 불렸다.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유할

39) 東方朔(1986), 『海內十洲記』, 臺灣商務印書館, p.274.

40) 李昉(983), 『太平廣記』 《神仙四, 徐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BD.

(徐福、字君房、不知何許人也。秦始皇時、大苑中多枉死者橫道。數有鳥銜草。覆死人面、皆登時活。有司奏聞始皇。始皇使使者齎此草。以問北郭鬼谷先生。云是東海中祖洲上不死之草、生瓊田中、一名養神芝、其葉似菰、生不叢、一株可活千人。始皇於是謂可索得、因遣福及童男童女各三千人、乘樓船入海。尋祖洲不返、後不知所之。逮沈羲得道、黃老遣福爲使者、乘白虎車、度世君司馬生乘龍車、侍郎薄延之乘白鹿車、俱來迎羲而去。由是後人知福得道矣。又唐開元中、有士人患半身枯黑、御醫張尚容等不能知。其人聚族言曰：「形體如是、寧可久耶。聞大海中有神仙、正當求仙方、可愈此疾。」)

(<https://ctext.org/taiping-guangji/4/xufu/zh>)

때 그를 불러와 함께 의논하기에 사흘 밤낮이 이르렀다. 그에게 돈과 벽옥을 내리는 일은 수천만에 이르렀으나, 그는 물러가자 고향의 정자에 모든 선물을 놓고 편지와 붉은 구슬로 장식한 구두를 남기고 떠났다. 그 편지에 “여러 해가 지나거든 나를 봉래산에서 찾으라”고 하였다. 시황제는 안기선생을 찾기 위하여 서복과 노생 등 수백명을 보내어 바다로 들여보냈으나 이들은 봉래산에 도착하기 전에 풍파를 만나 귀환하였다. 그리하여 안기선생의 고향 바다가 심여 곳에 사당을 지어 그를 모셨다고 전해진다.

安期先生者、琅琊阜鄉人也、賣藥於東海邊、時人皆言千歲翁。秦始皇東遊、請見、與語三日三夜。賜金璧度數千萬、出於阜鄉亭、皆置去、留書、以赤玉瀉一雙爲報、曰：“後數年、求我於蓬萊山”。始皇即遣使者徐市、盧生等數百人入海、未至蓬萊山、輒逢風波而還。立祠阜鄉亭、海邊十數處雲。41) (《安期先生編》)

(4) 『한서(漢書)』 42)

후한(後漢, 25~220년)의 역사가 반고(班固, 32~92년)는 자신이 지은 『한서(漢書)』 《교사지(郊祀志)》에서 『사기』 《봉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복이 황제를 속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괴오강식부전(劓伍江息夫傳)》에서는 괴통(劓通), 오피(伍被), 강충(江充), 식부궁(息夫躬) 등 진나라 말부터전한 말까지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물들을 다루었고, 『사기』 《회남형산열전》의 서복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i. 《교사지(郊祀志)》

진시황은 초기에 천하를 병합하였는데 신선의 도에 심취하여, 서복과 한종(韓終)에게 많은 동남동녀를 딸려 바다에 보내 신선을 청하고 약을 채취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도망하여 돌아오지 않아 천하의 원망을 샀다. 한편 한흥(漢興), 신원평(新垣平), 제나라 사람 소옹(少翁), 공순경(公孫卿), 란대(欒大) 등은 모두 선인인 황야(黃冶)에게 제를 올려 공물을 바치고 바다에 들어가 신선을 찾아 다행히 약을 구하여 천금을 하사받았다.

秦始皇初并天下、甘心於神僊之道、遣徐福、韓終之屬多齋童男童女入海求神采藥、因逃

41) 劉向(西漢, 저작연도미상), 『列仙傳』, 卷上, 《安期先生》,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lie-xian-zhuan/an-qi-xian-sheng/zh>)

42) 『한서(漢書)』는 『전한서(前漢書)』라고도 불리는 중국 최초의 기전체인 단대사(斷代史)로 24사(二十四史) 중 하나다. 《사기》가 상고시대부터 무제까지의 통사(通史)인 데 비하여 《한서》는 전한(前漢)만을 다룬 단대사(斷代史)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부터 왕망(王莽)의 난(亂)까지 12대(代) 230년 간의 기록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나라 동한시대 사학자였던 유객대가(儒客大家)인 반고(班固)가 편찬하여 20여 년에 걸쳐 창건 초기에는 거의 완성하였고, 후대에 당나라 안사교(顏師古)가 주석을 달았다. 이 중 『한서』 8표는 반고의 여동생인 반소(班昭)가 썼다. 한서는 『사기(史記)』에 이어 중국 고대의 또 하나의 중요 사서로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와 함께 '전사사(前四史)'로 불린다.

不還，天下怨恨。漢興、新垣平、齊人少翁、公孫卿、樂大等、皆以僊人黃冶祭祠事鬼使物入海求神采藥貴幸、賞賜累千金。43) (卷25)

후한(後漢)의 성제(成帝)는 주색을 좋아하는 방탕한 군주였다. 또 귀신 섬기기를 즐겼으며 후사(後嗣)를 잇기 위하여 방사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국고를 탕진하였다. 신하 곡영(谷永)⁴⁴⁾이 서복이 바다로 들어가 구선(求仙)한 《회남형산열전》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성제에게 미신을 믿지 말고 귀신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충고하기 위해서였다.

ii. 《괴오강식부전(蒯伍江息夫傳)》

(회남왕의 모반을 말리려고 오피(伍被)가 간하여 말하기를), “신은 감히 오자서(伍子胥)와 같이 죽음을 감내할 생각으로 말씀드리오니 오왕(吳王)이 오자서의 간언을 들었을 때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 진나라는 성인의 도를 행하지 않고 천하를 농락하였습니다. 유생을 산채로 물어 죽이고, 시와 서를 불태워 성인의 업적을 부정하고 예와 의를 버렸으며 무자비한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연안 지방의 곡식을 강제로 함양 근처 서하(西河)로 옮겼습니다. 그 무렵 남자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도 먹을 양식이 모자랐고 여자들도 길쌈을 해도 몸을 가릴 옷을 만들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몽염(蒙恬)을 보내어 수 천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자주 일으켜 늘 수십만의 병력이 장수와 줄게 할 것 없이 야영을 해야 했고, 수많은 전사자들의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천리에 핏물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힘을 소진해 버린 백성들은 열 집에 다섯 집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서복에게 진귀한 보물을 많이 주고 삼천 명의 동남동녀와 오곡의 종자와 백가지 기술자들을 팔려 바다로 보내 신선이 되는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서복은 평원광택을 찾아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비통에 빠진 백성들은 열 집에 여섯 집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臣不敢避子胥之誅、願大王無爲吳王之聽。往者秦爲無道、殘賊天下。殺術士、燔詩書、滅聖跡、棄禮義、任刑法、轉海濱之粟、致于西河。當是之時、男子疾耕不足於糧餽、女子紡績不足於蓋形。遣蒙恬築長城、東西數千里。暴兵露師、常數十萬、死者不可勝數、僵尸滿野、流血千里。於是百姓力屈、欲爲亂者十室而五。又使徐福入海求仙藥、多齎珍寶、童男女三千人、五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大澤、止王不來。於是百姓悲痛愁思、欲爲亂者十室而六。45) (卷45)

《괴오강식부전》에도 곡영(谷永)이 성제(成帝)에게 간하기 위하여 인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곡영이 “천지의 성질은 밝아 신괴(神怪)를 미혹시킬 수 없고 만물의 정을 알면 비류(非類)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오경(五經)의 법을 존중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성제도 곡영의 간곡한 진언을 받아들였다.⁴⁶⁾

43) 班固, 『漢書』《郊祀志》, 中華書局(1962), p.1260.

44) 동한 成帝제위 시에 北地太守를 역임한 관원이다.

45) 班固, 신경란역(2021), 『한서열전』, (주)민음사1권, p.573.

46)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30.

진시황 때 유행한 불사설화(不死說話)를 만든 인물들은 주로 사람들에 의해 방사라 불렸던 신선가(神仙家)들이었다. 서복을 비롯하여 한중(韓終), 후공(侯公), 석생(石生) 및 노생(盧生) 등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방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발해 중에 봉래, 방장 및 영주의 세 신산이 있고, 그곳에 신선이 산다는 이야기와 그들 신선 중에는 유명한 이들로 선문(羨門), 고서(高誓) 및 안기생(安期生) 등이 있으며 그들은 모두 불사약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⁴⁷⁾

『사기』와 『한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두 편의 사서이며, 특히 사마천과 반고 두 사학자의 글 쓰는 방법은 후세의 학자나 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기』가 편찬된 시기는 서복 동도로부터 불과 100여년 정도 떨어져 있어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와 『한서』의 기록은 서복 동도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⁴⁸⁾

제2절 삼국양진남북조시대(三國兩晉南北朝時代)

『사기』와 『한서』에 이어 서진(西晉)의 진수(陳壽, 233~297년)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는 편찬시기가 『후한서(後漢書)』보다 앞서기 때문에 『후한서』는 『삼국지』의 관점을 실제로 차용하고 있다. 삼국양진남북조시대의 기록으로는 『삼국지(三國志)』, 『임해수도지(臨海水土志)』, 『후한서(後漢書)』,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 『열선전(列仙傳)』 및 『신선전(神仙傳)』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복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 『삼국지(三國志)』⁴⁹⁾

(漢成帝因爲沒有子嗣、日漸信奉鬼神、寵信方士、以致燕、齊方士成群結隊來到都城。谷永引用徐福入海求仙的故事是爲了規勸成帝不要迷信鬼神、放棄對鬼神的幻想、要“明于天地之性、不可惑以神怪；知万物之情、不可以非類”；應行“仁義之正道”、應“尊五經之法言”這樣才能治理好國家。最終成帝也採納了谷永的進諫。)

47) 周永河(2002), 「徐福, 事實과 傳說의 歷史」, 『제주도연구』, 21, p.325.

48)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31.

(《史記》和《漢書》是中國歷史上最具有權威性的兩部史書、尤其司馬遷和班固兩位史學家的寫作態度又被歷代學者、文人所認同。加上《史記》的成書年代與徐福東渡相隔僅百年左右、可信度還是相當高的。所以《史記》和《漢書》的記載成了證明徐福東渡確有其事的最有力證據。)

49) 중국(中國) 진(晉)나라 서진(西晉)의 학자(學者) 진수(陳壽)가 편찬(編纂)한 중국(中國) 고대(古代)의 삼국(三國) 위(魏)·촉한(蜀漢)·오(吳)나라의 역사책(歷史冊)이다.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지은 것을 송(宋)나라의 배송지가 주해(註解)한 것으로서 위지 30권, 촉지 15권, 오지 20권으로, 진

서진(西晉, 265~317년)의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 권37 《오서·오주전(吳書·吳主傳)》의 기록에 이주(夷洲)와 단주(澶洲 혹은 亶洲)를 언급한 내용이 실려 있다. 오나라 장수 위온(衛溫)은 실제로 이주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데려왔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존재한다.

황룡 2년(230년) 봄 정월 장군 위온(衛溫)과 제갈직(諸葛直)에게 무장한 사병 1만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이주와 단주를 구하도록 하였다. 단주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시황제가 어린 소년소녀 수천 명을 팔려 서복을 보내 바다로 들어가 봉래의 신선과 선약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 수만 호가 되었고,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늘 회계(會稽)로 와서 천을 사가기도 했으며 회계 동야현(東冶縣)에 사는 자가 바닷길을 가다가 태풍을 만나 단주까지 표류해 가기도 하였다. 그 곳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위온 등은) 끝내 이를 수 없었다. 다만 이주의 수천 명을 데리고 돌아왔을 뿐이다.

黃龍二年春正月、遣將軍衛溫、諸葛直將甲士萬人浮海求夷洲及亶洲。亶洲在海中、長老傳言秦始皇帝遣方士徐福將童男童女數千人入海、求蓬萊神山及仙藥、止此洲不還。世相承有數萬家、其上人民、時有至會稽貨布、會稽東冶縣人海行、亦有遭風流移至亶洲者。所在絕遠、卒不可得至、但得夷洲數千人還。50) (卷37)

드디어 진수는 『삼국지』에서 서복이 도착하여 왕이 된 곳, 즉 평원광택(平原廣澤)은 단주(澶洲)라고 단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주(洲)는 섬의 의미이므로 단(澶)이라는 섬인데, 거기가 삼신산 중 한 곳인 봉래를 일컫는 것인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옛 회계군(會稽郡,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를 중심으로 하는 옛 월나라 땅의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어 자주 사람들이 왕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온과 제갈직은 이주의 주민 수 천명을 데리고 귀국했지만, 단주는 너무 멀어 다다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듬해 봄 이들 두 장수는 ‘어명을 어겨 공을 세우지 못한 죄(違詔無功)’로 주살되었다. 두 사람은 단주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주에서 주민 수천 명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하였다. 이주는 실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주는 실제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오서(吳書)』 《전중전(全琮傳)》을 보면, 손권(孫權)은 이주와 주애(珠崖, 海南島) 중 일부를 할애해 점령하고 싶어 전중(全琮)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전중은 “만리나 떨어진 바다 저편에 군사와 백성이 왕래하는 중에 질병이 생기기 쉬워 불안합니다.” 고 간하였으나 손권은 듣지 않았다. 출정했던 원정군들이 1년 만에 귀환했는

부(全部) 65권으로 되어 있다.

50) 陳壽(233~297), 『三國志』, 卷37, 《吳書·吳主傳》, 中華書局(1982), p.1136.

데, 장졸 중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80~90%에 달했기 때문에 손권은 전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했다고 한다.⁵¹⁾

한무제(漢武帝)는 해남도(海南島)에 주애군(珠崖郡) 및 담이군(儋耳郡)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남도에는 뤼주반도(雷州半島)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남도가 단주는 아닐 듯하고 또 다른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는 ‘회계 바다 건너편에 동제인이 살고 있는데, 20 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마다 입조하여 알현한다.’라는 기록도 있다.⁵²⁾

(2)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⁵³⁾

오(吳)나라 말년에 단양태수(丹陽太守)를 역임한 심영(沈瑩, ?~280년)은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라는 지리지를 저술했는데, 여기에 이주(夷洲)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당대(唐代) 『후한서』의 주석이나 송대(宋代) 『태평어람(太平御覽), 권780 1책』⁵⁴⁾에도 인용되어 남아있다.

이주(夷州)는 임해(臨海)바다에서 동남쪽으로 본군에서 2,000리 떨어져 있다. 눈도 안 오고 서리도 안 내리고 초목은 시들지 않는다. 사방이 산이고, 산사람들이 산다. 산꼭대기에 월왕(越王)의 과녁(射的)이라는 흰 돌이 있다. 이곳에 사는 오랑캐들은 각자 왕이라 칭하고 백성은 각기 다른 곳에 산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에 귀를 뚫었으나, 여자는 귀를 뚫지 아니하였다. 집을 짓고 가시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로 삼는다.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을 생산하고 어류와 기타 육류도 수확한다. 외삼촌과 고모가

51) 陳壽(233~297), 『三國志』, 《吳書·全琮傳》, doc in 豆丁 DB.

(<https://www.docin.com/p-2464811124.html>)

(權欲遣偏師取夷州及朱崖、皆以諮遜、遜上疏曰：“臣愚以爲四海未定、當須民力、以濟時務。今兵興歷年、見衆損減、陛下憂勞聖慮、忘寢與食、將遠規夷州、以定大事、臣反覆思惟、未見其利、萬里襲取、風波難測、民易水土、必致疾疫、今驅見衆、經涉不毛、欲益更損、欲利反害。又珠崖絕險、民猶禽獸、得其民不足濟事、無其兵不足虧衆。今江東見衆、自足圖事、但當畜力而後動耳。昔桓王創基、兵不一旅、而開大業。陛下承運、拓定江表。臣聞治亂討逆、須兵爲威、農桑衣食、民之本業、而干戈未戢、民有飢寒。臣愚以爲宜育養士民、寬其租賦、衆克在和、義以勸勇、則河渭可平、九有一統矣。”權遂徵夷州、得不補失。)

52) 班固, 이한우 역(2000), 『한서(漢書)』, 21세기북스, 2권, p.526.

(會稽海外有東鯤人、分爲二十余國、以歲時來獻見。)

53) 사상 최초로 타이완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이다.

54) 李昉(977), 『태평어람(太平御覽), 제780권 1서』,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text.pl?node=399545&if=gb&remap=gb>)

(夷州在臨海東南、去郡二千里。土地无雪霜、草木不死。四面是山、衆山夷所居。頂有越王射的、正白、乃是石也。此夷各号爲王、分畫土地、人民各自別异。人皆髡頭穿耳、女人不穿耳。作室居、种荊爲蕃鄣。土地饒沃、既生五谷、又多魚肉。舅姑子歸男女、臥息共一大床。交會之時、各不相避。能作細布、亦作班文布、刻畫其內、有文章、以爲飾好也。其地亦出銅、鐵、惟用鹿矛以戰鬥耳。磨礪青石、以作矢鏃、刃斧、环貫珠璫。飲食不洁。取生魚肉、雜貯大器中、以鹵之、歷日月乃啖食之、以爲上肴。呼民人爲“弥麟”、如有所召、取大空材、材十餘丈、以著中庭。)

남녀가 되어 함께 누워있다. 교합할 때는 피차 꺼리지 않는다.

夷州在臨海東南、去郡二千里。土地無雪霜、草木不死。四面是山、衆山夷所居。山頂有越王射的、正白、乃是石也。此夷各號爲王、分畫土地、人民各自別異。人皆髡頭穿耳、女人不穿耳。作室居、種荊爲蕃鄣。土地饒沃、旣生五穀、又多魚肉。舅姑子歸、男女臥息共一大牀。交會之時、各不相避。⁵⁵⁾

이 묘사는 분명하게 대만 섬과 그 주민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주가 대만이 라면 더 멀리 있다는 단주는 남쪽의 루손 섬이나 한반도의 제주도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평원광택이 있고 진나라의 손도 닿지 않을 것이지만, 낭야에서 너무 먼 것 같기도 하다. 결국 단주가 어딘지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서북이 단주에 정착했다는 것도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북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적어도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 측 사서에서는 ‘서북이 한반도나 일본으로 들어가 왕이 되었다’는 기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북과 한반도, 그리고 서북과 일본열도의 결합은 이로부터 한참 지나서의 일이다.

(3) 『후한서(後漢書)』⁵⁶⁾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420~589년) 범엽(范曄, 398~445년) 등이 편찬한 『후한서』 《동이열전·왜전(東夷列傳·倭傳)》에는 『삼국지』 《오서·오주전》의 기록을 차용하여 서북이 이주와 단주라는 지방에 정착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나온다. 서북 관련 기록을 《동이열전》이나 《왜전》에 편입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범엽은 막연하게 한반도나 일본열도에 서북이 찾아 정착한 유토피아인 평원광택(平原大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i. 《동이열전·왜전(東夷列傳·倭傳)》

회계(會稽) 바다 건너에는 동제인(東鯢人)들이 사는데 20여 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 이주(夷洲)와 단주(澶洲)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은 방사 서북을 보내 수천

55) 沈瑩(?~280년), 『臨海水土志』, 維基百科 DB. (<https://zh.wikipedia.org/wiki/夷洲>)

56)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 398~445)가 편찬한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로 광무제(光武帝)에서 헌제(獻帝)에 이르는 후한(後漢)의 13대 196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본기(本紀) 10권, 열전(列傳) 80권, 지(志) 30권으로 되어 있다. 광무제(光武帝, 재위 25~57)부터 헌제(獻帝, 재위 189~220)까지 후한(後漢)의 13대(代) 196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명의 소년과 소녀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봉래산의 신선을 찾으려 했으나, 신선을 찾지 못하였다. 서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들 주(夷洲와 澶洲)에 거처하여, 대대로 이어져 몇만 가구나 되었다고 한다. 백성들은 자주 회계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회계 동야현(東冶縣)에 사는 사람이 항해 중에 강풍을 만나 단주로 표류한 사람이 있었다. 단주가 있는 곳은 매우 멀어서 왕래할 방법이 없다.

會稽海外有東鯤人、分爲二十餘國。又有夷洲及澶洲。傳言秦始皇遣方士徐福將童男女數千人入海、求蓬萊神仙不得。徐福畏誅不敢還、遂止此洲、世世相承、有數萬家。人民時至會稽市。會稽東冶縣人有入海行遭風、流移至澶洲者。所在絕遠、不可往來。57) (卷85)

ii. 《이현주(李賢注)》

이주는 임해군(저장성 남부의 영파(寧波), 대주(臺州), 온주(溫州) 지역)의 동남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군으로부터 이천 리 떨어져 있다. 땅에는 서리나 눈이 없고 초목은 시들지 않으며, 섬의 사면이 모두 가파른 산이며, 모든 사람이 대머리에 귀를 뚫었으나, 여자는 귀를 뚫지 아니하였다. 땅이 비옥하고 오곡과 어육(魚肉)이 있다. 개를 키우는데 꼬리가 노루 꼬리처럼 짧다. 외삼촌과 고모가 남녀가 되어 함께 누워있다. 교합할 때 피차 꺼리지 않는다. 구리와 철(銅鐵)은 있으나, 사슴의 뿔을 창으로 삼아 전투를 하며 푸른 숫들을 갈아서 화살촉을 만든다. 또 날 생선을 소금에 절여 옹기에 넣어 한 달여 숙성하여 고급안주로 삼는다고 한다.

夷洲在臨海東南去郡兩千里。土地無霜雪、草木不死。四面是山豁、人皆充髡髮、穿耳、女人不穿耳。土地饒沃、既生五穀又多魚肉。有犬、尾短如麤尾狀。此夷舅姑子婦臥息共一大牀、略不相避。地有銅鐵、唯用鹿格爲矛以戰鬪、摩礪青石以作弓矢。取生魚肉雜貯大瓦器中、以鹽鹵之、歷月所日乃啖、食之以爲上肴也。58)

이쯤에서 이주와 단주가 어디인지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주가 대만 섬이라는 견해에는 중국과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하라다요시토(原田淑人)는 이주는 일본 열도라고 주장하였고, 이키이치로(壹岐一郎)와 모리코이치(森浩一)는 일본의 서남제도(西南諸島)라고 주장하였다. 요약하자면 이주에 대한 논쟁은 대만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단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이견이 크다. 청나라 지리학자 호위(胡渭)는 저서 『우공추지(禹貢錐指)』에서 필리핀의 루손섬, 일본 국적 중국 인류학자인 린후이상(林惠祥)과 일본의 역사학자 시라토리쿠라키치(白鳥庫吉)는 오키나와 섬, 이치무라산지로(市村瓊次郎)는 해남도, 중국의 리청린(李成林)은 미국대륙이라는 주장도 펼쳤다.59) 중국의 양빈취(楊斌却)는

57) 范曄(432~445년), 『後漢書』, 85권, 《東夷列傳·倭傳》, 中華書局(1965), p.2822.

58) 范曄(432~445년), 『後漢書』, 《李賢注》, 維基百科 DB.
(<https://zh.wikipedia.org/wiki/夷洲>)

59)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p.132~133.

상기한 여러 설은 평원광택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주는 일본이라 주장한다.⁶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은 오왕(吳王) 손권(孫權)이 위온(衛溫)과 제갈직(諸葛直)을 보내 구하려 했던 단주는 제주도라고 주장한 것이다.⁶¹⁾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흥한 뒤에도 옛 연나라와 제나라 출신의 방사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배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한고조 유방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각지의 토속 신들을 잘 모시도록 하여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였다. 한나라 시대에 유교는 아직 수많은 학문이나 종교 중 하나일 뿐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토착의 신들을 모시고 있었다.

서복 등의 행방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출발했다가 풍파를 만나 돌아왔다’라고 하고, ‘평원광택을 얻어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도 하였다. 또한 ‘회계의 동쪽 단주(亶洲)에 정착했다’라고도 하며, ‘봉래(蓬萊)에 당도하여 선인이 되어 승천했다’라고도 전해진다. 진한위진(秦漢魏晉)시대에는 신선 사상과 도교에 대한 많은 문헌이 저술되었고, 이 사상들이 태평도(太平道)나 오두미도(五斗米道) 등으로 발전하여 도교의 경전으로 완성된다. 이들 문헌에서도 서복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신선전(神仙傳)』

동진(東晉, 317~420년)의 도교학자(道教學者)인 갈홍(葛洪)이 지었다고 전하는 지

(大多數學者側重于把夷洲定位于中國台灣、但也有不同的看法。日本的原田淑人于1973年提出夷洲日本列島說1989年壹岐一郎在其著作《徐福集團東渡古代日本》一書中提出夷洲是日本西南諸島說;森浩一也于1994年提出了同樣的看法。概括起來、關於夷洲的爭論集中在中國台灣和日本。至于亶洲的具体位置,學者們的分歧則比較大、胡渭在《禹貢錐指》中認為賣洲是菲律賓的呂宋島;林惠祥在《台灣番族原始文化》中認為賣洲是琉球群島之一;日本白鳥庫吉也同意林惠祥先生的觀點;日本市村次郎博士在《關於唐代以前之福建及台灣》中、提出賣洲是儋耳(今海南島)、漢代置儋耳郡、后廢置、三國時吳主孫權重置儋耳郡);李成林則在《北京晚報》上發表文章、說賣洲是美洲大陸、提出徐福第二次東渡到了美洲。)

60)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p.132~133.

楊斌(1989), 『徐福東渡之迷』, 吉林文史出版社, p.30.

(却認為上述各種說法均不符合“平原廣澤”之說、所以楊先生通過論證得出結論:亶洲乃日本之地。)

61) 蓮沼啓介(2005), 「異稱日本伝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第五四卷第四号, p.334.

(濟州島は亡命者となった徐福にとって亡命先にふさわしい目標の島であり、新天地を開拓するのに理想の島であった模様である。あるいは徐福はこの島こそ本当の意樂であると信じていたのかも知れない。)

괴소설집인 『신선전』⁶²⁾ 《심희전(沈羲傳)》에는 서복이 진시황의 명을 받아 신선인 안기선생을 찾는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의 내용과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심희(沈羲)를 데리러 온 천신의 사자로 서복이 등장한다. 송나라 태종연간 이방(李昉)이 쓴 『태평광기(太平廣記)』⁶³⁾ 《신선 심희편, 권5》에도 《심희전》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심희(沈羲)는 백성에게 공덕이 있고 마음에서 도를 잊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그 행동에 잘못이 없었다. 정해진 목숨이 길지 않아서 장차 수명이 다하려 한다. 지금 황제와 노자(老子)가 신선의 관리를 보내어 하늘에서 맞이하러 왔다. … 맞이하러 온 사자 중 한 사람은 서복인데, 백호 수레에 타고 계신 분이다. …

… 羲有功於民、心不忘道。從生以來、履行無過。受命不長、壽將盡矣。黃老命遣仙官下來迎之。… 送迎使者徐福、白虎車是也。…⁶⁴⁾ (《沈羲傳編》)

심희는 촉나라에서 방술을 배워 농민들을 구제한 공이 크므로 천신은 세 명의 선관(仙官)을 보내 그를 맞이하였다. 그는 승천해서 노자(老子)를 알현하고 불사의 약을 먹은 후 선인이 되고 병을 고치는 기술을 배워 지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승천한 후 이미 400여 년이 지난 후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서복은 완전히 신선으로 취급되어 천계의 선관으로 활동한다.

제3절 수당오대시대(隨唐五代時代)

수당시대는 중국의 분열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이 되고 대외교류에도 중점을 두었던 시기로 수와 당은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 등의 파견을 통하여 한반도 및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복에 관한 전설이 문학작품의 단골 소재가 되고 서로 다른 관점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대의 많은 서복 관련 기록 중에서 『괄지지(括地志)』, 『북제서(北齊書)』, 이백(李白)와 백거이(白居易)의 작품, 「송종형사신라(送從兄使新羅)」, 『구당서·본기(舊唐書·本紀)』와 『의초육첩(義楚

62) 동진시대의 도교학자 꺼홍(葛洪)이 쓴 고대 중국 괴소설집(志怪小說集)으로 모두 10권이다. 중국 고대설화에 나오는 92명의 선인 사연이 수록돼 있는데, 이 중 많은 인물은 도사가 아니지만 꺼홍에 의해 청입(淸入)되어 있다. 신선전은 상상이 풍부하고 서사가 생동감 넘치기로 유명하다.
 63) 중국 고대 문헌실사소설의 첫 번째 총집이다. 송나라 사람을 위해 쓴 대서이다. 전서 500권과 목차 10권으로 한대부터 송대초까지 기록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한 유사(類書)에 속한다.
 64) 葛洪(東晉, 저작연도미상), 『神仙傳』, 卷八, 《沈羲傳》, 東里書齋 DB. (<https://www.donglishuzhai.net/chapter/2250.html>)

六帖』 등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괄지지(括地志)』

당태종의 넷째 아들인 이태(李泰, 620~653년)는 지리학자로 『괄지지』라는 역사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여기에도 단주와 서복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단주는 동해 가운데에 있어, 진시황이 서복에게 동남동녀들을 딸려 바다로 들어가서 신선을 청해오도록 하였는데, 거기에 멈추어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 수만 호가 되었고,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늘 회계로 와서 교역을 한다. 오나라의 《외국도(外國圖)》에 이르기를, ‘단주는 낭야에서 만리나 떨어져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亶洲在東海中、秦始皇使徐福將童男女入海求僊人、止住此洲、共數萬家、至今洲上人有至會稽市易者。吳人《外國圖》云：‘亶洲去瑯琊萬里’。65)(《蠻夷,東夷編》 권4)

이 기록은 『한서』 《지리지》와 『삼국지』 《오서·오주전》의 기록을 차용한 듯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서복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자. 도교나 민간에서는 ‘봉래로 간 선인’으로 추앙을 받았으나, 유교나 사대부의 세계에서는 ‘시황제를 현혹하여 백성을 괴롭힌 사기꾼’이라는 평가가 뿌리 깊어, 사서나 시문에서도 그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대(唐代)에는 서복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수나라가 불교를 중시하였는데 비하여 당나라는 최고 통치자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후손을 자칭하며 도교를 존숭(尊崇)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은 현장(玄奘)을 존중하기도 하였고, 제위를 찬탈한 무측천(武則天)도 역시 불교에 크게 의존하였다. 현종 이후에는 도교와 유교를 함께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동한 말기에 발흥한 도교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에 크게 발전하였는데, 후한 말에 장릉(張陵)이 창시한 도교의 교단인 오두미도(五斗米道)⁶⁶⁾는 장릉의 손자인 장로(張魯)가 조조(曹操)에게 항복한 뒤에도 교단 조직을 강화하고 경전을 편찬해 유교, 불교와 함께 ‘삼교(三教)’의 하나로 역대 왕조에 존숭되기에 이른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각국이

65) 李泰(642), 『括地志』, 卷四, 《蠻夷,東夷編》, 維基文庫 DB.
(<https://zh.wikisource.org/wiki/括地志輯校>)

66)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에 중국의 사천성 지역에서 퍼진 종교이다. 창시자라고 하는 장릉(張陵)이 신자에게 가입 조건으로 쌀 5두를 내게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들 자신은 신출정일명위지도(新出正一明威之道)라고 한 것 같다. 장릉의 손자인 장로(張魯)가 그 교범을 대성하고, 주교나 사제에 해당하는 치두(治頭)나 제주(祭酒) 등이 교단조직을 굳혀서 독립적인 종교왕국을 수립하였으나, 215년, 조조의 군문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교단은 천사도(天師道)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소위 도교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발전했다.

전화에 휘말리자 이 시기의 24사(史)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위서(魏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주서(周書)』 등에서 서복 기록은 사라진다.⁶⁷⁾ 다만 당대(唐代)의 사학자인 이백약(李百藥, 564~648년)이 편찬한 북제(北齊) 일대(一代)의 역사책(歷史冊)인 『북제서(北齊書, 636)』 권45 《문원(文苑)》에 서복에 관한 짧은 기록이 전할 뿐이다.

(2) 『북제서(北齊書)』

… 대추야자로 말할 것 같으면 구하는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고, 배우는 것은 그림자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연군, 제후, 진황 및 한제는 방사들을 믿고 진인을 만나기를 바랐으나, 서복은 돌아오지 않고, 관대(欒大)는 빈손으로 돌아왔네. 승상이라 하여 손뼉을 치며 귀신을 제사하여 신을 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海棗之談、求之如係風、學之如捕影。而燕君、齊后、秦皇、漢帝、信彼方士、冀遇其眞、徐福去而不歸、欒大往而無獲。猶謂升遐倒影、抵掌可期；祭鬼求神、庶或不死。⁶⁸⁾ (《文苑》, 卷45)

(3) 이백(李白)과 백거이(白居易)의 작품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시인 이백(李白, 701~762년)은 궁중 문인으로 활약하였다. 그 역시 도교와 신선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적선인(謫仙人)’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봉래를 찾아 불사약을 구했던 진시황의 허무한 죽음을 「고풍(古風) 진왕소육합(秦王掃六合)」이라는 시로 한탄하였다.

i. 「고풍(古風) 진왕소육합(秦王掃六合)」

… 여전히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으니 아득하다, 마음만 애처롭게 만든다.
연노로 바다고기 쏘았으나, 긴 고래는 산처럼 우람하다.
이마와 코는 오악과 같고, 물결은 구름과 우리를 토해 낸다.
수염은 청천을 가리는데, 봉래산은 어디에 있는가?
진나라의 동녀를 태운 서불은, 배를 타고 언제나 돌아올까?
여산 자락의 깊은 흙을 보니, 금관에 담긴 것은 (진시황의) 차가운 유골뿐이구나.

67)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33.

(所以與前一時期正史中都載有福福不同、在記象這一時期歷史的二十四之『宋書』、『南齊書』、『梁書』、『陳書』、『魏書』、『南史』、『北史』、『周書』記載中都沒有發現徐福的蹤迹。)

68) 李百藥(636), 『北齊書』, 卷45, 《文苑》, 中華書局(1972), p.611.

… 尙采不死藥、茫然使心哀。
 連弩射海魚、長鯨正崔嵬。
 額鼻象五嶽、揚波噴云雷。
 髯鬣蔽青天、何由睹蓬萊。
 徐市載秦女、樓船幾時回。
 但見三泉下、金棺葬寒灰。 69)

‘서복은 배에 진나라 여자들을 싣고 봉래에 불사의 약을 청하였으나, 배는 돌아오지 못하였고 진시황은 서거하였다’는 『사기』에 쓰인 대로 노래하고 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대체적으로 서복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다.

당나라 후기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라는 풍유시 속에서 서복을 노래한다. 역시 서복은 사기꾼으로 취급되며 봉래를 찾거나 장생불사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

ii. 「해만만(海漫漫) 계구선야(戒求仙也)」

바다는 끝없이 넓고 아득하며, 바닥도 없고 끝도 없다네.
 구름과 연기처럼 깊은 곳에서 파도가 일고, 사람들이 그곳에 삼신산이 있다하네,
 산 위에는 불사약이 나오고, 그것을 먹으면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된다하네.
 진시황과 한 무제는 이 말을 믿고, 방사들은 매년 약초를 캐러 갔다네,
 봉래는 자고로 이름뿐이고, 안개와 파도가 아득해 찾을 길이 없다네. …
 바다는 끝없이 넓고 바람도 세찬데, 눈을 비벼 찾아도 봉래는 보이지 않네.
 봉래를 보지 못하니 감히 돌아갈 수 없어, 동남동녀들은 배속에서 늙고 있네.
 서복과 문성은 거짓말만 하고, 상원선녀와 태일(太一)에게 빌어도 헛것이네.
 보라, 진시황과 한 무제 무덤에는 결국 슬픈 바람이 잡초를 쓸고 있을 뿐이네.
 현원성조의 오천 자 가르침에는, 선약이나 선인의 이야기도 없으며,
 대낮에 승천하였다는 말도 없지 않은가?

海漫漫、直下無底旁無邊。

雲濤煙浪最深處、人傳中有三神山。
 山上多生不死藥、服之羽化爲天仙。
 秦皇漢武信此語、方士年年采藥去。
 蓬萊今古但聞名、煙水茫茫無覓處。…
 海漫漫、風浩浩、眼穿不見蓬萊島。

不見蓬萊不敢歸、童男髻女舟中老。
 徐福文成多誑誕、上元太一虛祈禱。
 君看、驪山頂上茂陵頭、畢竟悲風吹蔓草。
 何況、玄元聖祖五千言、不言藥不言仙、不言白日升青天。 70)

69) 李白(盛唐, 연도 미상), 『古風五十九首』, 其三, 《古風·秦王掃六合》, 古詩文東網 DB.
 (https://so.gushiwen.cn/mingju/juv_59891a8c0e64.aspx)

70) 白居易(盛唐, 연도 미상), 『新樂府, 五十首』, 其三, 《海漫漫—戒求仙也》, 維基文庫 DB.

정사 기록에서 뿐 아니라 당나라 문인, 학자들이 서복을 언급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때부터 서복동도가 문학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당나라 문인들이 작품에서 서복을 소재로 쓴 것은 ‘동도봉래(東渡蓬萊)’와 ‘구선문약(求仙問藥)’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⁷¹⁾

(4) 「송종형사신라(送從兄使新羅)」

당나라의 시인 고향(顧況, 727~815년)은 「송종형사신라(送從兄使新羅)」라는 시에서 서복의 한반도 정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시는 고향의 종형(從兄)인 고음(顧愔)이 귀숭경(歸崇敬)⁷²⁾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신라국(新羅國)에 가서 경덕왕(景德王)의 죽음을 조문하였는데, 그를 전송하며 일행이 신라국으로 가는 도중에 서복이 맞이하여 즐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시구를 읊고 있다.

… 누선은 비습전(非習戰)이니, 말을 달리는 것은 가수(嘉手)다.
황제녀가 돌을 날리자, 상어인간(鮫人)⁷³⁾은 눈물을 팔았다.
관녕(管寧)⁷⁴⁾은 비록 짝이 없으나, 서복이 초청하였다.
독도 하늘이 푸르고, 외로운 노을이 질푸르다. …

… 樓船非習戰、驄馬是嘉招。帝女飛銜石、鮫人賣淚綃、
管寧雖不偶、徐市尙相邀。獨島緣空翠、孤霞上沉廖。 …

저자가 서복동도를 신라의 독도(獨島)와 연결한 것은 당시 당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복이 한반도에 정착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와 비슷하게 조선의 적지 않은 문인들이 봉래를 한반도에 있는 어느 곳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고향은 서복이 신선이 되어 천신의 사자로 활동한다는 동진의 도교학자인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을 인용한 듯한데, 이 시기에 서복의 한반도 정착 가능성을 언급

(<https://zh.wikisource.org/zh-han/海漫漫－戒求仙也>)

71)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p.135~136.

(除了正史、唐代文人、學者提及徐福的頻率也逐漸升高、徐福東渡開始作為文學作品的題材被廣泛應用。概括起來、唐代文人寫徐福主要圍繞兩點:“東渡蓬萊”和“求仙問藥”。)

72) 귀숭경(歸崇敬)은 당나라 소주(蘇州)사람으로 신라사(新羅使), 병부상서 등을 역임한 관리이다.

73) 전설에서 남해에 산다는 물고기 모양의 사람이다. 울면 눈물이 구슬로 변한다고 한다.

74) 삼국시대(三國時代)때 관녕(管寧)과 화흠(華歆)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관녕이 화흠의 사람됨을 멸시하여 자리를 갈라 따로 앉았다는 고사(故事) 속의 인물이다.

한 점이 이채롭다.

(5) 『구당서(舊唐書)』 《본기(本紀)》

후진(後晉)의 장소원(張昭遠)과 가위(賈緯) 등이 편찬한 『구당서』에는 당태종이 진시황과 한 무제가 방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빗대어 신선이나 영약을 구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짓이며, 서복의 동도는 진나라의 학대를 피하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 십이월 임오, 임금이 신하에게 이르시기를, “신선에 관한 것은 본디 허망한 설로, 실은 없고 허명이 있을 뿐이다.” 진시황은 신선술을 각별히 애호하여 마침내 방술사에 의해 사기를 당하여 동남동녀 수천 명을 서복에게 수행시켜 바다에 나가 선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진나라의 학대를 두려워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진시황은 바다 쪽에 머물면서 언제까지나 이들을 기다리다가 수도로 돌아오는 길에 사구에 이르러 죽었다. 한 무제도 선약을 구하려고 자신의 딸을 도술인에게 시집보냈으나, 그 일이 효험이 없자 사위를 주륙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신선술이란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 十二月壬午、上謂侍臣曰：“神仙事本虛妄、空有其名。秦始皇非分愛好、遂爲方士所詐、乃遣童男女數千人隨徐福入海求仙藥、方士避秦苛虐、因留不歸。始皇猶海側踟躕以待之、還至沙丘而死。漢武帝爲求仙、乃將女嫁道術人、事既無驗、便行誅戮。據此二事、神仙不煩妄求也。…75) (《太宗上》卷2)

서복이 한반도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서복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고 몇몇 전승에 단편적으로만 보일 뿐이다. 당이 멸망한 이후 중국은 전쟁이 빈번한 오대십국시대에 들어선다. 후당(後唐), 후량(後梁), 오월국(吳越國) 등은 전화 속에서도 한반도와 일본 등과 빈번한 교역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사인 구오대사(舊五代史)나 신오대사(新五代史)의 어디에도 서복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처음으로 서복과 일본이 연결이 나타난 것은 당나라가 멸망한 후 북송(北宋, 960~1172년) 시기인 973년에 간행된 의초(義楚)의 『의초육첩(義楚六帖)』⁷⁶⁾부터이다. 서복이 남양에서 진시황을 만난 지 1,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이다. 서복의 이

75) 劉昫(945), 『舊唐書·本紀』, 卷二, 《太宗上》, 中華書局(1975), p.33.

76) 불학사전으로 《석씨6첩(釋氏六帖)》, 일명 《석씨찬요6첩(釋氏纂要六帖)》 또는 《의초6첩》이라고 불리며 계24권, 70여만 자이다. 백거이(白居易)의 《육첩(六帖)》을 본떠 대장경 울론을 널리 취하고, 불교 전장제도(典章制度)·구례전설(舊例傳說)·인사장고(人事章故) 분부를 별문(分門)으로 하여 대강을 총괄하여 50대부를 두었으며, 하분계(下分系)는 440문으로 하였다.

름은 사서와 유교의 사대부 사이에서는 ‘시황제를 현혹하여 백성을 괴롭힌 사기꾼’으로, 도교와 민간 신앙에서는 ‘봉래산에 이르러 불사의 약을 먹고 승천한 선인’으로 전해졌다. 서복에 관한 사서 등의 기록은 발해를 건너 한반도나 일본에도 전해졌을 것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사서에는 서복이 이들 땅에 도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럼 각지에 전해지는 서복 전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사(安史)의 난(亂)’이 발발한지 150여 년 만인 서기 907년, 연이은 반란으로 쇠약해진 당나라는 후량(後梁, 907~923년)의 주전충(朱全忠, 852~912년)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멸망하였다. 당대 이후 전란이 빈발하던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가 되었으나 후량, 후당 및 남방의 오월국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와의 교류는 빈번하였다. 그리고 960년 성립된 송나라가 979년 천하를 재통일할 때까지는 난세가 계속되었다. 이 무렵 『의초육첩(義楚六帖)』이라는 불교사전이 편찬되었는데, 저자 의초(義楚)는 하남(河南省安陽市) 사람으로 중국 오대(五代) 때 후주(後周, 951~960년)의 고승이다. 927년 정월 일본 승려 칸호(寬輔)가 흥복사 승려 관건(寬建)의 종승으로 오대산의 불교 사찰들을 보기 위해 도해를 주청하여 허가를 받고 중국 상선을 타고 중국으로 건너왔다. 의초(義楚)는 제주 개원사 승려로 칸호와 교제가 두터웠는데, 이를 통하여 서복동도일본(徐福東渡日本)에 대한 이야기가 의초에게 전해지게 된다. 의초가 『의초육첩』을 지을 때 일본의 역사와 풍토를 기록하였는데, 그 자료도 대부분 칸호의 구술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서복이 일본열도에 정착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일본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⁷⁷⁾ 『의초육첩』은 백거이(白居易)의 유서(類書)인 『백씨6첩(白氏六帖)』을 본뜬 것으로 후진(後晉)의 개운(開運) 2년(945년)에 시작하여 후주(後周)의 현덕(玄德) 원년(954년)에 완성되었다. 후주의 천자 세종은 폐불령(廢佛令)을 내려 비대한 불교 사찰의 권익을 억압했는데, 의초가 편찬하여 올린 이책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의초에게 자의가사(紫衣袈裟)를 하사하고 명교대사(明敎大師)라는 법호를 내렸다. 959년 세종은 승하하였는데 세자가 너무 어려서 군(軍)이 복종하지 않자 장군 조광윤(趙匡胤, 927~976년)에게 선양하여

77) 張良群(2007), 「東亞의徐福研究」, 『中外徐福研究』, p.13.

(該書作者義楚,河南人、中國五代時后周(951~960)高僧。927年正月、日本僧人寬輔作爲興福寺僧人寬建的從僧、爲巡視五台山奏請渡海、獲得許可,乘中國商船來到中國。寬輔在京傳播瑜伽大教、獲得“弘順大師”封号。義楚時爲濟州開元寺和尚、與寬輔交往甚厚、有關徐福東渡之材料即爲寬輔向他提供。義楚著《義楚六帖》時,特辟《城郭·日本》一章、以記載日本的歷史、風土人情、其資料亦大多出自寬輔的口述傳聞。可見,徐福東渡止住日本列島之事、早在一千多年前已在日本廣爲流傳。因而寬輔的口述應是可信的。)

송나라가 건국되었다. 송나라에서는 목판 인쇄에 의한 출판이 활발해져, 개보(開寶) 6년(973)에 『의초육첩』도 간본화 되었다. 이 간본판(刊本版)에는 새로운 기사가 추가되어 있어 서북의 이야기도 적혀 있다.

(6) 『의초육첩(義楚六帖)』

일본국, 또 다른 이름은 왜국으로 동해 가운데에 있다. 진나라 때 서북은 오백의 동남, 오백의 동녀를 거느리고 이 나라에 머물렀다. 지금 (왜국) 사람이나 물건은 (당의) 장안과 같다. 또 현덕 5년(958년) 일본 유가대교(傳瑜伽大教) 홍순대사(弘順大師)로 자의(紫衣)를 하사받은 칸호(寬輔)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도성(평안경) 남쪽 500여리에 금봉산(金峯山)이 있고, 정상에 금강장왕보살(金剛藏王菩薩)이 있어, 영이(靈異)는 (일본)제일이다. 이 산에는 노송나무, 명화와 무른 풀이 있고 크고 작은 절이 수백 곳이 있으며, 수행중인 승려들이 있다. 아직 일찍이 여자가 오른 적이 없고, 남자가 오르려면 석 달 동안 술이나 육육과 색육을 끊어야 하는데, 빌면 이루어 지지 않을 소원이 없다. (금강장왕)보살은 미륵의 화신으로 오대산의 문수보살과 같다.”

“또 (도성의) 동북 천 여리에 산이 있어, 이름을 후지(富士)라고 한다. 다른 이름은 봉래이다. 그 산은 삼면이 바다이고 한 가지는 위로 솟아 있고 산꼭대기에는 불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낮에는 각종 보물이 산에서 흘러내려 밤이 되면 오히려 올라간다. 항상 음악이 들린다. 서북은 이 땅에 와서 머물렀는데 이 산을 봉래라고 불렀다. 지금 그 자손은 모두 진씨(秦氏)라고 한다. 그 나라는 유사 이래로 타국에 침탈당하는 일이 없고, 용신이 수호하고 있다. 그 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죄인은 귀양 보낼 뿐이다. 다른 영지나 명산은 일일이 이를 기록할 것까지도 없다.”

日本國、亦名倭國。東海中。秦時、徐福將五百童男五百童女止此國也。今人物一如長安。又顯德五年歲在戊午、有日本國傳瑜伽大教弘順大師賜紫寬輔又云、本國都城南五百餘里有金峯山、頂上有金剛藏王菩薩、第一靈異。山有松檜·名花·軟草、大小寺數百、節行高道者居之。不曾有女人得上至。今男子欲上、三月斷酒肉欲色、所求皆遂云。菩薩是彌勒化身、如五臺文殊。

又東北千餘里有山、名富士。亦名蓬萊。其山峻三面是海、一朵上聳、頂有火煙。日中上有諸寶流下、夜即卻上。常聞音樂。徐福止此謂蓬萊至。今子孫皆曰秦氏。彼國、古今無侵奪者、龍神報護。法不殺人、爲過者配在犯人島。其他靈境名山、不及一一記之。⁷⁸⁾
(《國城州市部, 卷21》)

드디어 서북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었다. 게다가 봉래는 후지산(富士山)이며, 서북의 자손은 진씨(秦氏)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초는 최초의 『의초육첩』을 편찬하여 올린 후 현덕 5년(958)에 일본의 고승 칸호(寬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고 있다.

78)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220.

제4절 송원시대(宋元時代)

서복 동도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변화는 주로 송대의 사적(私的) 저술에서 나타나는데, 구양수(歐陽修, 1007~1072년)의 『일본도가(日本刀歌)』에서 언급된 이른바 일서백편설(逸書百篇說)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 논란은 일본에서뿐 아니라 조선 유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송원시대에는 『태평어람(太平御覽)』, 『자치통감(資治通鑑)』, 『태평광기(太平廣記)』, 「일본도가(日本刀歌)」와 「원달공일본패배가(元韃攻日本敗北歌)」 등에서 서복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다.

(1) 『태평어람(太平御覽)』

《외국기》에 이르기를 주상이 바다를 떠들다 어떤 섬에 이르렀다. 섬에 오르자 모시가 많았고 3천호가 넘는 집이 있었다. 서복이 데려온 동남동녀의 후예라고 하는데 풍속은 오나라와 비슷했다.

《外國記》曰：周詳泛海，落紇嶼。上多紇，有三千餘家，云是徐福僮男之后，風俗似吳人。⁷⁹⁾ (《四夷部三·紇嶼人·外國記》，卷782)

(2) 『자치통감(資治通鑑)』⁸⁰⁾

시황 28년(임오, B.C. 219), 이에 시황제는 드디어 동쪽으로 바다에 가서 유람하고 명산대천과 여덟 신에게 예로 제사를 지냈다. 시황제는 남쪽으로 가서 낭야산에 올라가서 크게 즐기면서 석 달을 머물렀고, 낭야대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덕을 칭송하게 하였고, 자기의 뜻대로 되었음을 밝혔다. 처음에 연나라 사람 송무기(宋毋忌)와 선문자고(羨門子高)의 무리들이 선도와 형해소화(形解銷化)⁸¹⁾의 술책이 있다고 하였는데, 연과 제의 어리석고 괴이한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이를 전하고 익혔다. 제나라의 위왕과 선왕, 연나라의 소왕도 모두 그들의 말을 믿고 사람들을 시켜 바다에 나가서 봉래, 방장, 영주를 찾게 하였는데, 이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걱정거리가 도착할 때쯤 되면 바람이 일어서 배를 끌어간다는 것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도착하였더니 여러 선인들과 불사약이 모두 있었다고 하였다. 시황제가 바다에 이르게 되자 여러 방사인 제나라 사람 서시 등이 다투어 편지를 올려서 이를 말하며, 재계하고 남녀 아이들과 더불어 이를 구하라고 청하였다. 이에 서시를 파견하며 남녀 어린아이들 수천 명을 징발하여 바다로 들어가 이를 구하도록 하였다.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모두

79) 李昉(984), 『太平御覽』, 권782, 《四夷部三·紇嶼人·外國記》, 中華書局(1985), p.3466.

80) 북송(北宋)의 사학자 사마광(司馬光)이 편집한 편년체 사서 294권으로 19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주나라 위열왕으로부터 후주(後周) 세종에 이르기까지 16개 왕조 113왕 1362년간의 역대군신의 사적(史跡)을 편년체로 엮은 것으로, 정사(正史) 이외의 풍부한 자료와 고증을 첨가하였다. 1065~1084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81) 늪으면 몸은 풀어져서 녹아 없어지고 신선이 된다는 뜻이다.

바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이를 수는 없었으나 멀리서는 바라보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於是始皇遂東遊海上、行禮祠名山、大川及八神。始皇南登琅邪、大樂之、留三月、作琅邪臺、立石頌德、明得意。初、燕人宋毋忌、羨門子高之徒稱有仙道、形解銷化之術、燕、齊迂怪之士皆爭傳習之。自齊威王、宣王、燕昭王皆信其言、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雲此三神山在勃海中、去人不遠。患且至、則風引舡去。嘗有至者、諸仙人及不死之藥皆在焉。及始皇至海上、諸方士齊人徐市等爭上書言之、請得齊戒與童男女求之。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入海求之。舡交海中、皆以風解、曰：“未能至，望見之焉。”⁸²⁾ (《秦紀，卷7》)

시황 37년(신유, 기원전 210년), 오나라를 지나 강을 건넜다. 바다를 따라 북상하여 낭야와 지부에 이르렀다. 큰 물고기를 보고 쏘았다. 마침내 바다와 서쪽을 병합하고 평원진에 이르러 병이 들었다.

始皇帝三十七年(辛卯、西元前二一〇年)、還、過吳、從江乘渡。並海上、北至琅邪、罾。見巨魚、射殺之。遂並海西、至平原津而病。⁸³⁾ (《秦紀，卷8》)

북송 태평흥국 2년(977) 이방(李昉, 925~996년) 등이 송 태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백과전서인 『태평어람(太平御覽)』 권782 《사이부삼(四夷部三)·저서인(紵嶼人)·외국기(外國記)》와 사마광(司馬光, 1019~1086년)이 역대의 정사뿐만 아니라 야사의 자료를 고증을 통하여 서복의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전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제외하면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 등 이 시기의 사서(史書)에는 서복에 관한 기록이 없다.⁸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사서(史書)들은 한반도에서의 사서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중국의 고중세(古中世)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치통감』 역시 고려로 전해져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문화적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⁸⁵⁾

송대의 개인 저술 중에 서복을 기록한 대표적인 것은 당나라의 한 서생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방(李昉, 925~996년)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인 『태평광기』 《신선4(神仙四)·서복(徐福)》과 구양수(歐陽修, 1007~1072년)의 『일본도가(日本刀歌)』라는 시가 있다.

82) 司馬光(1084)저, 신동준역, 『資治通鑑』, 1권, 《秦紀 제7권》, p.392.

83) 司馬光(1084)저, 신동준역, 『資治通鑑』, 1권, 《秦紀 제7권》, p.408.

84)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39.

(除了李昉的《太平御覽》和司馬光的《資治通鑑》、有關這一時期的二十五史之《宋史》、《遼史》、《金史》、《元史》中、沒有發現與徐福東渡有關的內容。)

85) 정창원(2013),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관한 연관성 탐색」, 『역사와 실학』, 52, p.199.

(3) 『태평광기(太平廣記)』

당나라가 개원한 해에 한 서생이 반신이 마르고 검게 변하는 괴질을 앓아 궁중의 어의인 장상용(張尙容) 등을 불러 물어봐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다. … 그러자 “진시황 때 바다에 나가 선인을 구한 서복이를 못 들어 보았소?” 선비는 안다고 했다. 여자가 또 말했다. “그가 바로 서복입니다.” 잠시 후 순례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선비는 서복을 만나 자신의 병세를 말하고 치료를 요청했다. 서복이 말하기를, “당신은 죽을병에 걸렸지만 나를 만나면 살 수 있소.” … 서복은 노란 약 한 봉지를 주며 이 약이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고, 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이면 병이 낫는다고 말했다. 선비는 등주(登州)로 돌아온 후 약을 궁중에 바쳤다. 당시 당 현종은 그 약을 병든 사람에게 먹였다. 먹으니 병이 나왔다.

唐朝開元年間、有個讀書人得了個半身枯瘦變黑的怪病、請了宮中的御醫張尙容等來看也不知道是什麼病。… “你沒聽說過秦始皇時出海求仙的徐福嗎？”士人說知道。女人說：“他就是徐福。”過了一會、朝拜的人都散了、士人就上前拜見徐福、說了自己的病情、請求徐福給治療。徐福說：“你得的是必死的病、但遇到了我、你就能活了。…”徐福人給了他一袋黃色的藥、並說：“這藥能治任何疾病、再遇見有病的人、可以用羹匙量着喝一點就能治好病。”士人回到登州以後、把藥獻給宮中。當時唐玄宗把那藥給有病的人吃。一吃病就治好了。86) (《神仙四·徐福》)

(4) 「日本刀歌」 87)

… 들기에 그 나라는 큰 섬에 있고, 토양이 비옥하고 풍속이 좋다고 하네.
선조인 서복이 진나라 백성을 속여, 약을 캐러 갔다가 어린이 그곳에서 늙어가네.
백가지 장인과 오곡을 주어 살게 하니, 지금까지 공예품이 모두 정교하네.
지난 왕조 때 공물 바치러 누차 왕래하더니, 그곳 선비들 종종 문학에 뛰어나네.
서복이 떠날 때는 서경이 불타지 않아, 귀한 책 백 편이 지금까지 보존되었네.
중국으로 전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니, 세상에겐 고문을 아는 이 아무도 없네. …

… 傳聞其國居大島、土壤沃饒風俗好。
其先徐福詐秦民、采藥淹留卅童老。
百工五種与之居、至今器玩皆精巧。
前朝貢獻屢往來、士人往往工詞藻。
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尚存。
令嚴不許傳中國、舉世無人識古文。…88)

구양수는 시에서 ‘서복이 백공을 데려왔으므로 그 영향으로 일본 제품이 정교하다’라거나, ‘서복이 출발했을 때는 분서갱유 이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책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읊고 있다. 사실 한반도나 일본에는 중국에

86) 『太平廣記, 983년』, 《神仙四, 徐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taiping-guangji/zh>)

87) 송대(宋代) 시인 오우양슈(歐陽修, 1007~1072년)의 시이다. 당시 일본이 수출한 보도(寶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중국의 국학문화의 일부가 유실된 것을 비탄하는 내용이다.

88) 歐陽修(1072), 『歐陽修詩選』, 安徽人民出版社(1982), p.194.

현존하지 않는 서적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들 서적이 서북이 가지고 온 것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진나라 때 유학 관련 문헌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소문은 11세기 초에 이미 알려져, 18세기까지도 조선통신사들은 아라이하쿠세키(新井白石) 등에게 이 문헌의 존재 여부를 수소문하였다. 조선통신사에게 수소문을 의뢰한 청나라 사관들의 놀라운 집요함도 알 수 있다.⁸⁹⁾

(5) 「원달공일본패배가(元韃攻日本敗北歌)」

남송 말 복주연강(福州市 連江縣)에 정사초(鄭思肖, 1241~1318년 본명은 之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남송을 섬겼으나, 조국이 멸망하자 조국을 생각하면서 시문과 서화를 쓰면서 생애를 마쳤다. 그는 1283년 소주(蘇州) 승천사(昇天寺) 우물에 ‘심사(心史)⁹⁰⁾라고 명명한 『반원시집(反元詩集)』과 『잡문(雜文)』을 봉인해 던졌는데 355년 뒤인 명나라 승정 11년(1638년)에 이 작품들이 발견되었다. 그 문집 중에 「원달공일본패배가」라는 시가 있고, 여기에도 일본과 서북이 등장한다. 이것은 조국(송나라)을 망하게 한 몽골(元韃)이 두 차례(1274년과 1281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기뻐한 시라고 전한다.

왜는 동방 구이(九夷)의 하나로, 바닷물이 저절로 국경을 이룬다.
지형은 넓이 수 천리이고, 풍속은 불교를 좋아하며 매우 풍요롭다.
토지의 산물은 매우 많고 말을 키워, 배로 실어 날라 중국과 통상한다.
서북 사당 앞 시린 달빛은 그 옛날 시황의 학정을 원망하는 듯하다. …

東方九夷倭一爾、海水截界自區宇。
地形廣長數千里、風俗好佛頗富庶。
土產甚夥并產馬、舶來中國通商旅。
徐福廟前秦月寒、猶怨舊時嬴政苦。⁹¹⁾ …

89) 壹岐一郎(1996), 『徐福集團洞渡與古代日本』, 天津人民出版社, p.34.

(秦代儒學的書籍傳入日本的傳聞、在11世紀初已被發覺、可是、直到18世紀時、朝鮮通信使還向新井白石等人打听。由此可見無論是歐陽修、還是委托朝鮮通信使進行調查的清代史官們的惊人的執拗。一方面反映了漢民族對記象文、記象的很強的深思熟慮、另一方面不能不說是一種自信。)

90) 《심사》는 칠갑으로 봉합되어 소주(蘇州) 승천사(昇天寺) 내 우물에 깊이 묻혀 있었다. 그래서 철함심사(鐵函心史) 또는 정중심사(井中心史)라고도 불린다. (《心史》是元代南宋詩人鄭思肖所創作的一部作品集。《心史》以鐵盒封函、深埋在蘇州承天寺院內井中。因此、此書又被稱為《鐵函心史》或《井中心史》。)

(<https://baike.baidu.com/item/心史/7856162>)

91) 鄭思肖(1283), 「元韃攻日本敗北歌」, 古詩詞網 DB.

(https://www.gushici.com/t_180511)

송원시대는 대외 경제문화 교류의 또 다른 번영기로 중국과 한반도 및 일본 사이에 교류가 많아져 민간 무역의 발전 정도가 수당(隋唐) 시대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였다. 송원 시대의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보면, 최고 통치자가 일본을 정복하려는 도해전쟁(渡海戰爭)을 두 차례나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민간 경제문화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고, 통치자들도 해외무역에 관심이 높았다. 교류가 잦아지면서 ‘서복동도일본설’이 널리 퍼졌고, 서복 이야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다.⁹²⁾

제5절 명청시대(明清時代)

명대 초기에 중국 연해지방에 왜구들이 출몰하여 많은 피해를 주자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청대까지 이어지나 민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에도시대는 유학이 크게 부흥하여 서복에 대한 유적과 전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명사(明史)나 청사고(淸史稿) 등 명청시대의 사서에서는 서복동도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야사, 지방지, 인물지 및 시인묵객의 문집 등에는 서복이 동도하여 일본에 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명청(明清) 시대의 기록으로는 『열선전전(列仙全傳)』, 『원시비서(原始祕書)』와 『유씨홍서(劉氏鴻書)』와 「영서복(咏徐福)」 등에서 서복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 『열선전전(列仙全傳)』

명나라의 만력 28년(1600)에 출판된 왕세정(王世貞, 1526~1590년)이 집필한 신선 이야기집인 『열선전전(列仙全傳)』에서는 동진의 도교학자 갈홍(葛洪)이 지은 『열선전(神仙傳)』 등의 기술을 부풀려 서복이 신선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92)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38.

(宋元時期是中外經濟、文化交流的又一个繁榮時期、中日民間交往增多、民間貿易的發展程度遠遠超過隋唐。宋代對外通商港口增多、大量日本商船來華貿易、也有不少日本僧人來華求法取經。代延續了宋代開放的對外政策、雖然最高統治者發動了兩次企圖征服日本的渡海戰爭、但是中日民間的經濟文化交流仍然沒有中斷、元朝統治者對海外貿易十分關注、來華的日本貿易商船几乎年年不絕。隨着交流頻繁徐福東渡日本說已經廣爲流傳、在有關係徐福東渡的問題上出現了許多新內容。)

서복은 자를 군방이라 한다. 어느 지방 사람인지 모른다. 진시황 때 대완(서역)에는 황사자들이 도로에 가득했다. 까마귀를 닮은 새가 어디선가 날아와 입에 물고 온 풀을 죽은 이의 얼굴 위에 놓으니 모두 소생했다. ... 이에 시황제는 서복에게 동남동녀 3천을 딸려 조주로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 훗날 심희가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을 때, 도가의 시조 황제와 노자는 서복을 사자로 보냈는데, 서복은 백호차(白虎車)를, 도세군(道世君) 사마생(司馬生)은 용차를, 시랑 박연지(薄延之)는 백록차(白鹿車)를 타고 함께 심희를 마중 나왔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복이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당 현종 개원 연간에 한 선비가 반신이 마르고 검게 변하는 병을 앓았는데 어의(御醫) 장상용(張尙容) 등도 그 치료법을 알지 못했다. ... “그대는 진시황 때의 서복을 아십니까?” 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흩어지자 선비는 바닷가에 올라 서복을 배알하고 일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한 뒤 약으로 치료해 줄 것을 청하였다. ... “이 약은 모든 병에 잘 듣소, 돌아가서 아픈 이를 만나면 도규(刀圭)로 조금만 떼어 먹이시오.” 선비가 귀환 길에 오르자 며칠 만에 등주에 다다랐다. 약을 임금에게 헌상하고 자초지종을 아뢰었는데 당시 현종이 병 있는 사람에게 먹여 보니 모두 다 나왔다.

徐福、字君房、不知何許人也。秦始皇時。大宛中多枉死者橫道、數有鳥銜草、覆死人面、皆登時活。...因遣福及童男童女各三千人、乘樓船入海。尋祖洲不返、後不知所之。逮沈羲得道、黃老遣福爲使者、乘白虎車、度世君司馬生乘龍車、侍郎薄延之乘白鹿車、俱來迎羲而去。由是後人知福得道矣。

又唐開元中、有士人患半身枯黑、御醫張尙容等不能知。...“君知秦始皇時徐福耶？”曰：“知之。”“此則是也。”頃之、衆各散去、某遂登岸致謁、具語始末、求其醫理。

...“此藥善治一切病、還遇疾者、可以刀圭飲之。”某還、數日至登川、以藥奏聞。時玄宗令有疾者服之、皆愈。⁹³⁾

(2) 『원시비서(原始祕書)』와 『유씨홍서(劉氏鴻書)』

중국 고문헌 중에 명 태조 주원장의 열일곱 번째 아들 주권(朱權, 1378~1448년)이 지은 일종의 백과사전인 『원시비서(原始祕書)』와 명나라의 만력 38년(1620) 안휘성 출신 유중달(劉仲達)이 편찬한 역시 백과사전인 『유씨홍서(劉氏鴻書)』는 『사기(史記)』의 서복에 관한 관점을 인용하면서도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서복이 일본을 건국했다’는 ‘서복일본건국설’을 주장하였다. 이들 두 저서는 명(明)을 대국으로 섬기던 조선시대 후기 학자들과 에도시대 유학자들의 작품에 단골 소재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고려의 학문은 기사(箕子)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학문은 서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베트남(安南)의 학문은, 한(漢)의 군현(郡縣) 제도를 세우고 자사(刺史)를 두어 중국의 문학을 전파한 오대(五代) 말의 절도사(節度使) 오창문(吳昌文)의 시기에 와서야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의 문화가 외지로 전해져 나간 지 수천 년 사이에, 고려나 일본의 학문은 모두 이적(夷狄)의 풍습을 면하지 못하고 궁하며 고루해서, 성인의

93) 王世貞(1600), 『有象列仙全傳』, 汪雲鵬校刊本, p.63.

가르침을 계승하기 부족했음은 대개 그 성음(聲音)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묘하고 심오한 이치야 붓끝으로 가히 전할 수 없으므로 서로 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高麗之學、始於箕子、日本之學、始於徐福、安南之學、始於漢立郡縣而置刺史、被之以中國之文學、後至五代末、節度使吳昌文方盛。自中國流衍外夷、數千年間、其文皆不免於夷狄之風、窘竭鄙陋、不足以續聖教者、蓋其聲音不同。其奇妙幽玄之理、非筆舌之可傳、故不相合。94) (『原始祕書』)

일본국은 큰 바다의 섬 속에 있으며 사방이 천리나 되는데, 즉 왜국(倭國)으로 진시황 때 어린 남녀를 데리고 서복(徐福)이 건국한 나라로, 서복이 건너올 때 백공(百工), 기예(技藝), 의무(醫巫) 및 복서(卜筮)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서복은 진나라의 학정을 피하여 도망해 왔기 때문에 뜻밖에 나라를 세웠고 중국의 시서(詩書)가 여기에 남아 있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 고려의 학문은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학문은 서복(徐福)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베트남(安南)의 학문은, 한(漢나라가 군현(郡縣) 제도를 세우고 자사(刺史)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日本國在大海島中、島方千里、即倭國也。其國乃秦始皇時徐福所領童男女始創之國、時徐福所帶之人、百工、技藝、醫巫、卜筮皆全。福因避秦之暴虐已思遁去、不意遂爲國焉、而中國詩書遂留於此、故其人多尙作詩寫字。…高麗之學始於箕子、日本之學始於徐福、安南之學始於漢立郡縣而置刺史。95) (『劉氏鴻書』卷8《地理部五·夷國·日本》)

『원시비서(原始祕書)』는 조선시대 때 안정복의 『순암집(順菴集)』,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과 『열하일기(熱河日記)』 등에 인용되었고 『유씨홍서(劉氏鴻書)』는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홍직필의 『매산집(梅山集)』과 김종후의 『본암집(本庵集)』 등에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96)

(3) 「영서복(咏徐福)」

청대(清代) 말에 이르러 학자나 문인 등의 문집에는 서복의 동도일본(東渡日本) 사실과 일본의 서복 관련 유적에 관한 고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주일본 청나라 외교관을 역임한 황준헌(黃遵憲, 1848~1905년)과 여서창(黎庶昌), 설복성(薛福成) 등이 서복 묘와 서복 사당을 방문하고 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사의조

94) 朱權(연대 미상), 『原始祕書』, 古籍網 DB.
(<https://www.bookinlife.net/book-85134.html>)

95) 劉仲達(1611), 『劉氏鴻書』, 卷八, 《地理部五·夷國·日本》, 明萬曆三十九年刻本.

96) 한국고전종합 DB 검색창에서 『原始祕書』와 『劉氏鴻書』로 검색한 결과이다.

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저술하여 김홍집에게 전하기도 한 황준헌의 『인경여시초(人境廬詩草)』 하권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에 실린 「영서복」이라는 시를 보자.

진나라를 피한 남녀 삼천이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 밖 봉래는 별천지이다.
경과 새(진나라에서 올 때 가져온 것)는 입봉전(일본의 신사)에 전해 내려오니 대대로 신선이 나오나 보다.

避秦男女渡三千、海外蓬萊別有天。
鏡璽永傳笠縫殿、倘疑世系出神仙。⁹⁷⁾ (《日本雜事詩》)

황준헌은 키이국(紀伊國)의 서복 사당과 구마노산의 서복 묘를 인정하여 서복의 일본 동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일본의 군신 제도와 중국의 그것은 상통하므로, 이 제도는 서복이 진나라로부터 가져온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또한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의 개국 시기가 서복 동도 100여년 후이므로 진무천황은 서복 자신이거나 그를 따라간 진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황포군관학교 역사 교관으로 유명한 진사(秦史)학자였던 마페이바이(馬非百, 1896~1984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서인 『진집사(秦集史)』 《서불(徐市)》에서 ‘서복은 구선(求仙)을 위하여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진시황의 사심을 이용하여 해외 식민지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하였다.⁹⁸⁾ 서복이 진나라를 떠나려 했을 때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해외로 백성을 이주시키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⁹⁹⁾

97) 黃遵憲(1879), 『人境廬詩草』, 下卷, 《日本雜事詩》, 中國青年出版社(2000), p.833.

98) 馬非百(1982), 『秦集史』, 上冊, 《徐市》, 中華書局, p.353.

(抑徐福之入海、其意初不在求仙、而實欲利用始皇求仙之私心、而籍其力、以自殖民于海外。)

99) 류잔귀(2016), 「최초의 동북아 탐험가 - 서복의 이야기」, 『제주발전연구』, 20, p.240.

제3장 한국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쉽게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일본 베트남과 더불어 한자문화권의 한 국가로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다. 중국의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등 옛 문헌이 최초로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대개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으나, 문헌에 명백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그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중국과 한반도는 고대국가 시기부터 끊임없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여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문헌이 한반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학의 전래와 함께 다양한 경서와 사서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¹⁰⁰⁾

제1절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전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문헌에서 서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2명의 인물에 의한 3건의 기사가 있다. 신라 내물왕(奈勿王) 때부터 눌지왕(訥祗王) 때까지 관리로 활동한 박제상(朴堤上)은 눌지왕 2년(418) 일본에 인질로 가 있던 왕의 아우 미사흔(未斯欣)을 구출하여 신라에 보낸 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눌지왕이 박제상을 대아찬(大阿飡)으로 추증(追贈)하고 미사흔을 맞이하며 불렀다는 『우식곡(憂息曲)』이 이익(李瀾)의 『성호전집(星湖全集)』에 실려 있는데, 이 『우식곡』에 한반도에서의 첫 번째 서복 기록이 나타난다.¹⁰¹⁾ 한편 통일신라 말기 당나라에 유학하고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여 울수현위(漂水縣尉)와 관역순관(館驛巡官)이라는 벼슬을 한 경험이 있었던 최치원(崔致遠, 857~?)의 『고운집(孤雲集)』에도 서복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우식곡』과 『고운집』에 실린 서복 기록을 살펴보자.

(1) 『우식곡(憂息曲)』 102)

100) 정창원(2013),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관한 연관성 탐색」, 『역사와 실학』, 52, pp. 198~199.

101)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76.

102) 金富軾(1145), 『三國史記』, 卷第45, 11章 뒤쪽, 《列傳5, 朴提上》.

(처음 미사흔이 올 때 육부에 명하여 멀리 나가 맞이하게 하였고, 만나게 되자 손을 잡고 서로 울었다. 형제들이 모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마음껏 즐겼으며 임금은 자작으로 가무하여 그 뜻을

병가의 계획에는 속임수도 필요하여, 배 한 척으로 한밤중 영주와 봉래를 찾아갔네.
서북의 바다에서 명주를 몰래 훔쳐내고, 치솟는 불꽃 속에 가벼이 몸을 던졌다네.
왜국에서 죽었지만 무슨 원망 있었으랴, 공자(미사흔)가 돌아올 때 혼령이 함께 왔다네.

兵謀不厭詭詐設、孤帆夜劃窮瀛蓬。
明珠暗偷徐市海、烈焰上燭輕投船。
身亡絕域有何怨、公子西歸魂與同。103) (『星湖全集』, 4卷, 《海東樂府 憂息曲》)

(2) 『고운집(孤雲集)』

뚝 걸고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장풍 만리의 기분과 통한다고 할까.
멧목을 탄 한나라 사신도 생각이 나고, 약 캐러 간 진나라 아동들도 떠오르네.
허공 밖에 걸려 있는 것은 해와 달이고, 태극 속에서 나온 것은 하늘과 땅이로세.
봉래가 지척의 거리에 보이니, 나도 잠깐 선옹(仙翁)을 찾아볼거나.

掛席浮滄海、長風萬里通。
乘槎思漢使、採藥憶秦童。
日月無何外、乾坤太極中。
蓬萊看咫尺、吾且訪仙翁。104) (《詩, 泛海》)

신이 삼가 생각건대, 소방(小邦)의 땅은 진한(秦韓)이라고 칭해지고 도(道)는 추로(鄒魯)105)를 흠모합니다. 그렇지만 은(殷)나라 부사(父師)106)가 처음 가르침을 베풀 적에 직접 나서서 일을 행한 것을 잠시 본 것에 불과하고, 공사구(孔司寇:공자)가 와서 살고 싶다고는 했어도 입으로 은혜를 베푼 것만 들었을 뿐이요, 담자(鄰子)107)는 한갓 먼 조상만 자랑하였고, 서생(徐生)은 완선(頑仙:초보신선)이라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右臣伏以當蕃、地號秦韓、道欽鄒魯。然而殷父師之始教、暫見躬親、
孔司寇之欲居、惟聞口惠、鄰子則徒矜遠祖、徐生則可媿頑仙。108) (《壯, 奏請宿衛學生還蕃狀》)

우식곡(憂息曲)을 노래한 5세기 초에는 『후한서』를 제외한 중국의 『전사사(前四史)』는 이미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에서 서시해(徐市海)는 일본을 가리키며, 명주(明珠)는 미사흔을 뜻한다. 따라서 통일신라 때에는 서북의 존재와 함께 그가 왜국(倭國)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신라에 알려져 있었음이 확인된

나타냈는데 지금 향악의 우식곡이 그것이다. ; 初末斯欣之來也、命六部遠迎之、及見握手相泣。
會兄弟置酒極娛、王自作歌舞、以宣其意、今鄉樂憂息曲是也。)

103) 李瀾(1681~1763년), 박헌순역, 『星湖全集』, 제4권, 《海東樂府 憂息曲》, 한국고전번역원, p.27.

104) 崔致遠(857~?), 이상현역, 『孤雲集』, 《詩, 泛海》, 한국고전번역원 p.183.

105) 맹자와 공자의 고향으로 공맹의 가르침, 즉 유교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106) 기자(箕子)를 의미한다.

107) 춘추시대(春秋時代) 담국(鄰國)의 군주이다.

108) 崔致遠(857~?), 이상현 역, 『孤雲集』, 《壯, 奏請宿衛學生還蕃狀》, 한국고전번역원, p.254.

다.¹⁰⁹⁾ 서북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중국에 알려진 것은 『사기』에서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찾아 왕이 되었다고 기록된 후 약 1,200여 년이 지난 973년 후주(後周)의 승려 의초(義楚)가 편찬한 『의초육첩(義楚六帖)』에 의해서이다. 일본 승려 칸호(寬輔)가 구마노(熊野)에 서북 묘와 서북 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의초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서북의 일본정착 사실이 5세기 초에 이미 한반도에 알려졌다면, 당시에 이미 한반도와 왜와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을 통하여 중국 사서에 기록된 서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당시 왜와의 교류를 통하여 서북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정착하였다는 이야기도 신라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진(秦)나라의 유민들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역, 특히 남부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 상나라 왕실의 후예인 기자(箕子)가 조국이 주(周)나라에 망하자 일족을 데리고 고조선에 망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서북동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서북이 도래하였다는 전설과 관련된 진한(辰韓) 땅에 진인(秦人)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과 『삼국지(三國志)』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등에 의하면, 진한 지역에 있는 한 마을 노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옛날 진나라로부터 고역을 피해 한(韓)나라로 이주해 왔더니,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누어 주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⁰⁾ 그들은 한반도의 남단인 변방에 망명하여 살면서도 진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오랫동안 진나라 말을 했던 것은 중국의 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들이 서북이나 한중(韓終)의 후예라고는 어떤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2절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 시대 고종 연간(1216~1230년)에 발행된 『고려사(高麗史)』 「한림별곡(翰林別曲)」에서 삼신산(三神山)을 운운(云云)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면 고려 시대의 인물들 역시 중국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¹⁾

109)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76.

110) 鄭守一(2002), 「徐福渡韓考」, 『제주도연구』, 21, p.96.

111) 정창원(2013),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관한 연관성 탐색」, 『역사와 실학』, 52, p.200.

고려 말 서복 기사는 주로 신진사대부들의 詩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승휴(李承休)의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정몽주(鄭夢周)의 『동문선(東文選)』 등이 있다. 이들 작품 중에서도 이색의 문집에 서복 관련 기사가 다수 집중된 것이 특징인데, 주로 작시(作詩) 과정에서 서복을 인용하고 있다.¹¹²⁾

(1) 『고려사(高麗史)』 「한림별곡(翰林別曲)」

… 일지홍(기생이름)이 운운(云云) [이어] ,
 봉래산, 방장산 및 영주의 심신산, 이 삼신산(三神山) 붉은 누각에 작작선자(倬姁仙子)와 녹발액자(綠髮額子)가 금수(비단) 장막 속에서 구슬발(珠簾)을 반만 걷고 5호(五湖)를 바라보는 광경은 어떤가?
 푸른 버들과 대나무를 정자 옆에 심고 피꼬리가 노래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어떤가?
 당당당 당추자(唐楸子-호두), 조협목(皂莢木-주염나무 열매) 운운 [이어] ,
 옥을 깎은 듯한 섬섬옥수 운운 [이어] , 손을 잡고 함께 노니는 광경은 어떤가?

… 一枝紅云云[語俚]、蓬萊山方丈山瀛州三山此三山紅樓閣、倬姁仙子綠髮額子錦繡帳裏珠簾半捲、偉登望五湖景、何如? 綠楊綠竹裁亭畔偉囀黃鶯景何如? 唐唐唐楸子皂莢木云云[俚語、削玉纖纖云云[俚語]、偉携手同遊景何如?¹¹³⁾ (71권(志25-樂2-俗樂)

(2)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

조부께서 말하길 용이 서복을 보내어, 멀리 신주(神州) 땅에 불사초를 찾으려 하였네.
 삼천 동남동녀가 가서는 돌아오지를 앓고, 고래가 하릴없이 비린 바람을 일으키네.
 또 듣기로 배가 무릉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다시 깊은 곳을 찾아 머물렀네.

吾聞祖龍遣徐福、遠掇援草神州裏。
 三千童冠去不還、鮑魚無賴腥風起。
 又聞舟子入桃源、一出復尋迷所止。¹¹⁴⁾

(3) 『가정집(稼亭集)』

왔다 갔다 하며 객 노릇을 하기 싫으니, 아예 죽치고 앉아서 눌러 살아 볼거나.
 기간에 기대면 듣지 못했던 새소리요, 그물을 올리면 입맛 당기는 생선이라.

112)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p.77~78.

113) 정인지 외(1998), 『고려사』, 북한사회과학원, 한국의지식콘텐츠 DB.

(<https://www-krpia-co-kr-ssl.lib.jejunu.ac.kr/viewer?plctId=PLCT00004467&tabNodeId=NODE04269925#none>)

114) 李承休(1359), 『動安居士集』, 《行錄·田使君廣和詩》,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008A_0030_010_0020)

서복도 여기에서 선향을 찾아갔고, 신라로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네.
외로운 성 그리고 높이 치솟은 고목들, 눈에 온통 들어오니 자꾸 돌아볼 수밖에.

行邁嫌爲客、淹留擬卜居。憑軒聞怪鳥、舉網得嘉魚。
徐福尋仙處、新羅入貢餘。孤城與喬木、極目故躊躇。115) (《律詩》)

... 이러한 때에 서생(徐生)의 옛 자취를 돌아보고, 황홀한 가운데에서 삼신산(三神山)을 바라보노라면, 표연히 망묘(莽渺)를 타고 홍몽(鴻濛) 위에 올라서서 진세(塵世)를 버리고 홀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즐겁겠는가.

... 乃考徐生之遐迹、睇神山於恍惚、飄然欲乘莽渺凌鴻濛、遺世而獨立、又可樂也。116)
(《雜錄·送李中父使征東序》)

(4) 『목은집(牧隱集)』

... 영대태사가 뜨는 해를 공경히 인도하여, 중국과 오랑캐가 다 왕춘을 함께하였네.
서생이 누선에 올라 선약을 청탁한 뜻은, 이역(異域)이 아니라 광진(狂秦)을 도피키
위함이었네.
들으니 왜인도 글을 읽을 줄 안다 하는데, 그 서책은 곧 갱회(坑灰)의 나머지가 아니
리니. ...

... 靈臺太史政寅賓、華夏蠻貊同王春。
徐生樓船托仙藥、不有異域逃狂秦。
似聞椎髻知讀書、竹簡不是坑灰餘。...117) (《詩, 扶桑吟》)

(5) 『동문선(東文選)』

... 돈피 갖듯이 해지도록 뜻을 펴지 못하면서, 세치 혀 가지고 소진 노릇 부끄럽네.
장건(張騫)¹¹⁸⁾의 뗏목 위에는 하늘은 바다에 이었고, 서복의 사당 앞에 풀은 절로 봄
이로세.
시절을 느끼니 눈물이 쉬 나오고, 나라에 허락한 몸 자주 멀리 노누나. ...

... 弊盡貂裘志未伸、羞將寸舌比蘇秦。
張騫查上天連海、徐福祠前草自春。

115) 李穀, 『稼亭集』, 제17권, 《律詩》,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14A_0180_010_0360)

116) 李穀, 『稼亭集』, 《雜錄》,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4&cate1=A&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014A_0220_000_070&viewSync=OT)

117) 李穡, 『牧隱集』, 제4권, 《詩, 扶桑吟》,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20A_0110_010_0850)

118) 張騫(?B.C. 114년)은 한무제의 명을 받고 흉노를 공격하기 위하여 대월지국으로 동맹외교를 떠났던 인물로, 실제로 외교는 실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역과의 교통로를 처음으로 개척하는 공을 세운 인물이다.

眼爲感時垂淚易、身因許國遠遊頻。...119) (《遇題》)

이렇게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이 엿보았던 선향(仙鄉)과 방선적(方仙的)인 서복 이야기는 포은 정몽주의 글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포은이 1년간 왜구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으로 일본 규슈를 다녀오면서 일본에 서복 사당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견문하면서 비롯된 변화라 짐작된다. 특히 포은은 시에서 서복을 장건(張鵞)과 대구시킨 점이 주목되는데, 서복이 동남동녀 3,000명을 이끌고 동쪽에서 미지의 해로를 개척한 인물이라면, 장건은 서역의 광대한 육로를 개척한 인물이 된다. 둘 다 새로운 외부세계로 중화 문명을 전파한 개척자이자, 미지의 세계를 연 탐험가로 인식되는 점에서 닮아있다.¹²⁰⁾

제3절 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

조선 시대 전기의 문집 중 서복 관련 기사도 대부분은 중국의 사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시문(詩文)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특기할 사실은 이들 문집은 서복이 일본의 키이주(紀伊州)에 도착하였고, 와카야마현(和賀山縣) 구마노산(熊野山)에 서복 사당이 있고, 서복은 권현수신(權現守神)으로 모셔지며, 서복이 일본에 문물을 전파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전기의 서복 관련 기사는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최부(崔溥)의 「탐라시35절(耽羅詩三十五絶)」,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제집(佔畢齋集)』, 황준량(黃俊良)의 『금계집(錦溪集)』,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김성일(金誠一)의 『학봉집(鶴峰集)』과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중 신숙주와 김성일은 각각 1442년과 1590년에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 온 인물이며, 강항은 정유재란(1597년)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 약 2년 동안 지내다 돌아온 인물이다.¹²¹⁾ 이들 작품 속의 서복 기록을 살펴보자.

119) 鄭夢周, 『동문선(東文選)』, 제16권, 《遇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5A_0190_010_0860)

120) 김일권(2008), 「서복설화의 역사적 인식변화와 남해 금산 서불과차 암각문의 연관성 문제」, 『민속학 연구』, 22, pp.38~39.

121)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80.

(1)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고레이천황은 고안천황의 태자이다. 원년은 신미년이다. 72년 임오 진시황이 서복을 바다로 들여보내 선약을 구하게 하니 서복은 드디어 키이주(紀伊州)에 도착하여 그곳에 살았다. 재위한 기간은 76년이고 수는 115이다. … 스진천황 때에 구마노의 권현신이 되어 처음으로 나타났다. 서복이 죽어 신이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도 그를 제사 지낸다.

孝靈天皇、孝安太子。元年辛未。七十二年、壬午、秦始皇遣徐福入海求仙、福遂至紀伊州居焉。在位七十六年、壽百十五。… 崇神天皇時、熊野權現。神始現徐福死而爲神、國人至今祭之。122) (《日本國記, 天皇代序》)

(2) 「담라시35절(耽羅詩三十五絶)」

… 굽어보니 인간 세상 아득히 멀고, 바다 가운데에는 영주봉이 따로 솟아 있구나.
진동(秦童)과 한사(漢使)는 무리하게 힘썼는데, 삼한에 남겨 두어 부용이 되었네.
남쪽 경계는 한라산이요 북쪽은 바다인데, 모흥고혈이 그 사이에 있다네.
구름과 안개에 묻혀 모든 것이 망망한데, 유풍을 묻고자 하니 이제 그 몇 해인가. …

… 俯瞰人間隔世蹤、海中別有瀛洲峰。
秦童漢使枉費力、遺與三韓作附庸。
南畔是山北畔海、毛興古穴中間在。
雲烟埋沒事茫然、欲問遺風今幾載。123) … (『南槎錄』)

(3) 『점필제집(佔畢齋集)』

근래에 나와서 인간 세계를 밝아보고는, 다시 송창에 가서 흰 구름을 주관하겠지.
해운대 아래에는 뜬 하늘이 잠겨있고, 서복 사당 앞에는 낙엽 진 나무에 바람 불어라.
기억하건대 천 길의 오배에 당도하거든, 금계가 막 울면 해 바퀴 붉게 오르리.

邇來腳踏人間世、還向松窓管白雲。
海雲臺下浮天浸、徐福祠前落木風。
記得千尋鰲背泊、金雞初叫日輪紅。124) (《詩, 又三首》)

(4) 『금계집(錦溪集)』

122) 申叔舟(1471), 『海東諸國紀』, 《日本國記, 天皇代序》, 高靈申氏宗約會 발행(1970), p.4.

123) 金尙憲(1669), 洪琦杓 역(2008), 『南槎錄』, 제주문화원, pp.114~115.

124) 金宗直(1497), 『佔畢齋集』, 제6권, 《詩, 又三首》,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66A_0060_010_0400)

… 진(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하고 분서갱유의 참화를 일으키자, 선비 중에는 먼저 기미를 알고 도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예컨대 서불(徐市)은 속세 밖의 술사(術士)였고, 무릉도원은 피란한 유민들이 사는 곳이었다. …

… 秦并天下、焚坑禍起、士之先幾避世者多矣。
如徐市則方外之術士也、桃源則避亂之遺民也。125) … (《雜著, 四皓有無辨》)

(5) 『지봉유설(芝峯類說)』

세상 사람들이 이르는 삼신산은 곧 우리나라에 있으니, 금강이 봉래, 지리가 방장, 한라가 영주이다. 두보의 시에 ‘방장(方丈)은 삼한밖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써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 삼신산 이야기는 서북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는 일본에 들어가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하니, 곧 삼신산은 동해의 동쪽에 있어야 할 것이다.

世謂三山、乃在我國、以金剛爲蓬萊、智異爲方丈、漢挈爲瀛洲。以杜詩方丈三韓外證之。余謂三神山之說、出於徐福、而徐福入日本、死而爲神、則三山應在東海之東矣。126) (《地理部, 山》)

(6) 『학봉집(鶴峰集)』

충과 신을 가지고 오랑캐를 품어 주고, 또 왕언(王言) 퍼서 오랑캐를 교화하리.
하늘가에 해 저물어 바다와 산 푸르고, 서북 사당 그 앞에는 풀들 비단 같으리라.
선생계선 어느 곳에서 한잔 술을 부으려나, 박제상의 충혼은 응당 아니 죽었으리.

應將忠信懷鳩舌、更敷王言化雕齒。
天涯日暮海山碧、徐市祠前草如綺。
先生何處酌一杯、堤上忠魂應不死。127) (《詩, 奉使日本時贈行詩》)

(7) 『간양록(看羊錄)』

진시황 시대에 서북이 동남동녀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가서 왜의 키이주(紀伊州) 구마노산(熊野山)에 이르러 머물렀다. 구마노산에는 지금도 서북의 사당이 있고, 그 자손이 지금 진씨(秦氏)가 되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서북의 후손이 지금 왜황(倭皇)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홍무(洪武) 무렵에 왜승 겐카이추신(中津絶海)이 중국에 조공하러 갔었는데, 명태조(明太祖)가 시를 지으라 명하자, 그는 시를 짓기를, 구마노산 앞에는 서북 사당이 있고, 온 산의 약초가 비 끝에 우거졌네. 이제껏 바다 위의 물결이 평온할 사, 좋은 바람 기다려 일찌감치 돌아가리.

125) 黃俊良(1584), 『錦溪集』, 內集, 제4권, 《雜著, 四皓有無辨》, 한국국학진흥원(2014), pp. 152~388.

126) 李睟光(1614), 『芝峯類說』, 《地理部, 山》, 올재클래식스(2016), p.91.

127) 金誠一(1649), 『鶴峰集』, 附錄 제4권, 《詩, 奉使日本時贈行詩》,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210A_0190_060_0010)

하니 명태조가 화답시를 지으니,
구마노산 높은 봉에 제사 받는 사당, 솔뿌리 호박도 덩이덩이 컷으련만.
그 옛날 선약을 구하러 간 서복은, 돌아오지 못한 채 오늘이 왔네.

秦始皇時、徐福載童男女入海、至倭紀伊州熊野山止焉。熊野山尙有徐福祠、其子孫今爲秦始。世稱徐福之後今爲倭皇、則非也。洪武中、倭僧津絕海、入貢中原、太祖命賦詩。詩曰：

熊野山前徐福祠、滿山藥草雨餘肥。
只今海上波濤穩、萬里好風須早歸。

太祖賜和章曰：

熊野峰高血食祠、松柏琥珀也應肥。

當年徐福求仙藥、直到如今更不歸。128) (《賊中封疏 倭國八道六十六州圖》)

성종 2년(1471년)에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는 저서 『해동제국기』에서 서복의 일본 정착과 일본에서의 최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중국과 일본의 기록에서 서복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시기로 서복의 일본정착설이 중·한·일 세 나라의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⁹⁾ 『해동제국기』의 기록은 특히 17세기에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매번 막부 관계자들과 서복 문제를 토론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구양수의 『일본도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불에 타지 않아 일서(逸書) 백 편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거나 ‘중국에 전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내용 등이다. 통신사 중에 서복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서복 전설에 관심이 많았던 이는 1607년 제1차 통신사였던 경칠송(慶七松)으로 『해괴록(海怪叢)』에 그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제2차 강우성(康禹聖) 및 제3차 김동명(金東溟) 등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¹³⁰⁾

김상헌(金尙憲, 1570~1652년)이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로 제주에 왔을 때 쓴 제주 기행문인 『남사록(南槎錄)』에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를 다녀간 최부(崔溥)의 시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영주봉과 진나라 동남동녀에 관한 시구가 보인다.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우뚝 솟은 산이 바로 영주봉이다. 옛날 시

128) 姜沆(1656), 『看羊錄』, 《賊中封疏 倭國八道六十六州圖》, 大洋書籍(1972), p.180.

129) 周永河(2002), 「徐福, 事實과 傳說의 歷史」, 『제주도연구』, 21, pp.328~329.

130) 張良群(2007), 「東亞의 徐福研究」, 『中外徐福研究』, 1, pp.15~16.

(然而却對朝鮮、特別是17世紀開始的朝鮮通信史以很大影響。他們到日本后、每每向幕府的相關人士探討徐福問題。其最關心之事、就是歐陽修在《日本刀歌》中敘述的“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尙存。嚴令不許傳中國、舉世無人識古文”的事宜。討論時、每一細節都不輕易放過。在通信中關心徐福之事者不乏其人、曾語及徐福之事者有1607年第一次使者慶七松及其著的《海怪叢》、第二次的康遇聖(譯官)、第三次的金東溟(與林羅山對話)、以及1711年的代表團與新井白石의 會談。)

황제는 불로장생의 약이 영주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동자(童子)를 시켜 보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나라 사신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이로써 진한(秦漢)의 강한 나라로부터 속박을 벗어나고 대신 삼한(三韓)에 부속되었다.’라며 전설을 서술하고 있다.¹³¹⁾ 강항은 『간양록』에서 뇨게츠쥬인(如月壽印)이 쓴 『중화약목시초(中華若木詩抄)』를 인용하여 일본의 임제승(臨濟僧) 제카이추신(絶海中津)이 명 조정에 입조하여 명 태조 홍무제와 주고받은 시를 소개하고 있다.

제4절 조선시대(朝鮮時代) 후기

17세기 이후 조선 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서복 관련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통신사의 일본방문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18세기부터 실학과 국학의 발달로 백과전서의 편찬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백과전서에 서복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기 때문이다.¹³²⁾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집으로는 장유(張維)의 『계곡집(谿谷集)』, 차천로(車天輅)의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및 정운(鄭蘊)의 『동계집(桐溪集)』 등이 있는데 이들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1) 『계곡집(溪谷集)』

세상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기를, ‘일본(日本)에는 진(秦) 나라의 분서(焚書) 파동을 겪지 않은 경서(經書)들이 완벽하게 남아 있다’고 하면서, 대체로 서복(徐福)이 바다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매우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대체로 구양공(歐陽公, 구양수(歐陽脩)를 가리킴)에게서 비롯된다고 하겠는데, 빌미를 제공한 그의 일본도가(日本刀歌)를 보면, … ‘서복이 들어간 건 분서(焚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 일실(逸失)된 서책 백편 지금도 보전되었다오. 중국에 전하는 일 법령으로 엄히 막아, 온 세상 고문(古文)을 아는 이 없어졌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사기(史記)』를 살펴보면, 서불(徐市)이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출발시켜 바다 속에 들어가 선약(仙藥)을 구하게 한 것은 시황(始皇) 28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34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분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뒤 37년에 시황이 해상(海上)을 순유(巡遊)하다가 낭야(琅邪)에 이르렀을 때, 방사(方士) 서불 등이 바다속으로 들어가 신약(神藥)을 구하였다. … 바로 이해에 시황이 죽었고, … 대체로 서불이 한번 떠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게 된

131) 임준성(2010), 「錦南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연구」, 『古詩歌文化研究』, 27, p.303.

132) 홍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82.

것은 이해에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면 ‘서복이 떠날 때엔 책이 불타지 않았다.(徐福行時書未焚)’는 시구는 미처 상세히 상고해 보지 못한 소치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世人多言日本有全經未經秦火者、蓋徐福入海時所帶去也。其說甚無據。而考其原蓋出於歐陽公也。歐公日本刀歌曰、… 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尚存。令嚴不許傳中國、舉世無人識古文。… 按史記徐市發童男女、入海求仙、在始皇二十八年。至三十四年、始有焚書之令。及三十七年、始皇巡遊海上至琅邪、方士徐市等入海求神藥。… 是歲始皇崩。… 蓋市之一去不返、必在於是歲矣。然則所謂徐福行時書未焚者、無乃考之未詳耶。133) … (《溪谷漫筆, 世傳日本有》)

(2)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삼신산(三神山)은 모두 바다 가운데 있다. 연나라 소왕(燕昭王) 때부터 방사를 보내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진시황(秦始皇)이 서불에게 남녀 3천을 신고 가서 불사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또 찾지 못하였는데, 매년 바람이 배를 휘몰아 간 것으로 해석하였다. 오편(伍被)은 말하기를, ‘서복(徐福)이 단주(亶州)에 이르러 평원과 넓은 못을 얻고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하였는데, 그곳이 곧 지금의 일본이다. 두시(杜詩)에, ‘방장은 삼한 밖이다(方丈三韓外)’라는 구절이 있는데, 해설하는 사람들은 삼신산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여겨, 방장(方丈)은 지리산(智異山), 영주(瀛洲)는 한라산(漢拏山), 봉래(蓬萊)는 바로 금강산(金剛山)이라 한다. 내 생각으로는, 한라산은 바다에서 솟아 나왔고, 당나라 때에는 일본의 후지산(富士山)이 높이가 4백 리요,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눈이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것이 영주산이 아닐까. 그러나 『열자(列子)』 《귀허편(歸墟篇)》에, ‘다섯 산이 있는데, 여섯 자라가 이것을 이고 있었다. 용백국(龍伯國)의 사람들이 자라를 낚은 뒤로는 이 다섯 산이 물결을 따라 오르 내려 대여(岱輿)와 원교(圓嶠) 두 산은 표류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다만 봉래, 방장과 영주 세 산만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다’라 하였으니, 세 산은 동해 대황중(大荒中)에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三神山皆在海中。自燕昭王、遣方士尋之、不得、秦始皇遣徐市、載男女三千、求不死藥、又不得、每以風引舟去爲解。伍被謂徐福至亶州、得平原廣澤、止王不來、即今日本國也。杜詩有方丈三韓外之句、說者以爲三神山皆在我國、方丈即智異山、瀛洲即漢拏山、蓬萊即金剛山也。余以爲漢拏山聳出海中、在唐之世、聞日本國富士山高四百里、冬夏有雪、疑是瀛洲山。然列子、歸墟有五山、六鰲戴之。至龍伯國人釣鼈後、五山隨流上下、岱輿圓嶠二山漂失其所、只有蓬萊方丈瀛洲三山、始得根着。三山在東海大荒中、不在我國、明矣。134)

(3) 『동계집(桐溪集)』

133) 張維(1643), 『溪谷集』, 《溪谷漫筆, 世傳日本有...》, 제1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33A_0380_010_0010&viewSync=OT)

134) 車天輅,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13A_0010_000_0010&viewSync=OT)

한나라 사신은 언제 왔었던가, 진나라 아이들 살고 아니 갔노라.
 노인성은 지척에 있다 하지만, 약수가 이 세상을 가로 막았네.
 달고 쓴 맛은 감귤로 구분되고, 채소는 난초와 섞여 있다네.
 밝은 시대에 유배지로 내쫓긴 몸이련만, 신선산이 가까워서 천만다행이로다. ...

漢使何年至、秦童住不還。老星臨咫尺、弱水隔塵寰。
 甘苦分柑橘、芼蔬雜萹蘭。明時投極裔、何幸近仙山。135) ... (《五言律詩, 次聖求韻》)

장유는 『계곡만필』에서 세상에 전하는 ‘일본에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때 타지 않은 경전이 있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世傳日本有未經秦火之書 其說無據)’고 하면서, ‘일본에 고문상서가 전한다’는 구양수(歐陽脩)의 시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사기에 서복과 관련된 사실들을 연대순으로 제시한 후 서복의 일본 도래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구양수와 같이 학식이 넓고 바른 사람이 미처 상고하지 않은 사실(博雅如歐公 亦不能無疑 何也)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장유의 이런 주장은 이후 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접객 관리들에게 항상 물어보고 확인하는 주제가 되었다.¹³⁶⁾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년)은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사실을 항의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어 대정 고을에서 10년간 적거하였는데, 그의 문집 『동계집』에 서복에 관한 시구가 실려 있다. 정온은 시에서 서복이 데리고 온 진나라 아이들이 탐라에 머물렀음을 암시하고, 한(漢) 무제(武帝)도 불사약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탐라국왕세기(耽羅國王世紀)』에 의하면 B.C. 110년 한 무제가 동방삭(東方朔)의 말을 듣고 영주에 사신을 보내어 금광초(金光草)와 옥지지(玉脂芝)를 구해왔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온은 노인성이 가까이 보이는 곳과 돌아오지 못하는 강, 즉 약수 밖에 쫓겨나 있지만 신선이 사는 곳에서 신선과 벗 삼아 사니 다행한 일이라고 쓰고 있다.¹³⁷⁾

18~19세기에는 서복을 다룬 많은 문집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이금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박지원(朴趾源)의 『연암집(燕巖集)』과 『열하일기(熱河日記)』 및 박태무(朴泰茂)의 『서계집(西溪集)』 등 동시대의 대표적인 몇 문집을 살펴보자.

135) 鄭蘊(1741), 『동계집(桐溪集)』, 제1권, 《五言律詩, 次聖求韻》,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295A_0040_030_0500)

136)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86.

137) 權武一(2017), 「서복이 탐라에 온 까닭은」, 다음블로그.
 (<https://blog.daum.net/storynami/165>)

(4) 『동사강목(東史綱目)』

『한서(漢書)』 《교사지(郊祀志)》에 의하면 곡영(谷永)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진 시황(秦始皇)이 서복(徐福)과 한중(韓終)을 시켜 많은 수의 동남동녀를 싣고 바다에 들어가 신선(神仙)을 구하게 하였는데, 그 길로 도망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하였으니, 한중(韓終) 역시 한(韓)의 후예이다. … 서복(徐福)은 왜국(倭國)으로 도망갔고, 한중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말이 없으나 이 어찌 동쪽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가 바라본 신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漢書郊祀志、谷永說上曰、始皇遣徐福韓終、多載童男女、入海求神僊、因逃不還、終亦韓之後裔。… 徐福逃至倭國、而韓終無所聞、豈非東到我邦? 而其所望神山、非我邦而何?138) (《附錄, 上卷, 下, 雜說》)

(5)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후한서(後漢書)』에, ‘서복이 바다로 들어가 이단주(夷澶州)에 가 살았다’고 하였으니, 한유(韓愈)의 글에, ‘바다 밖 이단(夷澶)의 고을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살펴보면, 이단은 두 고을 이름이니, 지금 왜국 남해도에 키이주(紀伊州)와 단주(淡州)가 있으니, 담(淡)자의 음이 단(澶)자의 음과 서로 비슷하므로 아마 이것이 이단주인 듯하다.

後漢書曰、徐福入海止夷澶州、韓文所謂海外夷澶之州是也。按夷澶二州名、今倭國南海島、有紀伊州淡州、淡與澶音相近、疑是夷澶州也。139) (《별집, 邊圉典故, 西邊, 倭國》)

(6) 『연암집(燕巖集)』

정야(政衙 수령이 정무 보는 곳) 서남쪽 100리 밖에 푸른 장막이 드리운 듯 보이는 것은 바로 호남과 영남 아홉 고을에 웅거하여 도사된 산인데 그 이름은 지리산이오. 《황여고(皇輿攷)》에 이르기를 천하에 신선이 산다는 산이 여덟이 있으며 그중 셋은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풍악산(楓嶽山)은 봉래산(蓬萊山), 한라산은 영주산(瀛洲山), 지리산은 방장산(方丈山)이다’라고도 한다. 진(秦) 나라 때 방사(方士)의 말에 삼신산(三神山)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후세의 인삼이다. 한 줄기에 가장귀가 셋이고, 그 열매는 화제주(火齊珠 보석의 일종)와 같고 그 형상은 동자(童子)와 같은데, 옛날에는 인삼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사약이라 일컬어, 오래 살기를 탐내는 어리석은 천자를 속여 현혹되게 한 것이다.

正衙西南面百里外、如垂翠帳者、卽雄蟠湖嶺九邑之山、其名曰智異也。皇輿攷所稱天下神山有八、其三在外國、或曰楓嶽爲蓬萊、漢挈爲瀛洲、智異爲方丈。秦之方士所言三神

138) 安鼎福(1778), 『東史綱目』, 《附錄, 上卷, 下, 雜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6A_0420_010_0090)

139) 李肯翊(1776), 『燃藜室記述』, 《별집, 권18, 邊圉典故, 西邊, 倭國》,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0A_0570_010_0030)

山有不死藥、此乃後世之人夢也。一莖三椹、其實如火齊、其形如童子、古無人夢之名、故稱不死藥、以誑惑貪生之愚天子。140) (《孔雀館文稿, 與人》)

(7) 『열하일기(熱河日記)』

『원시비서(原始秘書)』에 이르기를, ‘고려의 학문은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학문은 서복(徐福)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베트남(安南)의 학문은, 한(漢)의 군현(郡縣) 제도를 세우고 자사(刺史)를 두어 중국의 문화를 펴서, 뒷날 오대(五代) 말 절도사(節度使) 오창문(吳昌文)의 시기에 와서야 성황을 이루었다’라고 한다.

原始秘書言、高麗之學始於箕子、日本之學始於徐福、安南之學始於漢立郡縣、而置刺史、被之以中國之文學、後至五代末、節度使吳昌文、方盛。141) (《銅蘭涉筆》)

(8) 『서계집(西溪集)』

… 한라산이 가까이 있는데 올라가 본 적이 있는가? 이곳은 진시황이 서불을 보내 선약을 쫓던 유적지라네. 산에는 명승지가 있고 기암절벽이 가관일세. …

… 漢挈近已登臨否、此秦皇帝遣徐市採藥遺處。山中諸勝、必有奇絕可觀。142) …
(《西溪先生集卷之三, 書, 答鄭濟州, 彥儒》)

18~19세기 문집에서 인용되는 서복 기사 중에 특히 이공익과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들은 저서에서 중국의 『원시비서(原始秘書)』나 『유씨홍서(劉氏鴻書)』, 혹은 일본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을 인용하여 ‘일본 학문의 시작이 서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거나 ‘서복이 일본을 열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곧 조선이 중화(中華)라는 인식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가 17~18세기 조선의 학자들에게 자리를 잡아 갔다. 특히 모든 이상적인 것을 고대에서 찾는 상고주의적(尙古主義的) 역사관을 가진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기록에 대한 엄밀한 논증보다는 이를 인용하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다.143)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박지원의 글에서 ‘서복이 찾으려 했던 불사약은 바로 인삼이며, 따라서 그가 말했던 삼신산은 바로 우리나라의 금강산, 한라산 및 지리산을 가리킨다’는 ‘혹자(或者)’의 주장

140) 朴趾源(1901), 『燕巖集』, 제3권, 《孔雀館文稿, 與人》,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68A_0030_010_0360)

141) 朴趾源(1901), 『熱河日記』, 《銅蘭涉筆》,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70A_0180_010_0020)

142) 朴泰茂(1812), 『西溪集』, 《西溪先生集卷之三, 書, 答鄭濟州, 彥儒》,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979A_0040_010_0350)

143) 전해중(1975), 「중국인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歷史의 理論과 敘述』, pp.11~15.

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복이 일본에 정착함으로써 문물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한반도와 서복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연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박태무 또한 한라산이 서복이 선약을 켜던 유적지라고 하였다. 즉 서복을 더 이상 신선사상과 불사초라는 신비스런 주제에 묶어두지 않고, 역사적 인물로 직시하여 사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 엿보인다.¹⁴⁴⁾

조선후기 많이 집필된 일본 방문기 중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海槎錄)』 및 조엄(趙暉)의 『해사일기(海槎日記)』 등에 기록된 서복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9) 『동사록(東槎錄)』

… 정오에 현방이 찾아와 담화를 나누었는데, 이어서, “서복사(徐福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해도(南海道) 키이주(紀伊州) 구마노산(熊野山) 아래에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봉(信奉)하여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고, 그 자손도 또한 그곳에 있는데, 모두 진씨(秦氏)로 일컫고 있습니다”. 또 묻기를, “서복(徐福)이 일본에 올 때에는 진시황(秦始皇)이 시서(詩書)를 불사르기 전이므로 육경(六經)의 전서(全書)가 일본에 있다 하는데 그러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일본에는 원래 문헌(文獻)이 없거니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설령 육경의 전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은 전쟁을 좋아하여 번복(翻覆)이 매우 잦아 병화(兵火)의 참혹함이 진화(秦火)보다 심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

… 午玄方來見敘話、仍問徐福祠在何處? 答曰、在南海道紀伊州熊野山下、居人至今崇奉不絕香火、其子孫亦在其地、皆稱秦氏云。又問徐福之來、在秦火之前、故六經全書在於日本云、然耶? 答曰、日本素無文獻、未之聞也。其時設或有、日本好戰、翻覆甚數、兵火之慘、甚於秦火、豈能保有至今耶? ¹⁴⁵⁾ … (《座目, 甲子歲, 10월 28일(己酉)》)

(10) 『해사록(海槎錄)』

… 신사(神社)는 굉장하고 화사하여, 금빛 푸른빛으로 빛난다. ‘천조황대신궁(天照皇大神宮)’은 그들의 시조(始祖) 여신(女神)의 것이며, ‘구마노산 권현수신(熊野山權現守神)’은 서복(徐福)이 신이며, ‘아타고산 권현수신(愛宕山權現守神)’은 신라(新羅) 사람 일라(日羅)가 신이며, 또 ‘춘일대명신(春日大明神)’,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 ‘대랑방(大郎房)과 소랑방(小郎房)’ 따위의 신들이 있다. 그들은 맹약(盟約)이나 금계(禁戒)를 할 때 반드시 이들 신을 끌어대어 맹세하며, 간혹 팔을 태우고 살을 끊으면서도 차마 파계(破戒)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천도(天道)가 두렵고 천둥 벼락이 두렵다’고 한다. …

144)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90.

145) 姜弘重(1624), 『東槎錄』, 《座目, 甲子歲, 10월 28일(己酉)》,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84A_0020_030_0270)

…神社宏侈、金碧照輝。有天照皇大神宮者、其始祖女神也、有熊野山權現守神者、徐福之神也、愛宕山權現守神者、新羅人日羅之神、又有春日大明神八幅大菩薩大郎房小郎房等神。其盟約禁戒、必引此等神以爲誓、間有燃臂斷筋而不忍破戒者、必曰畏天道畏雷霆云。146) … (《聞見雜錄》)

(11) 『해사일기(海槎日記)』

… 멀리 바라보니, 동북 사이로 산이 있는데, 우뚝 외따로 서 있는 모양이 은 투구를 산꼭대기에 덮어놓은 듯하였다. 물어보니 후지산(富士山)이라한다. 이 산은 일본의 주진(主鎮)이 되는 산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후지산, 아즈타산(熱田山) 및 구마노산(熊野山) 세 산을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한데, 후지산은 스루가주(駿河州) 지방에 있고, 구마노산은 키이주(紀伊州) 지방에 있고, 아즈타산은 미카와주(三河州) 지방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신산(三神山)이란 말은 본디 황당한데, 또 세 산이 다 일본 땅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서불(徐市)이 일본에 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선약(仙藥)을 이 섬나라 세 산에서 쟀다는 말은 또 가죽 없는 터럭 격이다. 요초(瑤草)와 기화(奇花)는 실로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금단(金丹)과 연정(鍊精)은 본래 방사(方士)의 망언이고 보면, 수(壽)를 연장하는 영약(靈藥)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인삼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삼이 생산되는 고장이므로 제주의 한라산과 고성(高城)의 금강산과 남원(南原)의 지리산을 세상에서 삼신산이라고 칭하는데, 이 말 역시 꼭 믿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만일 서불을 시켜서 영약을 구하고자 했다면 어찌 인삼이 많이 생산되는 조선을 제쳐두고 꼭 인삼이 생산되지 않는 일본으로 가게 하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일찍이 이로써 ‘삼신산이 일본에 있지 않고, 영약이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고, 서불이 일본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

… 遙望東北間有山屹然特立、而形如銀兜覆頂。問之云是富士山也。此山是日本主鎮之山。而世傳富士熱田熊野三山、謂以蓬萊方丈瀛洲、而富士山在駿河州地方、熊野山在紀伊州地方、熱田山或言在三河州地方。而三神山之說、本涉荒唐、又安知必盡在於日本地也。徐市之必來日本、既未可信、則仙藥之必採於此島三山、又是皮不存之毛也。瑤草奇花、固非人間之所有、金丹鍊精、自是方士之妄言、如求延壽之靈藥、必無過於人蔘一種耳。我國既是產蔘之鄉、濟州之漢挈、高城之金剛、南原之智異、世稱三神山、此言亦未必信矣。雖然如使徐市、欲求靈藥、則豈必捨朝鮮多產蔘之地、往日本不產蔘之邦乎。吾則嘗以此謂三山不在於日本、靈藥不產於日本、徐市不到於日本。147) … (《二月初九日, 辛卯》)

조선후기 일본 방문기에 소개된 서북 관련 기사는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북을 단순히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 동해로 나간 방사로, 그리하여 삼신산을 내세우며 신선 사상과 관련 깊은 인물로만 인식되어 오던 시각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문헌 또는 구전에만 의존한 채 서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북 관련 실제 유적 등을 확인하고 보니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146) 金世濂(1636), 『海槎錄』, 《聞見雜錄》,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87A_0030_010_0010)

147) 趙疇(1763), 『海槎日記』, 3권, 《二月初九日, 辛卯》,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97A_0040_020_0090)

이해된다.¹⁴⁸⁾

한편, 조선 후기 서북 기사가 기록된 백과전서로는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한치윤(韓致彞)의 『해동역사(海東繹史)』 및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시(詩)는 소수이며, 대부분 문(文)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백과전서의 성격을 띠는 저술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⁴⁹⁾ 성호 이익은 『사기(史記)』, 『괄지지(括地志)』, 『통전(通典)』, 『고려사(高麗史)』 「조이전(趙彝傳)」, 『동사(東史)』 및 『통고(通考)』 등 중국과 한반도의 다양한 문헌에 기록된 바에 기초하여 삼신산이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 있다는 속설을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인식이 생긴 것은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인 추연(鄒衍)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⁰⁾

(12) 『성호사설(星湖僿說)』

구양공(歐陽公)의 일본도가(日本刀歌)에 … 이는 대개 전문(傳聞)의 그릇됨이다. 우리나라 지역이 일본과 더불어 접근해 있으므로, 그 나라에서 간행된 서적은 왕왕 얻어서 본다. 진북계(陳北溪)¹⁵¹⁾의 『성리자의(性理字義)』 같은 것도 중국에서는 구득하지 못하는데 일본열도에서 구득했고, 또 우리나라의 『이상국집(李相國集)』 같은 것도 본국에서는 유실되었는데 일본에는 전해져 있다. 그러나 그 풍속이 무비(武備)를 숭상하고 문예(文藝)를 뒤로 하며, 근자에 와서는 지극히 문사(文詞)를 과장하고 자 하나 오히려 고경(古經)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만약 있다면 그들이 반드시 청구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랑삼아 전파한 지가 오래였을 것이다. …

歐陽公日本刀歌曰 … 此盖傳聞之誤也。我國壤地與日本接近、其國所行之書往往得之如、陳北溪性理字義不得於中國、而得於彼、又如我國李相國集失於本國、而傳於彼。然其俗崇武備、而後文藝、至近時極欲誇張詞藻、猶不見有古經之存焉。若或有之、則彼必不待求、而銜售者久矣。¹⁵²⁾ … (《經史門, 日本刀歌》)

동방삭(東方朔)의 『십주삼도기(十洲三島記)』에, ‘옛날 진시황(秦始皇)의 원중(苑中)에 비명으로 죽은 자가 많았는데, 까마귀처럼 생긴 새가 무슨 풀을 물어다가 죽은 자에게 덮어 놓으면 다시 살아났다. 사신을 보내어 북곽(北郭) 귀곡 선생(鬼谷先生)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그의 대답에, ‘동해(東海) 조주(祖洲)에 불사초(不死草)가 있는데 이름이 양신지(養神芝)이다, 잎은 줄 풀과 같고 짙은 떨기로 나는데 한 뿌리만 있

148)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92.

149)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100.

150) 정창원(2013),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관한 연관성 탐색」, 『역사와 실학』, 52, p.200.

151) 송대(宋代) 주자(朱子)의 문인이다.

152) 李瀾(1740), 『星湖僿說』, 26권, 《經史門, 日本刀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8A_0270_010_0620)

으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서복(徐福)을 시켜 어린 남녀 각각 3백 명씩 모아서 누선(樓船)에 싣고 조주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서복은 도사(道士)로서 자는 군방(君房)이다'라고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다. '서복(徐市)이 단주(亶洲)에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단주는 바로 손권(孫權) 때 오(吳)의 참왕(僭王)이 찾으려고 애쓰다가 끝내 발견하지 못한 곳이다'. 말이 허황된 것은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복이 가서 머물러 있던 곳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주니 단주니 한 것은 과연 어디를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다.

東方朔十洲三島記云、昔秦始皇苑中、多枉死者。有鳥如鳥狀、銜草覆、而起坐自活。遣使問北郭鬼谷先生云、東海祖洲上有不死之草、名養神芝、葉似菰苗、叢生、一本可活一人。乃使徐福發童男女各三百人、載樓舡往尋祖洲、不返。福道士、字君房。括地志、徐市居亶洲不返、亶卽孫權之訪而不得者也。其言之誕置不論、福之往留必有其地。不知祖與亶之果何指。153) (《經史門, 祖洲》)

(13)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고레이(孝靈)천황 때에 진(秦) 나라 사람 서복이 그 아들 복(福)과 함께 배를 타고 키이주(紀伊州)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복은 곧 죽고 복은 1백 80세에 죽었는데, 영이(靈異)가 많으므로, 이 나라 사람들이 타카노산(高野山) 가운데에 사당을 세워 권현수신(權現守神)으로 삼았다. ...

... 傳言孝靈時、秦人徐市、與其子福乘舟、至紀伊州止焉、國人尊敬之。市、尋死、福年 一百八十而死、多靈異、國人立祠於高野山中、爲權現守神。154) ... (《蜻蛉國志, 神佛》)

후지산(富士山)은 스루가국(駿河國)에 있는데, 봉우리가 깎아 만든 듯하고 삼면이 바다이며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고, 꼭대기에서 화연(火煙)이 난다. 서복(徐福)이 이산에 머물렀으며, 일본의 명산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富士山、在駿河國、峰如削成、三面是海、直聳屬天、頂有火烟。徐福止此山、日本之名山、無踰於此。155) (《蜻蛉國志, 與地》)

초견도인(蕉堅道人)의 이름은 중진(中津), 자(字)는 젯카이(絶海)이다.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고황제(高皇帝)가 불러서 법요(法要)를 물었는데, 주대(奏對)가 뜻에 맞으며, 구마노사당시(熊野祠詩)를 지으라고 명하니, 곧 응대하여, 구마노산 앞에는 서복 사당이 있고, 온 산의 약초가 비 끝에 우거졌네. 이제껏 바다 위 물결이 평온할 사, 좋은 바람 기다려 일찌감치 돌아가리. 황제가 화답하였다.

153) 李瀼(1740), 『星湖僊說』, 18권, 《經史門, 祖洲》,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1368A_0190_010_1120)

154)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4권, 《蜻蛉國志, 神佛》,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7A_0640_010_0070)

155)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5권, 《蜻蛉國志, 與地》,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7A_0650_010_0020)

구마노산 높은 봉에서 당신은 제사를 받고, 대대손손 자손은 번창하여 왔네.
그 옛날 서복이 선약을 구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한 채 오늘이 왔네.

蕉堅道人中津、字絕海。入大明、高皇帝召問法要、奏對稱旨、因命賦熊野祠詩、
卽對曰：熊野峰前徐福祠、滿山藥草雨餘肥。只今海上波濤穩、萬里好風須早歸。
帝賜和曰：熊野峰高血食祠、松柏琥珀也應肥。當年徐福求仙藥、直到如今更不歸。156)
(《蜻蛉國志, 神佛》)

(14) 『해동역사(海東釋史)』

관녕이야 비록 짝할 수는 없지만, 서불이야 혹 서로 맞설 만하리.
외로운 섬엔 산기운이 푸르리 있고, 외로운 노을은 광활한 하늘에 떴네.
두꺼비는 한나라 때 달과 같은데, 무지개는 진나라 때의 다리는 아니네.

管寧雖不偶、徐市儻相邀。
獨島緣空翠、孤霞上沆寥。
蟾蜍同漢月、螭螻異秦橋。157) (《藝文志9 中國詩1 顧況 送從兄使新羅》)

흥이 나면 난간에 기대어 긴 피리를 불다가, 지루하면 막대 짚고 처마 끝 따라 돈다.
우뚝 높아 서불 나라 바라볼 맘 생겨나고, 맑고 비어 무이궁서 편히 쉬는 것만 같네.
부상과 석목은 가까운 것만 같고, 방장과 영주는 찾기 쉬운 줄 알겠네.

興來倚檻吟長笛、坐久巡簷策短筇。
高絕欲窺徐市國、清虛渾憩武夷宮。
扶桑析木疑相近、方丈瀛洲信易從。158) (《藝文志10 中國詩2 登太平館樓 六十韻》)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이 말하기를, 유중달(劉仲達)의 《홍서(鴻書)》 159)에, ‘일본의 학문은 서복(徐福)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면, 일본의 학문은 대개 서복 때부터 있어 오기는 하였으나, 서복이 시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건대 정학(正學)이 실전(失傳)되지 않도록 하여 만대토록 공(功)을 끼친 자는 바로 왕인(王仁)이다.

松下見林曰、鴻書日本之學、始於徐福。餘按日本之學、蓋自徐福有之、非以福爲始也。
惟正學之不失傳、功被於萬世者、王仁也。160) (《人物考1, 王仁》)

- 156)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4권, 《蜻蛉國志, 神佛》,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577A_0640_010_0070)
- 157) 韓致齋(1814), 『海東釋史』, 50권, 《藝文志9 中國詩1 顧況 送從兄使新羅》,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520_010_0010)
- 158) 韓致齋(1814), 『海東釋史』, 51권, 《藝文志10 中國詩2 登太平館樓 六十韻》,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530_010_0010)
- 159) 명나라 만력연간에 안휘성의 劉仲達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 160) 韓致齋(1814), 『海東釋史』, 67권, 《人物考1, 王仁》,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

고려의 학문은 기자(箕子)에서 비롯되었고, 일본의 학문은 서복(徐福)에서 비롯되었으며, 베트남(安南)의 학술은 한(漢)나라에서 파견한 자사(刺史)에게서 비롯되었다. 그 뒤 수천 년 사이에 그 글이 모두 오랑캐의 풍을 면치 못해 궁색하고 비루해져서 성인의 가르침을 잇기에 부족하였다. 이는 대개 성음(聲音)이 같지 않아서인바, 그 기묘하고 그윽한 이치를 필설로는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서로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원시비서(原始祕書¹⁶¹)』

高麗之學、始於箕子、日本之學始於徐福、安南之學始於漢置刺史。其後數千年間、其文皆不免於夷狄之風、窘竭鄙陋、不足以讀聖教者。蓋其聲音不同、其奇妙幽玄之理、非筆舌之可傳故、不相合。¹⁶² 『原始祕書』 (《藝文志18, 雜綴》)

(15)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오(吳)나라가 멸망한 뒤에 그 자손이 섬(島)으로 들어가 왜국(倭國)을 세우고 태백의 후예라 자칭했다고 하였고, 《묵담(墨談)》에, ‘왜국에는 서복의 사당이 있으며, 왜황(倭皇)은 서복의 후예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왜국을 서왜(徐倭)라 부른다’하였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以爲吳亡、子孫入海爲倭、自云泰伯後、《墨談》以爲倭國有徐福祠、謂爲福後。故中國呼倭爲徐倭、皆非也。¹⁶³ (《人事篇 人事類 氏姓, 清帝倭皇姓氏辨證說》)

그 서불(徐市)의 왜국본(倭國本)이란 것도 역시 위작이다. 서불은 진(秦)나라 박사(博士)가 되어, 이사(李斯)가 선비를 묻어 죽이는 것을 보고, 바다에 들어가서 신선되는 약을 구해온다 핑계하고 고서(古書)를 모두 싣고 섬으로 가서 왜국(倭國)을 세웠으니, 오늘날의 일본(日本)이 바로 그것이다. 기자조선본과 서시왜국본을 번역한 책을 풍희(豐熙)의 증조부(曾祖父)인 하남 포정사(河南布政使) 풍경(豐慶)¹⁶⁴이 얻어서 자기 집에 간직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양영숙(歐陽永叔)의 일본도가(日本刀歌)를 상고하면, ‘서복이 떠날 때 책이 다 타지 않았으니, 일서 백 편이 지금까지 오히려 남아 있네’, 대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섭소온(葉少蘊)¹⁶⁵은 본디 의심하여, ‘경서를 위작하는 자들이 파병(櫛柄)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其曰徐市倭國本者、亦僞作。徐市爲秦博士、因李斯坑殺儒生、託言入海求仙、盡載古書至島上、立倭國、卽今日本是也。箕子朝鮮本、徐市倭國本所譯書、豐熙曾大父河南布政使慶錄得之云。然按歐陽永叔《日本刀歌》、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尙存、蓋昔時已有是說。而葉少蘊固已疑之、而爲僞作經書者之櫛柄也。¹⁶⁶ (《經史篇1 經傳類1 書經,

__1433A_0690_010_0250)

161) 원시비서는 명초의 황족인 주권(朱權)이 편찬한 소형 백과사전이다. 10권으로 507개의 분류로 나뉘어 있으며, 세상 만물을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 본원과 범인, 사물, 무소불비의 내용 중 음식, 풍속, 경제, 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용적이다.

162) 韓致禧(1814), 『海東繹史』, 59권, 《藝文志18, 雜綴》,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610_010_0010)

163)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人事類 氏姓, 清帝倭皇姓氏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20_010_0070)

164) 풍희(豐熙), 풍경(豐慶)은 명대(明代)의 정치인이다.

165) 본명은 섭몽득(葉夢得)이며, 소온(少蘊)은 자이다. 송대(宋代)의 관리이자 문학가이다.

166)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1 經傳類1 書經, 箕子朝鮮本尙書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30_030_0050)

箕子朝鮮本尙書辨證說》)

청(淸)나라 완원(阮元)¹⁶⁷의 《연경실집(攄經室集)》에 《칠경맹자고문(七經孟子考文)》은 일본(日本)의 야마노이데이(山井鼎)¹⁶⁸가 편찬한 것으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었는데, 모두 2백여 권이며, 당나라 이전의 별행본(別行本)을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 야마노이데이는 아무리 외국 오랑캐이지만 경학(經學)에 전심하였으니, 또한 가상하다. 세상에서, 일본(日本)에 선진(先秦) 시대의 고서(古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서불(徐市)에 인연해서 전해진 것이다. 야마노이데이가 선택한 것이 비록 선진 시대의 고서는 아니지만, 그것이 당나라 이전의 책이었으니, 금본(今本)의 의심스럽고 잘못된 점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

淸阮元《攄經集》、書《七經孟子考文》、日本山井鼎所撰、而收錄《四庫全書》中、共二百餘卷、而爲唐以前別行之本。…山井鼎雖爲外夷、苦心經學、亦可尙也。世傳日本有先秦古書云者、蓋緣徐市而傳疑也。山井之所撰、雖非先秦古書、然其在唐以前之本、則足可證今本之疑誤矣。¹⁶⁹ (《經史篇4 經史雜類1 經史雜說, 經史訛誤辨證說》)

나는 상고하건대, 경학(經學)에 고심하는 야마노이데이(山井鼎)는 섬 오랑캐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일본에 선진(先秦)의 고서가 있다는 것은 대개 진(秦) 나라 사람 서불(徐市)이 왜국에 들어가 머물게 된 까닭이니, 이는 구양공(歐陽公)의 일본도가(日本刀歌)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청장공(靑莊公)이 지은 《앙엽기(盎葉記)》에 이미 역대의 의심나는 것을 풀었는데, 야마노이데이의 소장은 역시 선진의 고경이 아니다.

景愚按山井鼎之苦心經學、島夷之最傑者。而日本有先秦古書云者、蓋緣秦徐市之入海、止于倭也、歐陽公《日本刀歌》作俑。我王考靑莊公、於所撰《盎葉記》、已破歷代傳疑、而山井鼎之所藏、亦非先秦古經也。¹⁷⁰ (《經史篇1 經傳類1 經傳總說, 日本山井鼎七經孟子考文辨證說》)

이상과 같이, 18~19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백과전서의 저술에도 서복 관련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시(詩)로 인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서복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한·일의 사서를 두루 섭렵하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진위 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 백과전서에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논증이 가장 많이 언급되며 서복을 인용하고 있다. 첫째는 구양수(歐陽脩)의 일본도가에 실린 서복 일본 도래의 시점과 관련하여 일서백편(逸書百篇)의 존재 여부의 규명이다. 둘째는 진시황 때 동해로 나간 서복과 한중(韓終)이 각각 일본과 삼한의 시초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167) 완원(1764~1849년)은 병부시랑 등의 관직을 역임한 청나라의 관리이다.

168) 야마노이데이(山井鼎, ?~1728)이 본명이며 일본 에도시대 유학자로 고증학의 일인자이다.

169)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4 經史雜類1 經史雜說, 經史訛誤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130_010_0010)

170)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1 經傳類1 經傳總說, 日本山井鼎七經孟子考文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30_010_0030)

논증이다. 셋째는 일본 학문의 시작을 서복으로 볼 것인가, 백제의 왕인(王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증이다. 조선시대 옛 선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서복에 대한 인식이 깊었고,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적 시각으로 서복을 조명해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에게 서복은 더 이상 전설상의 인물로, 불사초와 관련한 시(詩)에서 간혹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서복을 사적 고찰의 대상으로 놓고 사서를 뒤지며 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깊은 연구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서복 연구가 오히려 조선 후기보다 훨씬 못하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¹⁷¹⁾

171)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記錄’ 연구」, 『민족문화』, 48, pp.104~107.

제4장 일본의 고문헌 속 서복 기록

서복이 떠나고 진시황이 서거한 지 800여 년이 지난 서기 600년, 중원을 통일한 수(隋)나라 문제(文帝)에게 왜국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이들은 이전의 한(漢), 위진(魏晉) 및 유송(劉宋) 등과 교류하던 왜국이 보낸 견수사(遣隋使)이다. 양제(煬帝)가 즉위한 후에도 왜국이 사자를 계속 보내자, 양제는 수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왜국에 답례 형식의 사자를 보내어 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답례사자가 된 배세청(裴世清) 일행은 608년 산둥 반도 연해에서 배에 올라 백제를 경유하여 왜국으로 향한다. 배세청 일행은 죽도(竹島), 대마도(對馬島), 일지국(一支國), 죽사국(竹斯國)을 거쳐 단사주(團舍舟)로 상륙하여 동쪽으로 가면서 진왕국(秦王國)을 비롯한 10여 개의 속국을 거쳐 같은 해 8월 당시의 수도인 나라(奈良)에 도착했다. 도중에 진왕국에 다다른 배세청은 그곳 주민들이 중국말을 하고,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란 나머지 “이곳이 옛 기록에서 말하는 이주(夷洲)가 아닌가하고 의심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옛 문헌에 진나라 사람 서복이 이주했다고 전해지던 이주(夷洲)와 배세청이 경유한 진왕국을 혼동하면서 서복은 한반도 혹은 왜국과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한다. 단지 배세청 일행이 잠시 들렀던 진왕국(秦王國)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경유한 진한(辰韓)에 이주해서 살던 진(秦)나라계 이주민 집단을 보고 배세청이 혼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수서(隋書)』 81권 《東夷, 倭傳》 172)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흥하던 시점에 왜국은 일본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일본은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여 당나라의 선진문명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당시 편찬한 많은 사서(史書)에서도 이 시기에 일본이 편찬한 『고사기(古事記)』나 『일

172) 魏徵(636),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倭國》,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이듬해(608) 양제가 문림랑(文林郎) 배청(裴清)을 왜에 사신으로 보냈다. 백제를 지나 죽도(竹島)에 이르러 남쪽으로 열라국(冉羅國)을 바라보면서 큰 바다에 있는 도사마국(都斯麻國)을 지났다. 큰바다를 건너 동쪽 일지국(一支國)에 이르고 또 죽사국(竹斯國)에 다다랐고 또 동쪽으로 가서 진왕국(秦王國)에 이르러 보니 그곳 사람들은 지나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그곳을 이주(夷洲)라고 불렀는데 의심은 가지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 또 열나라 남짓 지나서 (왜가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다. 죽사국(竹斯國)에서부터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왜(倭)를 섬긴다. … (明年(大業四年)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度百濟行至竹島、南望冉羅國經都斯麻國、迥在大海中。又東至一支國、又至竹斯國、又東至秦王國、其人同於華夏。以爲夷洲疑不能明也。又經十餘國達於海岸。自竹斯國以東皆附庸於倭。…)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584840#%E5%80%AD%E5%9C%8B>)

본서기(日本書紀)』에도 서복이 왜국에 도래하여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중국에서는 서복을 동도(東渡)에 관한 사서 기록을 배경으로 한대(漢代)로부터 2,000여 년간 전해져 온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서복이 문자 기록뿐 아니라 다수의 유적과 유물을 수반하는 신격화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서복 동도에 관한 문헌 기록은 중국보다도 훨씬 늦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복 동도의 종착지가 일본이라는 전설은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앞서서 민간에 전해졌다. 많은 전설과 기록들이 일본열도 각지에 널리 퍼져서, 언제부터 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에는 중국 문헌에서 볼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기록과 전설 이외에도 일본열도 각지에는 서복 사당, 서복 묘, 서복암 등 서복과 관련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만의 유명한 서복 연구자인 평쌍송(彭双松)은 여러 차례 일본 현지답사를 통하여 현재 일본열도에는 서복 관련 역사유적 56곳, 역사전설 32건 그리고 서복 관련 상륙지가 20여 곳 전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인들의 서복신앙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³⁾

제1절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 이전

일본의 사서를 보면 진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온 씨족을 진씨(秦氏)라고 한다. 815년에 편찬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¹⁷⁴⁾에는 ‘진시황의 후손인 궁월군(弓月君)이 127현의 백성을 이끌고 도래 귀화하였다’¹⁷⁵⁾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이 진씨의 조상이라는 기록은 없다. 또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¹⁷⁶⁾에 따르면 오우진

173)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53.

(除了神廟和傳說、日本各地還分布着大量有關徐福的歷史遺迹、像徐福祠、徐福墓、徐福岩等不胜枚舉。据中國台灣著名徐福研究專彭双松在日本的實地考察、目前日本共發現有關徐福的歷史遺迹56處、尋訪到有關徐福的歷史傳說32項、有關徐福的登陸地点20余處。這些遺迹与傳說反映了日本徐福信仰的广泛性。)

174) 헤이안 시대 초기인 815년(고닌 6년)에 사가 천황의 명령에 따라 편찬된 일본 고대 씨족의 일람서이다.

175) 『新撰姓氏錄』, 氏族一覽3, 《第三帙·諸蕃·未定雜姓》, 新撰姓氏錄氏族一覽 DB (秦始皇帝之後也。功智王。弓月王。譽田天皇[諡応神。十四年來朝。上表更歸國。率百廿七縣伯姓歸化。并獻金銀玉帛種々宝物等。天皇嘉之。賜大和朝津間腋上地居之焉。男眞德王。次普洞王。)
(<http://kitagawa.la.coocan.jp/data/shoji.html>)

176) 헤이안(平安)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로 육국사(六國史)의 여섯 번째에 해당된다.

(応神) 천황 14년에 귀화한 진시황제의 12세손을 공만왕(功滿王)이라 하며, 그의 아들인 궁월군은 13세손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⁷⁷⁾ 그러나 이들 귀화한 진나라 사람들을 서복과 연결시키는 기록은 일본에 존재하는 어떤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서복 관련 기록은 일본 최고(最古)의 문헌인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보이지 않고, 그 후의 『속일본기(續日本紀)』를 비롯한 『일본후기(日本後記)』,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덕천황실록(文德天皇實錄)』 및 『삼대실록(三代實錄)』 등 이른바 6국사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⁷⁸⁾

한편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포함한 백거이의 시는 일본 귀족사회에 크게 유행하여 일본의 고대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0세기 말(헤이안시대 후기, 980년경)의 『우츠호이야기(宇津保物語)』와 11세기 초에 궁중시녀였던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가 쓴 장편소설인 『겐지이야기(源氏物語)』에 서복이 일본의 문학작품에 처음 등장하는데, 백거이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인용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 이 시기에 서복 이야기는 가명문학(假名文學)¹⁷⁹⁾에까지 널리 침투했음을 엿볼 수 있다.¹⁸⁰⁾ 에도시대 이전의 서복 기록인 『우츠호이야기』, 『겐지이야기』, 『당경(唐鏡)』,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삼국전기(三國傳記)』, 「서복사헌향시(徐福祠獻香詩)」, 『태평기(太平記)』, 『동해경화집(東海瓊華集)』 및 『중화약목시초(中華若木詩抄)』 등을 살펴보자.

(1) 『우츠호이야기(宇津保物語, うつほものがたり)』 181)

『우츠호이야기(宇津保物語)』는 덴무(天武)천황의 자손인 기요하라노토시카게(清原俊陰)가 견당사로 가는 도중에 난과되어 표류하게 된 페르시아에서 23년 동안 거문고 연주법을 배운 후 귀국하여 자신의 딸과 외손자 나카타다(仲忠)에게 거문고를

177) 『日本三代實錄』, 《卷四十四元慶七年(八八三)十二月廿五日丁巳》, 朝日新聞本 DB (秦始皇帝十二世孫、功滿王子、融通王之苗裔也。功滿占星之意、深向聖朝、化風之志、遠企日域。而新羅遼路、隔彼來王、遂使衛足之草、空空无仰陽之心。) (<http://www.kikuchi2.com/chuko/sandai.html>)

178) 土橋壽(2012), 「富士山と徐福, その諸相」, 『徐福フォーラム in 神奈川 2012 資料集』, p.32.

179) 가명(假名)이란 일본인이 발명해 쓰고 있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의 가나와 만요가나(萬葉假名)를 말하는데 가명문학이란 이들 문자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일컫는다.

180) 袴田光康(2017), 「徐福渡來伝承をめぐる斷章：寛輔のこと」, 『翻譯の文化』, 12, p.74. (10世紀の『うつほ物語』や11世紀初頭の『源氏物語』にも徐福伝承を描いた白居易の「海漫漫」を引用する形で表現されており、仮名文學にまで廣く浸透していたことが窺われる。)

181) 헤이안시대 중기에 쓰여진 장편소설로 전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불분명하나 학자 겸 가인(歌人)이었던 미나모토노시타고(源順)이라고도 한다.

전수한다는 내용의 장편소설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딸과 손자 3대가 거문고를 주제로 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서복은 이 작품의 초가을(初秋) 편에 등장인물인 제(帝)와 나카타다(中忠)의 희롱 장면에서 등장한다.

제(帝) : 거문고의 가락을 지난번과 똑같이 연주해 보거라.

나카타다(中忠) : 봉래산이나 악마의 나라로 가라고 하신다면...

제(帝) : 둘도 없는 척사라. 그렇다고 지금 봉래산으로 불사약을 캐러 건너가리라니, 동남동녀들 그 심부름을 떠나서 배 안에서 늙고, 섬이 떠오르더라도 봉래를 보지 않으면 탄식하고...

帝 : 琴の調子を、前回とまったく同じように弾きなさい

仲忠 : 蓬萊山や惡魔の國へ行けと仰せられるならば・・

帝 : 二無き勅使かな。さりとも、今蓬萊の山へ不死藥を採りに渡らんとは、童男艸女だに、その使いに立ちて、船の中にて老い、島の浮かべども蓬萊を見ずとこそなげきためれ・・182) (《内侍のかみ》)

『우즈호 이야기』는 창작 당시는 명성을 떨쳤지만, 인기는 아주 짧았던 것 같다. 그것은 독자층인 상류층의 부인들이 사건이나 인물에만 매달려,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거문고의 음악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2) 『겐지이야기(源氏物語, げんじものがたり)』 183)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의 여류 소설가인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의 장편소설인 『겐지이야기(源氏物語)』의 ‘나비(胡蝶) 편’에 서복이 등장한다. 즉, 겐지(源氏)가 연못가에 젊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빗놀이를 하는 장면에서다. 시키키부는 여인 중의 한 사람이 서복을 노래하게 하고 있다.

거북 위의 산에도 찾아가지 않고 배 안에 늙지 않은 이름만이라도 여기에 남겼으니 거북 위에 오르는 봉래산까지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요. 이 배에서 오래 살더라도 불로의 이름을 후세에 남깁시다.

龜の上の山もたづねず、船のうちに老いせぬ名をばここに殘さん龜の上に載る蓬萊山まで、わざわざ訪ねて行くことはないでしょう。この舟の中で、長生きをしても不老の名

182) 土橋壽(2012), 「富士山と徐福 その諸相」, 『徐福フォーラム in 神奈川 2012 資料集』, p.33.

183) 헤이안 시대 중기에 쓰여진 일본의 장편소설이다. 1008년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키부의 생애 유일한 작품이다. 주인공 히카루겐지를 통해 연애, 영광과 몰락, 정치적 욕망과 권력투쟁 등 헤이안시대 귀족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を後世に残しましょう。184)

여기서 ‘거북 위의 산’은 『열자(列子)』를 출처로 하는 봉래산이고 ‘배 안에 늪지는 앓는다’는 구절은 백거이(白居易)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인용한 것이다. 이들 작품 이외에도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와 『겐페이성쇠기(源平盛衰記)』 등에도 백거이(白居易)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내용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복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양으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당경(唐鏡, からかがみ)』 185)

서복 일행이 정착한 평원광택은 일본이 아니라 신라국(新羅國)이라며 서복의 한반도 도래를 단언한 후지와라시게노리(藤原茂範)의 『당경(唐鏡, 1296년 발행)』의 기록도 살펴보자.

진시황은 ... 18년 ... 또 동남녀 수천 명에게 물건을 들게 하여, 서복과 함께 동해로 들여보내 봉래산의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동남녀란 어린남자와 여자아이를 말한다. 서복은 바다를 지나 평원광택이라는 곳에 머물며 왕이 되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신라국(新羅國)이 바로 이곳이다. 진시황은 고사(稿祠, 신선이 틈)를 재계하고 사수(泗水)에 머무르며 수십 명을 바다에 들여보내 (불사초를) 구해 오도록 하였는데 구하지 못하였다. 구하려고 은 천하를 찾아다녔어도 구하지 못하였다.

秦始皇は ... 十八年、... 又、童男女數千人にもものをもたせて、徐福に相くして、東海へつかはて、蓬萊不死の薬をもとめしむ。童男女といふは、おさなき童、又女也、徐福、海をすきて、平原廣澤といふ所にとまりね、それにて王となりて、あへてみやこへかへらす。新羅國と申すは、この所なり。始皇、齋戒稿祠して、泗水にをちゃりし周の開をいたさんとて數十人を水にいれて、もとめしむれとも、さらにみえず、九年に博狼沙中といふ所にて、のためにおとろかせ給ふ天下大にあなくりもとむれとも、得さりき。186) (卷2 「求蓬萊事」)

『당경』은 중국 통사를 편년체 형태로 기록한 번역 설화집으로, 서복과 신라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전거(典據)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신라국을 서복의 목적지로 인정한 기록은 『당경』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어느 문헌에서도 찾

184) 土橋壽(2012), 「富士山と徐福 その諸相」, 『徐福フォーラム in 神奈川 2012 資料集』, p.33.

185) 중국의 통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설화집이다. 『본조 서적 목록(本朝書籍目録)』 가명부(仮名部)에 따르면 후지와라 시게노리가 저자이다. 현존하는 것은 6권이나 원래는 10권이었다고 전한다.

186) 藤原茂範(1966), 『(松平文庫本)唐鏡』, 廣島中世文芸研究會, p.57.

아볼 수 없다.¹⁸⁷⁾

서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서복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고 몇몇 전승에 단편적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서복과 일본이 명확하게 연결되는 것은 의초(義楚)의 『의초육첩(義楚六帖)』 부터이다. 이 저술에서 드디어 서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나타난다. 게다가 봉래(蓬萊)는 후지산(富士山)이고 서복의 자손은 진씨(秦氏)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초는 일본의 고승 칸호(寬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고 있다. 이 이야기를 칸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유행하던 당시의 서복 이야기를 단순하게 의초에게 전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의초육첩』의 기록이 바탕이 되어 중국과 일본 각지에서 서복 이야기가 새롭게 생겨나고 각색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じんのうしょうとうき)』 188)

14세기 초반까지 서복 일행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다. 다만 1343년에 기타바타케치카후사(北畠親房)가 고무라카미(後村上) 천황에게 제왕학(帝王學)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신황정통기』에서 구양수(歐陽脩)의 『일본도가(日本刀歌)』를 인용하여 분서갱유(焚書坑儒) 이전의 중국 서적이 일본에 건너왔다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45년 을묘, 진의 시황제가 즉위한다. 진시황은 신선을 좋아하고 장생불사의 약을 일본에서 구하려 했다. 일본에서 오제삼왕의 유서(고전)를 요구했는데 시황제는 이를 모두 보내왔다.

四十五年乙卯、秦始皇即位。始皇好神仙、求長生不死之藥於日本。日本欲得彼國之五帝三王遺書、始皇乃悉送之。¹⁸⁹⁾

이 서적은 1339년에 편찬되었는데 서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사기』

187) 達志保(207), 「誰が徐福傳説を語るのか」, 『瀛洲徐福』, 1, p.409.

(『唐鏡』は中國史を記した譯說話集で新羅國との關連についても典據となる作品があったと思われるが新羅國を徐福の行き着く先としたものはその後近代までみ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

188) 일본의 남북조시대, 남조공경(南朝公卿)인 기타바타케치카후사(北畠親房)가 지은 역사서이다. 진다이(神代)부터 연원(延元) 4년(랴쿠오(曆應) 2년) 8월 15일(1339년 9월 18일)의 고무라카미천황(後村上天皇)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89) 北畠親房 著, 남기학 역(2008), 『神皇正統記』, 소명출판, p.67.

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45년 을묘년(B.C. 219)은 진시황이 서복을 1차로 동해로 들
여보낸 해임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일본 최초의 서복동도에 관한 문자기록이며,
일본 내에서 서복의 전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기록이다. 치카후사는 일본에서 서
복동도일본(徐福東渡日本)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므로, 일본의 서복사
적 전승에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⁹⁰⁾ 치카후사는 가마쿠라(鎌倉)시대 말기에 고다
이고(後醍醐)천황을 모시고 남북조의 동란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대일본은 신국
이다’라거나 ‘천지개벽 이래 황통은 불가침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단순한 국수주의자
나 남조숭배주의자(南朝崇拜主義者)는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제왕이 덕을 닦지 않으면
제위는 다른 황통으로 넘어간다’라고 주장하였다.

(5) 『삼국전기(三國傳記, さんごくでんき)』¹⁹¹⁾

무로마치(室町) 시대(1338~1573년) 천태종의 승려 켄도(玄棟)는 인도, 중국 및 일
본의 불교관련 설화를 모아 엮은 『삼국전기(三國傳記)』에 서복 관련 기록을 남긴
다.

봉래산이 후지산이다. 서복은 이곳에 은거하였는데 그 자손이 진씨(秦氏)이다.

蓬萊者、富士山也。徐福隱居於此、其子孫爲秦氏。¹⁹²⁾

설화의 내용은 의초(義楚)의 『의초육첩』을 참고한 듯한데,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
에서 망명한 한수랑(漢守郎)이 『삼국전기』의 중국 불교설화를 말아서 편집하였다
고 전해진다.

(6) 「서복사헌향시(徐福祠獻香詩, じょふくほこらけんこし)」

남송(南宋)이 멸망한 해인 1279년, 임제종(臨濟宗) 승려인 무학조원(無學祖元,

190) 張良群(2007), 「東亞的徐福研究」, 『中外徐福研究』, p.14.

(因此、這是日本最早的關於徐福東渡的文字記載、亦是日本國內第一次公開承認徐福傳說。北島親房
應是日本記載徐福東渡的第一人、在日本的徐福事迹傳承中功不可沒。)

191) 무로마치시대에 쓰여진 설화집으로 대부분 인도, 중국 및 일본의 불교설화를 모아 만들었다.

192) 玄棟(1407)著, 名古屋三國伝記研究會編(1982), 『三國伝記平仮名本』, 古典文庫, 上册, p.52.

1226~1286년)은 가마쿠라 막부의 호조도키무네(北條時宗)의 초청에 따라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리고 전년에 입적한 난계도룡(蘭溪道隆)을 대신해 가마쿠라(鎌倉)에서 건장사(建長寺)의 주지가 된다. 1281년 무학조원은 키이주(紀伊州)의 구마노신궁(熊野新宮)을 방문하여 「서복사헌향시(徐福祠獻香詩)」를 남겼다고 한다.

선생이 약초를 캐러 왔다가 안 돌아오는 사이에, 고국산천은 몇 번이고 변하였답니다. 오늘 영전에 바칠 향을 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노승 또한 진(원나라)나라를 피해 온 것입니다.

先生採藥未曾回、故國山河幾度埃。
今日日香聊遠寄、老僧亦爲避秦來。 193)

무학조원은 서복이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러 왔으나 자신은 진나라가 아닌 원나라를 피해 일본으로 온 망명자인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 무렵 구마노에 있는 서복사당의 존재는 중국에도 잘 알려진 것 같다. 더불어 일본인들은 서복이 한방초약(漢方草藥)과 농업기술을 일본에 전래한 것으로 믿게 된다.¹⁹⁴⁾ 현재 무학조원의 시가 새겨진 비석은 신구시(新宮市)의 서복공원 바로 북쪽, 구마노강 하구부에 접한 아스카신사에 세워져 있다. 구마노에는 서복이 이곳으로 상륙했다는 전설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7) 『태평기(太平記, たいへいき)』 195)

14세기 후반 남북조(南北朝)시대의 승려인 고지마(小島)법사가 편찬한 『태평기(太平記)』에도 서복동도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시황제가) 거처가 높고 즐거웠으나 생명에 한이 있어 밤낮으로 봉래불사의 약을 구하여 천추만세의 보물을 보존하고 있다. 도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서복(徐福)이며, 문성(한무제 시대의 방사 이소옹(李少翁)으로 후에 문선장군이 됨)이 내표하여 “제가 불사약을 구하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무제는 무한히 기뻐하였다. 먼저 그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큰 녹을 주었더니, 얼마 후 임피가 요구하여 나이가 겨우 열다섯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남녀 육천 ... 봉래의 섬을 구하였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아득하며 끝도 없다네. ...

193) 吳衛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62.

194) 吳衛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63.

195) 『태평기(太平記)』는 일본 고전문학의 하나이다. 전40권. 일본 남북조 시대를 무대로 약 50년 간의 군기(軍記) 이야기를 그렸다.

(始皇帝)其居所高大、雖極其歡樂、但嘆生命有限、日夜思念如何求蓬萊不死之藥、以保千秋萬歲之寶。有道士名叫徐福、文成(指漢武帝時代的方士李少翁、後爲文成將軍)者來稟、言我知求不死藥之術、帝無限喜悅。先授彼大官、賜予大祿、不久、任彼要求、集年不過十五歲童男女六千 … 求蓬萊之島。海漫漫無邊。196) … (제36권, 《妙吉侍事者》)

이 기록을 살펴보면 사마천의 『사기』와 백거이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엮어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만 서복을 동행한 동남동녀가 모두 15세 이하이며, 그 수가 6,000명이라고 한 것은 『사기(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하되 내용은 연역(演繹)한 것으로 추정된다.197)

(8) 『동해경화집(東海瓊華集,とうかいけいかしゅう)』

무로마치(室町) 시대 중기의 임제종(臨濟宗) 승려로 오산문학(五山文學)의 시문에 뛰어났던 이쇼오토쿠간(惟肖得巖)도 1395년 편찬한 그의 저서 『동해경화집』에서 서복동도(徐福東渡)에 대해 언급하였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서복(徐市)이 시황제(始皇帝)께 상소하여 동남동녀 백 명과 바다에 들어가 삼신산(三神山)의 불사약(不死藥)을 구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러나 섬을 얻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가 비주(尾州)의 아즈다신사(熱田神祠)를 참배하고 있는 것이다.

世傳、徐市上書始皇、請與童男女百人入海、求三神山不死藥。而得海島、遂留不還。即我朝尾州熱田神祠也。

의초(義楚)는 서복이 정착한 곳을 후지산(富士山)으로 보는 반면, 이쇼오토쿠간은 서복이 아즈다(熱田)신사에 정착하였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 ‘아즈다신사정착설’의 제기는 그가 살던 가마쿠라(鎌倉)와 교토오사카지역(京阪地區)의 전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198) 14세기에 들어서자 민간에서는 서복 이야기가 구체화, 형상화하여 점차 서복신앙(徐福信仰)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55.

197)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p.155~156.

(從這段記載不難看出、作者採納了『史記』和白居易詩歌中的觀點、并以此爲基礎編造了熱鬧精彩的故事。只不過、對於文中作者說徐福所帶童男女均在15歲以下、而且數量是6000人、可能是根據『史記』演繹而來。)

198)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p.156.

(五代後周的義楚認爲徐福的所到之處是富士山、而在此作者又明確地提出熱田說。惟肖的‘尾州熱田神宮說’的提出、證明這與他曾經住過的鎌倉、京阪地區的傳說不是沒有關係的。)

(9) 『중화약목시초(中華若木詩抄, ちゅうかじゃくぼくししょう)』 199)

노게츠주인(如月壽印)이 당(唐), 송(宋) 및 원(元)대의 중국시와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일본의 한시를 모아 엮은 『중화약목시초(中華若木詩抄, 1633년 출간)』에는 홍무 9년(1376년)에 일본의 임제승(臨濟僧) 제카이추신(絶海中津, 1336~1405)²⁰⁰이 명 태조를 알현한 후 주고받은 서복의 옛 사당에 대한 시가 전한다. 당시 중국에도 구마노에 서복 사당이 있는 것이 잘 알려진 듯하다. 이 시는 조선 시대 문인들의 문집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제카이추신(絶海中津) :

구마노산 앞에는 서복 사당이 있고, 온 산의 약초가 비 끝에 우거졌네.
이제껏 바다 위 물결이 평온할 사, 좋은 바람 기다려 일찌감치 돌아가리.

熊野峰前徐福祠、満山薬草雨餘肥。只今海上波濤穩、萬里好風須早歸。

주원장(朱元璋) :

구마노산 높은 봉에서 당신은 제사를 받고, 대대손손 자손은 번창하여 왔네.
그 옛날 서복이 선약을 구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한 채 오늘이 왔네.

熊野峰高血食祠、松柏琥珀也應肥。當年徐福求仙藥、直到如今更不歸。²⁰¹

일본의 한시(漢詩)에서 서복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오산문학(五山文學)²⁰²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제카이추신의 이시는 서복을 소재로 하는 오산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⁰³ 그런데 이시는 『명사(明史)』 《태조본기(太祖本紀)》나 《일본전》 등의 사서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여러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다. 10세기까지는 기록이 전혀 없던 구마노의 서복 사당은 북송무역과 남송 망명자들의 영향으로 13세기 말경에 만들어 지면서 중국에서 온 망명자들의 마음의

199) 중국인과 일본인의 칠언절구를 모아 주석한 시집이다. 261수(일본인 130, 중국인 131)가 실려 있는데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일본 선승의 시가 모아졌으며 중국 시인은 당나라 송원, 그리고 명나라 시가 모아져 있다.

200) 무로마치 초기 임제종 몽창파(夢窓派)의 승려로 오산학예의 대표적 인물이다. 기도슈신(義堂周信)과 더불어 오산학예의 쌍벽(雙壁)이라 불리며 오산문학의 기초를 닦았다.

201) 如月壽印(1633), 『中華若木詩抄寛永十年版』, 《國立國語研究所database》, 中卷, pp.18~22. (<https://dglb01.ninjal.ac.jp/ninjaldb/bunken.php?title=zyakuboku>)

202) 오산문학은 가마쿠라시대 말부터 무로마치시대, 즉 14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마쿠라(鎌倉, 현재의 가나가와현)와 교토(京都)의 5개 선종의 승려들이 작성한 한시문(漢詩文)이다.

203) 柴田清繼(2010), 「日本古典文學に見る徐福、絶海中津「応制賦三山」詩と五山文學」, 『中外徐福研究』, 2, p.374.

지주가 되었다.

제2절 에도시대(江戸時代) 이후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까지인 15~16세기에는 일본열도의 문헌에 서복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에도(江戸)시대(1603~1868년)는 서복 이야기의 전성시대였다. 서복 이야기는 지방의 전설일 뿐 아니라 에도시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소재였다. 이들이 서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국의 전적(典籍) 및 문화가 많이 유입되면서 다원적인 사상기후(思想氣候)가 형성되었고, 또한 출판업이 번창하고 국내 교통이 개선되면서 서복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에도시대는 사학(史學)에 관심이 지대하여 막부(幕府)와 지방 번속(藩屬)은 물론 사가(私家)들까지 국사(國史) 편찬에 열중하여 일본 고대의 중국 이민에 대해 논할 때는 서복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지 않았다. 더불어 에도시대에는 위작(僞作)도 많이 나타났는데, 많은 문헌과 예술품 및 유적을 위조하여 정치, 종교 및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였다.²⁰⁴⁾ 특히 이 시기 서복에 관한 기록은 중국사서의 기록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전통 신도(神道)와 결합되어 서복이 민간의 신앙숭배 대상이 됨으로서 민간에서는 서복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는 하야시라잔(林羅山)을 시작으로 마즈시타켄린(松下見林), 아라이하쿠세키(新井白石) 및 다키자와바킨(瀧澤馬琴) 등이 활동하였는데, 각각의 문집에서 서복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일 고문헌에 정통한 학자였던 교토(京都) 출신의 하야시라잔(1583~1657년)의 『나산문집(羅山文集)』, 기록을 시작으로 마즈시타켄린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아라이하쿠세키의 『동문통고(同文通考)』 및 다키자와바킨의 『현동방언(玄同放言)』 등의 서복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204) 吳衛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64.

(德川時代是徐福傳說的全盛期。徐福不但是地方傳說、也是德川學者之間的熱門題材。他們對徐福產生興趣主要有以下三大原因：第一、德川是中日文化交流及日本思想的高峰、隨着中國典籍及文化的大量輸入、形成了活潑多元的思想氣候、加上出版業興隆、國內交通又有改善、德川著作中有關徐福的文字遂不斷增加。不同的思想及宗教派系互相競爭、有關徐福的論述於是成爲德川思想界的文字戰線。第二、德川爲史學盛世、幕府、地方藩屬及私人均熱衷編撰國史。史家討論日本古代史有關中國移民時、對於徐福難以避而不談。第三、德川多造僞活動、僞作出大量書籍、藝術品、遺跡、以遂其政治、宗教或文化的目的。)

(1) 『나산문집(羅山文集, らざんぶんしゅう)』

서복이 일본에 온 것은 분서갱유 6~7년 전의 일이다. 고대문자(蝌蚪文)로 쓴 죽간을 가져왔으나 당시 사람치고 아는 사람은 적었다. 그 후 세상의 병화에서 분실되어 전승되고 있다고는 듣지 못한다. 아, 안타까운 일이다.

徐福之來日本、在焚書坑儒之前六七年矣。提蝌蚪、篆蘆葦、漆竹牒、時人知者鮮矣。其後、世世兵燹、紛失亂墜、未聞其傳。嗚呼 惜哉。205)

하야시라잔은 서복이 일본에 왔을 때 많은 문헌을 가지고 있었다고 굳게 믿으며, 지금 이 문헌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전해진지 오래되고 난리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2)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いしゅうにほんでん』 206)

일본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국학자인 마츠시타켄린(1637~1703년)은 역사연구서인 『이칭일본전』에서 서복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와 기록을 남긴다. 그 기록을 보자.

이주와 단주는 일본의 섬으로 불리며 키이국(紀伊國) 구마노산(熊野山) 아래에 있는 아스카(飛島)에 서복묘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 구마노, 신구 동남쪽에 봉래산이 있고, 산에는 서복사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 구양수는 「일본도가」에서 ‘서복이 동도할 때에는 분서가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서 백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유씨207)는 《원시비서(原始祕書)》를 인용, ‘일본의 문학은 서복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덕은 가히 칭할 수 있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夷洲、亶洲皆稱日本海島、相傳紀伊國熊野山下飛島之地有徐福墳。又曰、熊野、新宮東南有蓬萊山、山有徐福祠。...或曰：陽永叔「日本刀歌」曰：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猶存。劉氏引『原始祕書』曰：日本之學始於徐福。然則其德可稱之、而爲始我則不信也。208)

마츠시타켄린은 서복동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후한서·왜전』과 『삼국지·오주전』 등 중국 사적에 실린 서복에 관한 기록도 동의하며, 이주와 단주가 일본의 어느 지방이라는 견해에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주의 이름은 일본의 고

205) 林羅山(1979), 『林羅山文集』, ぺりかん社, p.156.

206) 겐로쿠(元祿) 원년(1688년) 에도시대의 마쓰시타 켄린이 쓴 역사 연구서이다. 상권 3권, 중권 8권, 하권 4권으로 30년에 걸쳐 중국과 한반도의 총 126종류의 책 중에서 일본 관련 기사를 뽑아 내 의문과 비판을 가하여 편찬하였다.

207) 명나라 만력연간 『劉氏鴻書』를 편찬한 유중달(劉仲達)을 말한다.

208) 張良群(2007), 『中外徐福研究』, 中國科學院出版社, pp.14~15.

대 문헌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주도가 단주이며 당시에는 제주도가 일본에 속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즉 일본의 고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옛 이름은 ‘탐부라(耽夫羅) 혹은 탐라(耽羅)’인데 단주(亶州)의 ‘亶’자의 발음이 ‘tan’이 탐라의 ‘tam’과 비슷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²⁰⁹⁾ 그러나 그는 서북이 일본 건국자라는 논리는 완강히 부인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다만 명나라의 주권(朱權)이 저술한 『원시비서(原始祕書)』를 인용하여 ‘일본의 문학은 서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한 그는 서북이 진나라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배경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로부터 서북의 동도 일본은 일본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²¹⁰⁾

(3) 『동문통고(同文通考, どうぶんつうこう)』²¹¹⁾

동시대의 또 다른 역사가이며 막부의 가신이었던 아라이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년)가 편찬한 어학서(語學書)인 『동문통고』에도 ‘구마노에 서복사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시대에 이르러 서복 도래 이야기는 일본에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록을 보자.

지금의 구마노 부근에는 진주(秦住)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서북이 살던 곳으로 전해진다. 이로부터 7~8리 떨어진 곳에 서복사(徐福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고분이 여러 기가 있으며 서북의 가신 무덤(塚)으로 전해진다. 이 옛 자취가 지금도 전해지고 진나라 성이 제씨(諸氏)로 남아 있으니, 진나라 사람의 왕래가 필연적인 일이다.

209) 蓮沼啓介(2005), 「異称日本伝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54, pp.330~333.
(遼東に出て朝鮮半島を支配した公孫氏と畫策して魏を挟み撃ちにする策略を抱いていた公算が大きい。濟州島に在った徐福の國をまず服屬させることが、この策略を實行に移す要であったに違いない。…濟州島は亡命者となった徐福にとって亡命先にふさわしい目標の島であり新天地を開拓するのに理想の島であった模様である。…實は濟州島の名は日本の古書にも見える。「枕弥多礼」が「耽夫羅」の古名である。トムタレが古訓であるが高い tam山 tan という意味と言う。ひょっとすると富み足りるという倭語に始まる天然資源に恵まれた富み足りた島という意味の地名であるのかも知れない。)

210) 張良群(2007), 『中外徐福研究』, 중국과학기술대학출판사, p.15.
(松下見林不但肯定了徐福“止王不來”之夷洲、澶洲是日本列島、而且具体指明了熊野徐福墓、祠的位置、同時申明存在“日本之學始于徐福”之說。這說明《异称日本傳》承認徐福在日本傳播秦文化的功績、并給予很高的評價。從而、徐福東渡之傳説也信爲史實了。)

211) 에도시대 중기(1711-1716년)에 아라이하쿠세키(新井白石)가 지은 어학서로 4권 4책으로 이루어졌다. 1760년에 간행되었다. 한자(漢字), 신대문자(神代文字), 가명(假名) 및 국자(國字) 등 일본과 중국의 각종 문자의 기원과 연혁 등에 대해 개략한 것으로 체계성과 실증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今熊野附近有地曰タダスト、文字書秦住、土人相傳爲徐福居住之舊地。由此七八里之隔有徐福祠、其間古墳參差、相傳爲其家臣之塚。如斯舊跡今猶相傳、且又有秦姓諸氏、則秦人之來往乃必然之事也。212)

중세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서복 사당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신총(家臣塚)도 소개하고 있다. 7명의 충직한 가신들이 주인을 따라 중국에서 구마노에 이르러 죽은 뒤 주인의 묘소 근처에 묻히면서 세속을 함께 하는 충성에 대한 낭만적 상상은 도쿠가와유학(德川儒學)의 성격에 맞도록 도쿠가와무사도윤리(德川武士道倫理)를 서복설화로 끌어들이고 있다.²¹³⁾ 하야시라잔처럼 아라이하쿠세키도 서복이 선진 고문헌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하야시라잔은 이 고문헌은 일본에서 실전(失傳)된 지 오래고 아라이하쿠세키는 일부 남아 있다고 믿고 있다. 1711년 당시 막부의 가신이었던 그가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접대하며 일본 열도의 서복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그는 먼저 구마노의 유적을 소개한 뒤 서복 덕분에 중국에서 실전된 고서적(古文尙書)이 아즈다신궁(熱田神宮)과 이즈모신사(出雲大社)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선 사신은 반신반의하며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신성한 고서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완곡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4) 『현동방언(玄同放言, げんどうほうげん)』²¹⁴⁾

서복이 채취한 봉래산의 신약은 다름 아닌 인삼(人蔘)이라 주장한 다키자와바킨(瀧澤馬琴, 1767~1848년)의 기록을 보자.

서복은 신약을 찾아 구마노에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이 일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옛이야기지만 부인할 수는 없다. 기이국(紀伊國) 구마노산(熊野山) 아래 아스카(飛鳥)의 땅에는 서복 묘가 있다. 또 구마노, 신구(新宮) 동남쪽의 봉래산에는 서복 사당이 있다. 당초 서복이 채취한 봉래의 신약은 구마노 들판의 야생 인삼이었다. 그는 『춘설궁장월(椿説弓張月, 1811년)』에서 서복이 중국의 농경, 방직, 제염, 고기

212) 新井白石(1799), 『同文通考』, 勉誠社, p.125.

213) 吳偉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69.

(不但提及在中世文獻經常出現的徐福祠、還介紹鮮爲人知的家臣塚。七個忠心不移的家臣跟隨主人徐福從中國到達熊野、死後葬在主人墓旁、以示世世相隨、這種對忠的浪漫想像很配合德川儒學的性格、將德川武士道倫理帶進徐福傳說。)

214) 다키자와바킨(瀧澤馬琴, 1767~1848년)이 쓴 에도 후기의 고증 수필집이다. 주로 천지(天地), 인물(人), 동식물에 관하여 박인방증(博引方證)하고 저자의 주장을 편다.

잡이 및 요리를 구마노에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傳徐福尋仙藥至此、定居熊野。此事正史不記、雖出古俗、不可否之。紀伊國熊野山下、飛鳥之地、有徐福墳。又熊野新宮東南、名蓬萊山、有徐福祠。當初徐福所採蓬萊之神藥、熊野之野生人參也。此外、他在《椿說弓張月》(1811年)提出、徐福將中國的農耕、紡織、製鹽、捕魚、料理引進熊野。²¹⁵⁾

조선 영조 39년(1763)에 조엄(趙暉)은 자신의 저서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서복이 찾은 영약은 인삼인데 천하제일의 조선 삼을 제쳐두고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으므로 서복은 일본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다키자와바킨은 조엄의 기록을 참고했는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1645년 하야시라잔의 『본조신사고(本朝神社考)』, 1715년 데라시마료안(寺島良安)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1808년 쿠크테이바킨(曲亭馬琴)의 『봉설궁장월(說說弓張月)』 및 1834년 니이다코오코(仁井田好古)의 『진서복비(秦徐福碑)』 등에서도 서복동도일본(徐福東渡日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¹⁶⁾

에도시대 중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일본학자들의 국학화(國學化) 경향으로 서복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국학자인 오노타카키요(小野高潔, 1747~1817년)는 서복이 일본에 온 것은 천황가와의 인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¹⁷⁾ 1834년 기슈(紀州) 번의 유학자인 히토이दान요(仁井田南陽, 1772~1850년)는 구마노(熊野)의 서복비(徐福碑)에 글을 지어 이방인의 이상향(理想鄉)을 칭송한 것은 일본이 예로부터 평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간락토(人間樂土)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복의 유공(有功)을 비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서복을 찬미하는 구절도 없으며,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정치적 비호를 찾는 선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폄훼하고 있다.²¹⁸⁾

215) 瀧澤馬琴(1975), 『玄同放言』, 《日本隨筆大成》, 第1期第5卷, 吉川弘文館, p.94.

216) 張良群(2007), 「東亞의徐福研究」, 『中外徐福研究』, p.15.

(此外、正保二年(1645)林羅山撰《本朝神社考》、正德五年(1715)寺島良安撰《和漢三才圖會》、文化五年(1808)曲亭馬琴撰《椿說弓張月》、天保五年(1834)仁井田好古撰《秦徐福碑》銘文等、也都先后記述了徐福東渡之事。以上說明了14世紀以來、徐福東渡之事在日本引起關注、撰文著書記述之熱情漸高。)

217) 吳偉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72.

(將徐福傳說神道化及國學化的傾向在德川中後期的著作中有更多的表述、例如國學者小野高潔(1747-1817)強調徐福來日是爲尋找和平仁義之地、堅決否定他與天皇家有任何關係。)

218) 吳偉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73.

(嗚呼!徐生當秦政暴虐之日、避其毒手、遁身於方士、猶度其不免也。進三神山之說、以爲歸樂國之謀、亦夙知東方有君子國者耶?孔子曰:「乘桴浮於海。」徐生其成孔子之意者耶?戰國之時、有魯仲連者、抗言曰:「秦若爲帝、則連有蹈東海而死耳!吾不忍爲之民也。」天下高其節、快其言。然連唯言此耳。)

에도시대 후기의 유학자인 사이토세쓰도(齋藤拙堂, 1797~1865년)는 자작시에서 진나라의 폭정을 피하여 일본에 망명한 서복은 마치 나무를 택하여 사는 양금(良禽)과 같다고 비웃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군자국(君子國)이며 봉래선경(鳳萊仙境)이고 세외도원(世外桃源)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학문의 국학화 영향으로 국가 의식이 고조되면서 서복을 정치적 난민으로 보는 관념이 에도시대 후반에는 큰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²¹⁹⁾

219) 吳偉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8, p.173.
(德川後期儒者齋藤拙堂(1797~1865)也有詩作、謂避暴秦投身日本的徐福、好比擇木而居的良禽、藉此歌頌日本是君子國、蓬萊仙境、世外桃源：神仙託跡有餘榮、憶起當初航大瀛。萬里來投君子國、一廬願作聖人氓。靈芝山藥豈殊種、蓬島桃源非異情。同避狂秦君更遠、鳥能擇木眼分明。)

제5장 중·한·일 문헌 기록의 연관성

제1절 중국의 서복

『사기』는 사성(史聖) 사마천이 부친인 사마담(司馬談)의 유언에 따라 완성한 역사서로, 전설상의 황제(黃帝)시대부터 자신이 살았던 한 무제 때까지 2,000여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기』는 주나라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제후국 50여 개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칠웅(戰國七雄), 즉 진(秦)을 비롯한 한(韓)·위(魏)·제(齊)·초(楚)·연(燕)·조(趙) 등의 흥망성쇠 과정을 주축으로 한 인물중심의 통사이다. 기록에 따르면 사마천은 스무 살 때인 B.C. 126년부터 3년 동안 산둥 지역을 비롯한 전국을 유람했으며, 이 경험이 훗날 『사기』의 현장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부친 사마담은 사관인 태사령(太史令)의 벼슬을 하였는데, B.C. 110년 한 무제의 태산 봉선 의식을 수행하던 중 낙수에서 병을 얻었다. 부친으로부터 자신이 집필하려던 역사서를 완성하라는 유언을 들은 사마천은 B.C. 110년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이 되고, 5년 후인 B.C. 1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기』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서복이 동남동녀 삼천 명을 데리고 바다에 들어간 1차 동도시기가 시황 28년인 B.C. 219년이고, 《회남형산열전》에 ‘진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 삼천 명을 주고 오곡과 백공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그러나 서복은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얻어 머무르다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라 기록된 것을 보면, 서복의 2차동도 시기는 시황 37년인 B.C. 210년이다. 서복의 2차동도 시기는 사마천이 사기를 본격적으로 집필한 B.C. 105년보다 불과 105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사기』에 기록된 서복 기록은 전설이 아닌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서복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자. 도교나 민간에서는 서복이 ‘봉래로 들어간 선인’으로 추앙되었지만, 유교나 사대부의 세계에서는 ‘시황제를 현혹하여 백성을 괴롭힌 사기꾼’이라는 평가가 뿌리 깊어, 후세 사람들은 사서나 시문에서도 그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 《회남형산열전》에서는 회남왕 유안(劉安)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신하인 오페(伍被)가 주군을 말리기 위하여 예로

든 ‘진나라의 무도(無道)’ 중 하나로, 또한 괴통(蒯通), 오피(伍被), 강충(江充), 식부궁(息夫躬) 등 진나라 말부터 전한 말까지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물들을 다룬 한서(漢書)』 《괴오강식부전(蒯伍江息夫傳)》에서도 역시 신하인 곡영(谷永)이 귀신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던 후한(後漢)의 성제(成帝)에게 미신을 믿지 말고 귀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정사를 돌보라고 충고하기 위해서 서복동도 사설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두 기록 모두 황제를 속이고 사익을 취한 서복을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진한위진(秦漢魏晉)시대에는 신선 사상과 장생불사 등에 대한 많은 문헌이 저술되었고, 이 사상들이 태평도(太平道)나 오두미도(五斗米道) 등으로 발전하여 도교의 경전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서복은 유토피아를 찾아간 신선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중국 최초의 신선전기(神仙傳記)인 『열선전(列仙傳)』에는 안기(安期)선생이라는 선인이 봉래로 들어갔는데, 진시황은 그를 모셔오기 위하여 서복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동일한 내용이 동진(東晉, 317~420년)의 갈홍(葛洪)이 지었다고 전하는 『신선전(神仙傳)』 심희전(沈羲傳)》에도 기록되어 있다. 송대의 이방(李昉)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인 『태평광기(太平廣記)』 《신선4(神仙四)·서복(徐福)》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복이 신선이 되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바야흐로 민간에서 서복 이야기는 각색을 거듭하여 드디어 서복이 신선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잦은 전쟁의 참화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서복은 유토피아인 봉래를 찾아 신선이 된 인물로 묘사됨으로서, 민간에서 서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선(詩仙) 이백(李白)의 《고풍·진왕소육합(古風·秦王掃六合)》과 백거이(白居易)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라는 시에서는 ‘수염은 청천을 가리는데, 봉래산은 어디에 있는가? 진나라의 동녀를 태운 서복은 배를 타고 언제나 돌아올까? 여산 자락의 깊은 흙을 보니, 금관에 담긴 것은 (진시황의) 차가운 유골뿐이구나.’라거나 ‘봉래는 자고로 이름뿐이고, 안개와 파도가 아득해 찾을 길이 없다네... 바다는 끝없이 넓고, 바람도 세찬데, 눈을 비벼 찾아도 봉래는 보이질 않네. 봉래를 보지 못하니 감히 돌아갈 수 없어, 처녀총각들이 뱃속에서 늙고 있다네.’ 라는 싯귀를 통하여 서복을 노래한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서복은 황제를 속인 사기꾼으로 취급되며 봉래를 찾거나 장생불사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서복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 《오서·오주전》과 범엽(范曄) 등이 편찬한 『후한서』 《동이열전·왜전》의 기록에는 서복 일행이 이주한 곳으로 이주(夷洲)와 단주(亶洲)를 언급하고 있다. 오(吳)나라 장수 위온(衛溫)이 실제로 이주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데려왔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존재한다. 특히 이주에 대한 기록은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 『후한서』의 주석, 『괄지지(括地志)』 및 송대(宋代)의 『태평어람(太平御覽)』에도 인용되어 남아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주가 대만 섬이라는 견해에는 여러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단주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필리핀의 루손 섬, 오키나와 섬, 해남도, 일본열도와 심지어 미국대륙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은 단주가 제주도라고 주장한 것이다.

서복에 대한 고대의 평가나 그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설은 후주(後周, 951~960)의 고승 의초(義楚)가 불교사전인 『의초육첩(義楚六帖)』을 편찬하면서 종결된다. 의초는 『의초육첩』에서 ‘서복은 5백의 동남과 5백의 동녀를 거느리고 일본국에 정착하였다. 후지산이 봉래이며 서복의 자손은 모두 진씨(秦氏)라고 한다(…秦時、徐福將五百童男五百童女止此國也。…又東北千餘里有山、名富士。亦名蓬萊。今子孫皆曰秦氏。)’라고 서술하며 이 내용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승려 칸호(寬輔)로부터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최근까지 중국과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서복일본도착설’의 근거가 된다.²²⁰⁾ 송대(宋代)에 들어 구양수(歐陽修)의 『일본도가(日本刀歌)』나 정사초(鄭思肖)의 「원달공일본패배가(元韃攻日本敗北歌)」에서도 『의초육첩』을 근거로 하여 ‘…선조인 서복이 진국 백성을 속여, 약을 캐러 갔다가 동남동녀 그곳에서 늙어가네. 백 가지 장인과 오곡을 주어 살게 하니, 지금까지 공예품이 모두 정교하네.(其先徐福詐秦民、采藥淹留卅童老。百工五種与之居、至今器玩皆精巧。)…’라거나, ‘…서복묘 앞의 진나라 달은 춥고, 아직도 옛 옹정(시황제)의 쓴맛을 원망한다.(徐福廟前秦月寒、猶怨舊時嬴政苦。)…’라고하며 서복 일행의 일본 정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 고문헌 중에 주권(朱權)이 지은 일종의 백과사전인 『원시비서(原始祕書)』와 명나라의 만력 38년(1620년)에 유중달(劉仲達)이 편찬한 『유씨홍서(劉氏鴻書)』

220) 周永河(2002), 「徐福, 事實과 傳說의 歷史」, 『제주도연구』, 21, pp.322~323.

는 『사기(史記)』의 서복에 관한 관점을 인용하면서도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의 학문은 서복에서 비롯되었고 서복이 일본을 건국하였다.(日本之學、始於徐福, …其國乃秦始皇時徐福所領童男女始創之國)’라며 ‘서복일본건국설’을 주장하였다. 이들 두 저서는 명(明)을 대국으로 섬기며 소중화주의사상에 흠뻑 빠져 있었던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와 일본 에도시대 학자들의 작품에 단골 소재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제2절 한국의 서복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동북 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쉽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3세기는 진시황의 폭정을 피하여 다수의 진인(秦人)들이 한반도에 이주하였다. 춘추전국시대의 각 제후국과 한반도 북부의 고조선이나 남부의 삼한 사이에는 정치적 교섭과 물물교류 및 인적 내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두 지역 간, 특히 변방이나 연해 지방에서의 이민도 빈발하였다. 기자(箕子)가 고조선에 망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서복의 동도(東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서복이 도래하였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진한(辰韓)땅에 진인들이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어 정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자가 한반도에 전해진 시기는 고조선 후기(대략 B.C. 2세기) 즈음으로 추정되며, B.C. 108년 한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후 낙랑군(樂浪郡)이 400년 이상 한반도에 존속한 기간 동안 한반도 전역에 점차적으로 한자 사용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삼국시대 들어서면서 공문서에 한자 사용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시기 한자와 불교의 전래와 함께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등의 중국 문헌 또한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이다.

신라 눌지왕(訥祗王)이 지어 불렀다는 『우식곡(憂息曲)』이나 당나라의 관리를 역임한 최치원(崔致遠)의 문집인 『고운집(孤雲集)』의 내용을 보면, 당시 신라는 왜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중국 문헌에 기록된 서복의 존재와 그가 일본에 정착하였다는 전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의초육첩』을 통하여 구마노에 서복 묘와 사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기 수 세기 이전에 이미

서복 전설은 일본 곳곳에 널리 퍼져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전기의 문헌 중에 서복 관련 기록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어 당시의 사대부들이 서복에 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사(高麗史)』 「한림별곡(翰林別曲)」에 실린 ‘삼신산 운운(云云)’을 보면 당대의 지식인들은 전해진 중국의 문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삼신산과 서복 이야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들의 문집에서 서복 기록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들은 서복 묘와 사당이 일본에 존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서복의 일본 정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시대 전기 서복 기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복의 일본열도 정착, 구마노산의 서복 사당 존재 및 서복이 권현수신으로 모셔진다는 점과 함께 한반도에도 서복 관련 장소의 존재²²¹⁾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는 17세기에 일본열도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통신사 파견과 백과전서의 편찬이 많아져 많은 양의 서복 기사가 확인된다. 경칠송(慶七松) 등 다수의 통신사들은 구양수의 『일본도가(日本刀歌)』에 실린 ‘분서갱유 이전의 일서백편(徐福行時書未焚、逸書百篇今尙存。)의 존재’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일본을 방문했을 때마다 일본 막부의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장유(張維)는 『계곡만필(谿谷漫筆)』에서 고증을 통하여 구양수의 ‘일서백편 존재’ 주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에도시대에 들어선 일본에도 유학 등의 영향으로 다원적인 사상 기류가 형성된 시점과 소중화주의에 사로잡힌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상고주의적인 역사관이 맞물려 한일 유학자들은 서복 이야기에 대한 엄밀한 논증보다는 이를 인용하는데 가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박지원이나 이공익과 같은 실학자들은 중국의 『원시비서(原始祕書)』나 『유씨홍서(劉氏鴻書)』 및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등을 인용하여 ‘일본 학문의 시작이 서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거나 ‘서복이 일본을 건국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중화주의적(中華主義的) 시각에서 서복 이야기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 시대 몇몇 학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서복의 일본열도 정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복과 한반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최부(崔溥)의 「탐라시35절(耽羅詩三十五絶)」, 황준량(黃俊良)의 『금계집(錦

221)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48, p.82.

『동계집(桐溪集)』, 정운(鄭蘊)의 『동계집(桐溪集)』,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박태무(朴泰茂)의 『서계집(西溪集)』 및 조엄(趙曦)의 『해사일기(海槎日記)』 등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唐代)의 시인 고향(顧況)은 「송종형사신라(送從兄使新羅)」라는 시에서 서복의 한반도 정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시는 고향의 종형(從兄)인 고음(顧愔)이 귀숭경(歸崇敬)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신라국(新羅國)에 가서 경덕왕(景德王)의 죽음을 조문하였는데, 그를 전송하며 고음이 신라국으로 가는 도중에 서복이 맞이하여 줄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시구를 읊고 있다. 이 기록은 중국의 서복 관련 기록에서 한반도와 서복을 연결한 유일한 것이다. 또한 서복동도전설과 관련하여 서복을 한반도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일본학자에 의하여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후지와라시게노리(藤原茂範)와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이 그들이다. 시게노리는 1296년 발행된 자신의 저서 『당경(唐鏡)』에서 서복 일행이 정착한 평원광택(平原廣澤)은 다른 아닌 신라국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마츠시타켄린은 역사연구서인 자신의 저서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에서 제주의 옛 이름이 ‘탐부라(耽夫羅) 혹은 탐라(耽羅)’인데 단주(亶州)의 단(亶)자 발음 ‘tan’이 탐라의 ‘tam’과 비슷하다는 근거를 들어 단주는 탐라도 즉 제주도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시도를 보면 당시 일본학자들의 서복 관련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3절 일본의 서복

일본에서의 한자 역사는 한반도에서 수많은 문물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중엽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때의 학자인 왕인(王仁) 박사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일본에 가져옴으로써 비로소 한자가 일본에 전해졌으며, 왕인은 해박한 경서(經書)의 지식으로 신임을 받아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한반도에 전해진 중국의 경서와 사서들은 일본에도 전해졌을 터이고, 7세기 초부터 시작된 견수사(遣隋使)나 견당사(遣唐使) 등 정부 차원의 교류 이전에도 왜국이 중국의 한(漢)나라, 위진(魏晉) 및 유송(劉宋) 등과 교류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기(史記)』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은 5세기 초반 경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포함한 백거이의 시는 일본에 전해지자마자 일본 귀족사회에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의 고대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의 서북 관련 기록은 일본의 『일본서기』나 『고사기』에는 보이지 않고, 그 후의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記)』,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덕천황실록(文德天皇實錄)』과 『삼대실록(三代實錄)』 등 이른바 육국사(六國史)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5세기 초반에 지어졌다는 신라의 우식곡(憂息曲)을 보면 ‘서불의 바다에서 명주를 몰래 훔쳐내고(明珠暗偷徐市海)’라는 식귀가 있는데 여기서 ‘서불의 바다(徐市海)’가 왜국을 의미하므로 이 무렵에 서북동도일본의 전설은 구전되어 일본 국내에 널리 퍼져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 전설이 소재가 되어 문학작품에 처음 나타난 것은 10세기 말에 쓰여진 장편 소설 『우즈호이야기(宇津保物語)』를 통해서이다. 이어서 11세기 초에는 궁중시녀였던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가 쓴 장편소설인 『겐지이야기(源氏物語)』에도 서북 전설을 노래한 백거이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를 인용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서북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일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서북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고 몇몇 전승에 단편적으로만 보일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서북을 분명하게 일본과 연결한 문헌은 후주(後周)시대의 승려 의초가 지은 『의초육첩』이다. 실은 의초가 쓴 서북 관련 내용은 중국에 온 일본인 승려 칸호(寬輔)로부터 들은 것이다. 즉 일본인들이 먼저 서북을 일본과 연결하여 전설화하고, 이후 우연한 기회에 중국을 방문한 칸호를 통하여 중국 문헌에 남겨지게 된 것이다.²²²⁾ 송대(宋代) 구양수(歐陽修)의 「일본도가(日本刀歌)」는 서북이 데려간 백공(百工)에 의해 일본도가 만들어 졌고, 서북 일행이 분서갱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출항하여 많은 일서(逸書)가 일본에 남게 되는 등 서북의 일본 도래는 문화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북이 등장한 후 약 1,200여 년 만에 중국으로 건너간 일본 승려 칸호에 의해 비로소 ‘서

222) 王妙發(2003), 「新宮市にある徐福に関する伝承地・伝説の研究報告」, 地域研究シリーズ, 26, p.19. (今まで知っているかぎり最初に徐福のことをはっきりと日本と結びつけた文獻は『義楚六帖』である。實は義楚の書いたことは中國に來訪して來た日本人の語ったことである。つまり日本人が先に徐福のことを日本と結びつけたことがあってその後の偶然の機會で中國の文獻に残されたのである。宋代歐陽修の『日本刀歌』(本稿の三徐福研究に関する文獻の中國側の文獻8)には徐福が日本に行ったことはもはや一般的な常識のように語られている。元代に入ると徐福の漂着した地ははっきりと熊野の地であるとの「説」が次第に浮上し信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

북이 일본에 왔다.', '봉래는 후지산이다.', '서복 등의 자손은 진씨(秦氏)이다.'라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중국에 전해지게 된다. 이것이 칸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당시 일본열도 내에서 실제로 유행하던 서복 관련 전설을 의초에게 말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각지에서 서복 전설이 새롭게 생겨나고 각색이 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 승려 칸호가 중국에 도착한 후 알게 된 중국사서의 서복 기록을 근거로 스스로 서복이 일본에 정착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지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도시대에 조선 통신사와 일본 유학자들과의 교류가 많아졌고, 18세기 도쿠가와 막부가 유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자학을 가르치는 많은 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는 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200년이 넘도록 이어지자 사무라이들이 유학적 소양을 갖춘 에리트, 즉 사대부화되면서 유학은 일본사회에 깊은 영향을 남긴다.²²³⁾ 때마침 소중화주의에 매몰되었던 조선의 학자들과 유학의 부흥기를 맞이한 일본의 유학자들과의 교류는 조선통신사 파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구양수의 『일본도가(日本刀歌)』에서 언급된 '일서백편'의 존재여부 확인이나 『원시비서(原始祕書)』와 『유씨홍서(劉氏鴻書)』에 근거한 '서복일본건국설' 등이 양국의 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논쟁대상은 조선 후기 학자들의 문집이나 백과전서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에도시대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열도의 학문은 국학화(國學化)의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일본학자들의 서복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국학자인 오노타카기요(小野高潔)는 서복의 망명설을 주장하였고, 에도시대 후기의 유학자인 사이토세츠도(齋藤拙堂)는 자작사에서 서복을 양금(良禽)과 같다고 비유했기도 했다. 국학화의 영향으로 국가의식이 고조되면서 서복을 정치적 난민으로 보는 관념은 에도시대 후반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

제4절 역사(歷史)와 전설(傳說)

『맹자(孟子)』의 기록을 보면 춘추시대의 열국들은 각각 사관을 두어 사적을 정

223) 박훈(2014),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pp.178~179.

리했는데, 진(晉)에는 ‘승(乘)’, 초(楚)에는 ‘도울(檣杪)’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노(魯)에는 ‘춘추(春秋)’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노(魯)에 전해지던 기록을 공자가 스스로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새롭게 편수한 것이 오늘날의 『춘추(春秋, B.C. 722~B.C. 481년의 역사기록)』이다.²²⁴⁾ 이 역사서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후대에 많은 주석서(註釋書)가 출간되었는데, 그중에서 『춘추』에 기록된 사실을 역사적이고 실증적으로 해석한 주석이 바로 『좌씨전(左氏傳)』이다. 이처럼 춘추시대부터 대부분의 제후국들은 사관을 두어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려는 노력을 해왔다.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던 시기에는 진시황의 분서사건(焚書事件)에도 불구하고 춘추전국시대 사관들이 기록한 역사기록과 지역 정보를 기록한 지리지 등의 자료가 전해져, 사마천은 이들 자료를 집필활동에 많이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의하면 부친 사마담을 이어 사마천이 『사기』의 집필을 시작한 시기는 B.C. 105년으로, 이 시기는 서북의 2차 동도가 있었던 B.C. 210년으로부터 105년, 서북이 평원광택을 얻어 왕이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한 『사기』 《회남형산열전》의 주인공인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반란에 실패하여 죽은 B.C. 122년과는 불과 17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사기』의 서북 기록은 사실이며 검증된 역사기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일찍부터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접촉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고대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진 시기는 대략 B.C. 2세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요동 반도와 한반도 북부의 고조선을 위만이 통치하고,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해 고조선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병합했다. 따라서 한자의 전래는 그때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나아가 삼국시대에 들어서자 한자의 사용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중국의 경서와 사서들도 한반도에 전해지고 사서에 실린 서북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전설이 되어갔을 것이다. 서북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한반도를 경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C. 3세기 말의 일이므로 아직 한자가 전래되기 이전으로 서북의 기록이 한반도에 남아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신라 눌지왕(訥祗王)이 지어 불렀다는 『우식곡(憂息曲)』은 한반도에서 서북을

224) 두산백과의 『춘추(春秋)』 검색 결과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1230&cid=40942&categoryId=33403>)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서불의 바다에서 명주를 몰래 훔쳐내고(明珠暗偷徐市海、烈焰上燭輕投躬。)’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여기서 ‘서불의 바다(徐市海)’는 일본을, ‘명주(明珠)’는 미사흔(눌지왕의 아우)을 의미하는바 5세기 중엽의 신라사람들은 서북이 동도하여 왜국에 정착하였다는 전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북동도일본 이야기가 10세기 말에 의초의 『의초육첩』에 의하여 중국에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말 신진시대부들과 조선시대 전기 학자들의 서북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중국의 사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실학과 국학의 발달로 백과전서의 편찬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어진 이러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서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서북은 전설이다.

B.C. 14,000년경부터 B.C. 300년경까지 이어졌던 일본의 조몬(縄文)시대는 B.C. 200년경에 들어 짧은 시간 동안에 야요이(彌生)시대로 이동하는데, 이는 벼농사, 철·동기의 제조기술 및 직조(織造) 등의 기술을 서북이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부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북 관련 기록은 일본 최고(最古)의 문헌인 『고사기』나 『일본서기』 뿐만 아니라 『속일본기』 등 이른바 6국사(六國史)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중국의 경서와 사서도 일본에 전해지면서 서북 일행이 일본 열도에 정착했다는 전설이 생겨나고 퍼져나갔을 것이지만,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 『사기』의 서북 관련 기록이 알려진 후에 전설화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지방에서 그 전부터 전해온 도래인(渡來人) 전승(傳承)의 토대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²²⁵⁾ 일본열도 각지에서는 서북에 관한 유적이 50여 곳이 있고, 전설이 30여 종이 있으며, 옛 문헌 기재가 40여 종이 있다. 이런 현상은 서북을 제외한 일본의 인물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²²⁶⁾ 다만 서북과 관련

225) 七田忠昭(2007), 「佐賀平野에서의 中韓文化 流入과 發展」, 『瀛洲徐福』, p.43.

(徐福伝説の地は國內に數多い。國內において「史記」が知られた後に伝説化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がそれぞれの地方に從來から伝えられた何らかの渡來人伝承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と推定される。)

226) 水野明(2007), 「徐福在日本的傳乘和信仰」, 『瀛洲徐福』, 1, p.377.

(徐福在日本各地的遺跡有50余處、說有30多種、古書記載有40多項、這在日本古今人物中、除徐福之

한 유적과 문헌들은 대부분 에도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에서 서복 이야기의 역사화 작업은 십 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유적지 발굴을 통한 서복동도일본의 물증을 찾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서복 일행이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노(連弩), 반량전(半兩錢), 죽간(竹簡) 및 먹(墨)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계에서는 아직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발굴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서복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서복 전설은 십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기획된 스토리텔링, 즉 일본의 역사시대를 앞당겨 보려는 소위 ‘서복공정(徐福工程)’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대표적 문헌이 위서(僞書)라 평가되는 ‘미야시타문서(宮下文書)’²²⁷⁾이다. 문서의 고대사 부분을 서복이 집필했다 전해지는 이 문서에는 ‘서복 일행은 554명이 85척의 배를 타고 왔는데, 과부 7명, 장년부부 138쌍, 청년 84명, 어린이 9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복은 죽간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지만 원본은 화산폭발과 병화로 소실되고 현존하는 문서는 아소산신궁(阿祖山神宮)의 신관들이 대대로 속사(續寫)한 예본(譽本)이라 한다.²²⁸⁾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서복이 일본열도에 한자를 전했다는 것이 되는데, 백제(百濟)의 왕인(王仁)이 일본에 한자를 전한 시기가 4세기 중엽이라는 『일본서기』의 기록과도 600여 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허구의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서복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전설일 뿐이다.

外沒有第二人。)

227) 미야시타문서란, 후지산의 북쪽 기슭,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다이묘미에 있는 북동 혼노미야 코무로야사마신사의 미야시가였던 미야시타가문에 전래된 고기록과 고문서의 총칭이다. 진무천황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의 초고대에 후지산 기슭에 발흥하였다고 알려진 ‘후지고텐하라왕조’에 대한 전승을 포함하며, 그 핵심 부분은 중국 진나라에서 건너온 서복(福福)이 집필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이른바 고사고전(古史古伝)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宮下文書(みやしたもんじょ)とは、富士山の北麓、山梨縣富士吉田市大明見にある北東本宮小室淺間神社の宮司家だった宮下家に伝來した古記録・古文書の總称。神武天皇が現れるはるか以前の超古代、富士山麓に勃興したとされる「富士高天原王朝」に關する伝承を含み、その中核部分は中國の秦から渡來した徐福が筆録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だが、その信憑性については疑いがもたれており、いわゆる古史古伝の代表例に挙げられる。(https://ja.wikipedia.org/wiki/宮下文書)

228) 土橋壽(2007), 「21世紀中日大課題-富士山徐福与《宮下文書》」, 『中外徐福研究』, 1, p.97. (文書經富士山麓的阿祖山神宮神官們代代相傳續寫,歷經千年、一直到延歷年(800)富士山火山爆發、太神宮被焚毀。神官們把文書轉移到了相模國高座的寒川神社。從那之后又過了400年、阿祖山神宮的大宮司、宮下源太夫義仁在1192年譽寫了保存在寒川神社的原本、并帶回到富士山麓的本宮、保存至今。寒川神社的原本後來流失、現存的文書是譽本。德川時代因害怕被幕府沒收、一直秘藏于宮下家的頂棚、直至明治十六年(1883)開封。)

제6장 결 론

이 글에서는 사마천 『사기』의 기록에서 출발한 서복 이야기가 한반도와 일본에 어떻게 전해지고 각색되었는지 중·한·일 세 나라의 옛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서복 일행이 동도하여 자취를 감춘 해가 B.C. 210년이고, 사마천이 『사기』의 집필을 시작한 해가 B.C. 105년이므로 대략 105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사기』 《淮南衡山列傳》의 주인공인 유안(劉安)이 반란을 꾀하다가 죽은 해가 B.C. 122년임을 감안하면 거의 동시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되므로 중국에서의 서복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서복에 대한 평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봉래로 들어간 선인’으로 주로 『열선전』이나 『신선전』 등으로 불리는 지괴소설(志怪小說)에서 단골 소재로 다루어졌다. 이는 정치적 동란 중에 오행설이나 도교사상에 근거하여 해석하거나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이야기나 선인과 도사 등으로 화제를 넓혀 서복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결과이다. 둘째는, ‘시황제를 현혹하여 백성을 괴롭힌 사기꾼’이라는 평가인데 당대(唐代)의 시인 이백(李白)의 「고풍(古風) 진왕소육합(秦王掃六合)」과 백거이(白居易)의 「해만만계구선야(海漫漫戒求仙也)」라는 풍유시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10세기 후반 『의초육첩』이 편찬되기 전까지는 서복 일행이 동도하여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삼국지』 《오서·오주전》과 『후한서』 《동이열전·왜전》에서는 서복이 단주(亶洲)에 정착하였다고 기록하여 이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의초육첩』은 서복 일행이 일본열도에 정착했음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일조하였다.

한자의 한반도 전래와 함께 서복 이야기도 전해져 한자의 사용이 보편화 된 삼국 시대에는 서복이 일본에 정착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우식곡』에도 등장한다. 구마노의 서복 사당 등의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기 수 세기 전에 서복의 일본정착설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과 조선시대 전기의 학자들의 작품에는 중국의 사서에서 전하는 내용의 서복 이야기가 기록된 반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통신사의 파견과 백과전서의 편찬으로 많은 작품 속에 서복 기록이 등장한다. 이들은 소중화주의에 사로잡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상고주의적인 역사

관이 맞물려 서복 이야기에 대한 엄밀한 논증보다는 이를 인용하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원시비서(原始祕書)』, 『유씨홍서(劉氏鴻書)』 및 일본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등을 인용하여 ‘일본 학문의 시작이 서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거나 ‘서복이 일본을 열었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중화주의적 시각에서 서복 이야기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반면에 서복 이야기에 등장하는 당사국으로서 한국학계는 서복 관련 유적이나 유물을 찾고 한반도에서의 서복 일행의 행적을 연구하려는 노력은 다소 게을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서복전시관을 개관하고 중·한·일 서복 관련 학술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상업적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몬시대(縄文時代)의 일본열도는 B.C. 2세기경에 벼농사와 동·청기의 및 직조술의 보급 등을 통하여 야요이시대(弥生時代)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는바, 이 현상은 B.C. 210년 동도일본한 서복 일행이 가져온 변화라는 것이 상당수의 일본과 중국의 서복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벼농사 기술의 보급은 생산을 증대시켰으나 빈부 와 신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 공동체를 정치집단화하는 등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농경에 따른 신앙, 의례 및 풍습 등도 널리 전파되며, 이 시대에 일본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야요이시대의 최대 유적인 요시노가리유적(吉野ヶ里遺蹟)²²⁹⁾ 등 어떤 유적에서도 서복과 야요이시대를 연결하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조몬시대로부터 야요이시대로의 급격한 이동은 도래인에 의한 변화로 보이는데, 이 도래인은 서복 일행이 아닌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에 서복 이야기가 전해진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시기와 유래를 알 수 없는 문자화되지 않은 구전가요를 제외하면,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서복 이야기는 신라의 『우식곡』인데 여기에서 일본을 ‘서시해(徐市海)’로 표시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5세기 중엽 이전에도 일본의 민간에는 서복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문헌에 서복 기록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0세기

229) B.C. 3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야요이(彌生)시대는 일본에서 벼농사문화가 시작되고 정주(定住)문화가 뿌리내린 일본 문화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야요이시대 유적중에서도 요시노가리유적은 사가현(佐下縣) 간자키(神崎)군 간자키정(神崎町), 미타가와초(三田川町), 히가시세후리무라(東背振村) 등 3개 마을에 걸친 일본 최대의 유적으로 야요이시대 취락의 전모와 야요이시대 700년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일본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집결되어 있다. (吉野ヶ里歴史公園 홈페이지: <https://www.yoshinogari.jp/kr/introduction/remains/>)

말인데, 장편소설인 『우츠호이야기(宇津保物語)』를 통해서이다.

한반도와 서복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당대(唐代)의 시인 고향(顧況)의 「송종형 사신라(送從兄使新羅)」라는 시에서 처음 나타나고, 후지와라시게노리(藤原茂範)의 『당경(唐鏡, 1296년 발행)』과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1688년 발행)』에서 단주는 신라국과 탐라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서복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나 정화(鄭和)²³⁰에 버금가는 위대한 탐험가인 역사 인물로, 우수한 중화 문명을 일본에 전파한 전설적인 문화 사절로 평가하는 것이 중일 서복 학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서복 이야기가 역사인가 혹은 전설인가는 별도로 치더라도, 서복은 오늘날 지구촌화의 시대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전설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면에서 서복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전설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서복 이야기를 콘텐츠화하여 상업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자칫 민족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서복 이야기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서복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마저도 서복 이야기의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서복에 갇혀서 서복을 죽이느니, 차라리 서복을 뛰어넘어 서복을 살리자고 말하고 싶다. 인문학적 연구가 심화되어 이들 연구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가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되고 콘텐츠 개발이 된다”라는 홍기표 교수의 주장을 되새기며 부족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싶다.

230) 원래 성은 마(馬)씨이며, 아명은 삼보(三寶)이다. 운남성 쿤밍시 사람으로, 명성조(明成祖)가 정(鄭)씨 성을 하사했기 때문에 정화(鄭和)라고 불렸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항해가, 외교가 및 환관이다. 정화는 명나라 성조의 명을 받아 제국 함대를 이끌고 일곱 차례의 원항을 시작하여 28년에 걸쳐 서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의 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정화는 서양에 내려갔다”라고 불렀는데, 총 항행거리가 7만여 해리에 달하여 지구를 3바퀴 남짓 돌았으며, 서양에서는 고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원 왕조가 대규모로 조직한 대항해는 서양보다 반세기 이상 빨랐다고 평가한다. (<https://zh.wikipedia.org/wiki/鄭和>)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편·역서

중국어 자료

- 班固著, 『漢書』《郊祀志》, 中華書局(1962).
陳壽(233~297), 『三國志』, 卷37, 《吳書·吳主傳》, 中華書局(1982).
東方朔(1986), 『海內十洲記』, 臺灣商務印書館.
黃遵憲(1879), 『人境廬詩草』, 下卷, 《日本雜事詩》, 中國青年出版社(2000).
李百藥(636), 『北齊書』, 卷45, 《文苑》, 中華書局(1972).
馬非百(1982), 『秦集史』, 上冊, 《徐市》, 中華書局.
劉昫(945), 『舊唐書·本紀』, 卷二《太宗上》, 中華書局(1975).
劉仲達(1611), 『劉氏鴻書』, 卷八, 《地理部五·夷國·日本》, 明萬曆三十九年刻本.
歐陽修(1072), 『歐陽修詩選』, 安徽人民出版社(1982).
司馬遷(2018), 『史記』, 中華書局, 第一冊.
李昉(984), 『太平御覽』, 卷782, 《四夷部三·紆嶼人·外國記》, 中華書局(1985).
王世貞(1600), 『有象列仙全傳』, 汪雲鵬校刊本.
楊斌(1989), 『徐福東渡之迷』, 吉林文史出版社.
壹岐一郎(1996), 『徐福集團洞渡與古代日本』, 天津人民出版社.
張良群(2007), 『中外徐福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第一集.
張良群(2010), 『中外徐福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第二集.
朱亞非(2011), 『徐福志』, 山東人民出版社.

한국어 자료

- 姜沆(1656), 『看羊錄(한국명저대전집)』, 《賊中封疏 倭國八道六十六州圖》, 大洋書籍(1972).
金富軾(1145), 『三國史記』, 卷第45, 11章 뒤쪽, 《列傳5, 朴提上》.
金尙憲(1669), 洪琦杓역(2008), 『南槎錄』, 제주문화원.
박훈(2014),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班固著, 신경란역(2021), 『한서열전』, (주) 민음사.
司馬光(1084)著, 신동준역, 『資治通鑑』, 1권.
申叔舟(1471), 『海東諸國記』, 《日本國記, 天皇代序》, 高靈申氏宗約會발행(1970).
李晬光(1614), 『芝峰類說』, 《地理部, 山》, 을재클래식스(2016).
李瀾(1681~1763)著, 박헌순 역, 『星湖全集』 제4권, 《海東樂府 憂息曲》, 한국고전번역원.
崔致遠(857~?)著, 이상현 역, 『孤雲集』, 《詩, 泛海》, 한국고전번역원.
홍순만(2002), 『徐福集團과 濟州道』, 제주문화원.
黃俊良(1584), 『錦溪集』, 內集 제4권, 《雜著, 四皓有無辨》, 한국국학진흥원(2014).

일본어 자료

- 北畠親房 著, 남기학 역(2008), 『神皇正統記』, 소명출판.
 玄棟(1407) 著, 名古屋三國伝記研究會 編(1982), 『三國伝記 平仮名本』, 古典文庫, 上册.
 林羅山(1979), 『林羅山文集』, ぺりかん社.
 新井白石(1979), 『同文通考』, 勉誠社.
 瀧澤馬琴(1975), 『玄同放言』, 《日本隨筆大成》第1期第5卷, 吉川弘文館.
 達志保(2004), 『徐福論-いまを生きる伝説-』, 新典社.

2. 학술·일반논문

중국어 자료

- 李永先(2007), 「徐福是和平的使者」, 『瀛洲徐福』, 제1집.
 曲金良(2007), 「徐福:環黃海圈海洋社會的文化傳乘載體與族群接媒介」, 『瀛洲徐福』, 제1집.
 水野明(2007), 「徐福在日本的傳乘和信仰」, 『瀛洲徐福』, 제1집.
 唐祿庭(2007), 「秦始皇的東巡和徐福的東渡」, 『瀛洲徐福』, 제1집.
 土橋壽(2007), 「21世紀中日大課題-富士山徐福与《宮下文書》」, 『中外徐福研究』, 1.
 吳衛明(2014), 「徐福東渡傳說在德川思想史的意義」, 『中國文化研究所學報』, 제58집.
 張良群(2007), 「東亞的徐福研究」, 『中外徐福研究』, 제1집.

한국어 자료

- 김일권(2008), 「서복설화의 역사적 인식변화와 남해 금산 서불과차 암각문의 연관성 문제」, 『민속학 연구』, 제22집.
 류잔귀(2016), 「최초의 동북아 탐험가 - 서복의 이야기」, 『제주발전연구』, 제20집.
 이창식(2005),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東아시아古代學』, 제12집.
 이창식(2005), 「서복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한국어문학회)』, 제88집.
 임준성(2010), 「錦南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연구」, 『古詩歌文化研究』, 제27집.
 전해중(1975), 「중국인의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歷史의 理論과 敘述』.
 鄭守一(2002), 「徐福渡韓考」, 『제주도 연구』, 제21집.
 정창원(2013), 「徐福東渡說과 中國史書의 東傳에 관한 연관성 탐색」, 『역사와 실학』, 제52집.
 周永河(2002), 「徐福, 事實과 傳說의 歷史」, 『제주도연구』, 제21집.
 洪琦杓(2016), 「韓國 古文獻 所載 '徐福 紀錄' 研究」, 『民族文化』, 제48집.

일본어 자료

- 王妙發(2003), 「新宮市にある徐福に関する伝承地・伝説の研究報告」, 地域研究シリーズ, 제26집.
 土橋壽(2012), 「富士山と徐福 その諸相」, 『徐福フォーラム in 神奈川 2012 資料集』.
 袴田光康(2017), 「徐福渡來伝承をめぐる斷章 : 寛輔のこと」, 『翻譯の文化』, 제12집.

蓮沼啓介(2005), 「異称日本伝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제54권 제4호.
 柴田清繼(2010), 「日本古典文學に見る徐福」, 『中外徐福研究』, 제2집.
 達志保(2010), 「徐福伝説の東アジアネットワーク」, 『中外徐福研究』, 제2집.
 達志保(2007), 「誰が徐福傳説を語るのか」, 『瀛洲徐福』, 제1집.
 七田忠昭(2007), 「佐賀平野에서의 中韓文化 流入과 發展」, 『瀛洲徐福』 제1집.
 蓮沼啓介(2005), 「異称日本伝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제54집.

4. 인터넷 웹사이트(Internet Website)

중국사이트(Chinese Website)

白居易(盛唐, 저작연도미상), 『新樂府, 五十首』, 其三 《海漫漫—戒求仙也》, 維基文庫 DB.
 (<https://zh.wikisource.org/zh-han/海漫漫—戒求仙也>)

陳壽(233~297), 『三國志』, 《吳書·全琮傳》, doc in 豆丁 DB.
 (<https://www.docin.com/p-2464811124.html>)

范曄(432~445년) 『後漢書』, 《李賢注》, 維基百科 DB.
 (<https://zh.wikipedia.org/wiki/夷洲>)

葛洪(東晋, 저작연도미상), 『神仙傳』, 卷八 《沈羲傳》, 東里書齋 DB.
 (<https://www.donglishuzhai.net/chapter/2250.html>)

李白(盛唐, 저작연도미상), 『古風五十九首』, 其三 《古風·秦王掃六合》, 古詩文東网 DB.
 (https://so.gushiwen.cn/mingju/juv_59891a8c0e64.aspx)

李昉(983), 『太平廣記』 《神仙四, 徐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taiping-guangji/4/xufu/zh>)

李昉(977), 『太平廣記, 983년』, 《神仙四, 徐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taiping-guangji/zh>)

李昉(977), 『太平御覽』, 제780권 1서』,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text.pl?node=399545&if=gb&remap=gb>)

李泰(642), 『括地志』, 卷四, 《蠻夷, 東夷編》, 維基文庫 DB.
 (<https://zh.wikisource.org/wiki/括地志輯校>)

劉向(西漢, 저작연도미상), 『列仙傳』, 卷上, 《安期先生》,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lie-xian-zhuan/an-qi-xian-sheng/zh>)

沈瑩(268~280), 『臨海水土志』, 維基百科 DB.
 (<https://zh.wikipedia.org/wiki/夷洲>)

鄭思肖(1283), 「元韃攻日本敗北歌」, 古詩詞网 DB.
 (https://www.gushici.com/t_180511)

魏徵(636),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倭國》,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584840#%E5%80%AD%E5%9C%8B>)

朱權(저작연대 미상), 『原始祕書』, 古籍網 DB.
(<https://www.bookinlife.net/book-85134.html>)

한국사이트(Korean Website)

姜弘重(1624), 『東槎錄』, 《座目, 甲子歲, 10월 28일(己酉)》,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84A_0020_030_0270)

權武一(2017), 「서복이 탐라에 온 까닭은」, 다음블로그
(<https://blog.daum.net/storynami/165>)

金誠一(1649), 『鶴峰集』, 附錄 제4권, 《詩, 奉使日本時贈行詩》,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210A_0190_060_0010)

金世濂(1636), 『海槎錄』, 《聞見雜錄》,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87A_0030_010_0010)

金宗直(1497), 『佔畢齋集』, 제6권 《詩, 又三首》,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66A_0060_010_0400)

朴趾源(1901), 『燕巖集』, 제3권, 《孔雀館文稿, 與人》,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68A_0030_010_0360)

朴趾源(1901), 『熱河日記』, 《銅蘭涉筆》,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70A_0180_010_0020)

朴泰茂(1812), 『西溪集』, 《西溪先生集卷之三 書 答鄭濟州 彥儒》,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979A_0040_010_0350)

安鼎福(1778), 『東史綱目』, 《附錄, 上卷, 下, 雜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6A_0420_010_0090)

李穀, 『稼亭集』, 제17권 《律詩》,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14A_0180_010_0360)

李穀 『稼亭集』, 雜錄,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4&cate1=A&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014A_0220_000_0070&viewSync=OT)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人事類 氏姓, 清帝倭皇姓氏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20_010_0070)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1 經傳類1 書經, 箕子朝鮮本尙書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30_030_0050)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4 經史雜類1 經史雜說, 經史訛誤辨證說》,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130_010_0010)

李圭景(18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1 經傳類1 經傳總說, 日本山井鼎七經孟子考文辨證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30_010_0030)

李肯翊(1776), 『燃藜室記述』, 《별집, 권18, 邊圉典故, 西邊》,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0A_0570_010_0030)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4권, 《청령국지(蜻蛉國志), 神佛》,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7A_0640_010_0070)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5권, 《청령국지(蜻蛉國志), 與地》,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7A_0650_010_0020)

李德懋(1795), 『靑莊館全書』, 제64권, 《청령국지(蜻蛉國志), 神佛》,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577A_0640_010_0070)

李穡, 『牧隱集』, 제4권 《詩, 扶桑吟》,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20A_0110_010_0850)

李瀾(1740), 『星湖僊說』 26권, 《經史門, 日本刀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8A_0270_010_0620)

李瀾(1740), 『星湖僊說』 18권, 《經史門, 祖洲》,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1368A_0190_010_1120)

張維(1643), 『溪谷集』, 《溪谷漫筆, 世傳日本有...》, 제1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33A_0380_010_0010&viewSync=OT)

鄭夢周, 『동문선(東文選)』, 제16권, 《遇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5A_0190_010_0860)

鄭蘊(1741), 『동계집(桐溪集)』, 제1권, 《五言律詩, 次聖求韻》,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295A_0040_030_0500)

정인지 외(1998), 『고려사』, 북한사회과학원, 한국의지식콘텐츠 DB.

(<https://www-krpia-co-kr-ssl.lib.jejunu.ac.kr/viewer?plctId=PLCT00004467&tabNodeId=NODE04269925&nodeId=NODE04270859#none>)

趙曦(1763), 『海槎日記』, 3권 《二月初九日, 辛卯》,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97A_0040_020_0090)

車天輅,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13A_0010_000_0010&viewSync=OT)

韓致滌(1814), 『海東釋史』, 50권, 《藝文志9 중국시1 顧況 送從兄使新羅》,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520_010_0010)

韓致滌(1814), 『海東釋史』, 51권, 《藝文志10 중국시2 登太平館樓 六十韻》,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530_010_0010)

韓致滌(1814), 『海東釋史』, 67권, 《人物考1, 王仁》,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ataId=ITKC_BT_1433A_0690_010_0250)

韓致滌(1814), 『海東釋史』, 59권, 《藝文志18, 雜綴》,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33A_0610_010_0010)

일본사이트(Japanese Website)

『新撰姓氏錄』氏族一覽3 《第三帙·諸蕃·未定雜姓》, 新撰姓氏錄氏族一覽 DB.
(<http://kitagawa.la.coocan.jp/data/shoji.html>)

『日本三代實錄』《卷四十四元慶七年(八八三)十二月廿五日丁巳》, 朝日新聞本 DB.
(<http://www.kikuchi2.com/chuko/sandai.html>)

如月壽印(1633), 『中華若木詩抄(寬永十年版)』, 《國立國語研究所database》.
(<https://dglb01.ninjal.ac.jp/ninjaldb/bunken.php?title=zyakuboku>)

【Abstract】

A Study on the Written Records of the Story of XUFU

- Focusing on the old records of China, Korea and Japan -

Gi-Hyung Yang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Kwang-Joong Jeong

In the 21st century, three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continuing exchanges to study the Story of XUFU and share the results by holding seminars alternately. However, it is true that since the first appearance of the XUFU records in 『Shiji』 《Qinshihuangbenji》,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how the Story of XUFU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XUFU was evaluated by era and country, how the story of XUFU was adapted to these countries, and in what form the reality of XUFU remains in these three countries.

The XUFU records of China are divided into the Han Dynasty Period, the Three Kingdoms and the Liangjin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Period, the Suitang and Five Dynasties and the Ten Kingdoms Period, the Songyuan Dynasties Period, and the Mingqing Dynasties Period. The XUFU records of Korea are divided into Before th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the Goryeo Dynasty Period, and early and lat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XUFU records of Japan were divided into those before the Azuchi Momoyama period and after the Edo period.

Among the vast XUFU-related documentary records, it is the first record in China, Korea, and Japan, such as Sima Qian's 『Shiji』, 『Usikgok』 by King Nulji, and 『The Tale of Utsuho』. The records that first informed China of XUFU's settlement in Japan archipelago was 『Yichulitue』 by Yichu. And the records that attempted to connect the Story of XUFU with the Korean Peninsula was 『Songcongxiangshixinluo』 by Gukuang, 『Karakagami』 by Shigenori Fujiwara, and 『Ishounihonden』 by Matsushita Kenrin. These are the records that served as a link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in relation to the Story of XUFU.

The time when Sima Qian began to write 『Shiji』 was 105 B.C. And the main character of 『Shiji』 《Huainan hengshan liechuan》, Liu An, a King of Huainan, died after a failed rebellion in 122 B.C. There is a time difference of only 17 years. Considering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XUFU records of 『Shiji』 should be regarded as true and verified historical records. On the other hand, XUFU is nothing more than a legend in Korea and Japan, where no archaeological relics related to XUFU have been found so far.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story of XUFU was naturally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Judging from the contents of 『Usikgok』, it seems that the story of XUFU had already been widely spread in the Japanese archipelago for several centuries before the legend of XUFU's settlement in Japan was known in China through 『Uichoyukcheop』. This story of XUFU was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Japanese Shintoism, and the deification of XUFU was made. In addition,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and Edo periods, who were obsessed with toadyism for China due to the dispatch of Joseon correspondents to Japan after the 17th century, combined with each other, giving value to quoting rather than a strict argument about the story of XUFU.

During the Joseon Dynasty, some Confucian scholars also attempted to link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Story of XUFU. Choi Bu(「The 35th verse of Tamna poetry」), Hwang Junryang(『Geumgyejip』), Jung On(『Geumgyejip』), Ahn Jungbok(『Dongsagangmok』), 『Park Taemu(Seogyejip』) and Jo Eom (『haesailgi』) and others are among them.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 is a clear party to the XUFU story, it is a sad reality that research on XUFU is not as active compared to China and Japan. We should know that storytelling and content development are possible only through in-depth humanities research on XUFU.

Keywords : 서복, 徐福, じょふく, XUFU